

미래를 보는
데자뷰이론

Dejavulab

미래를 보는 **데자뷰이론**

초판 발행 2010년 10월 1일

지은이 제갈양

펴낸이 제갈양

펴낸곳 데자뷰랩

홈페이지 www.dejavulab.co.kr

이메일 crossmax73@naver.com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이 책을 무단 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이 책은 PDF 파일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본 파일을 출력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무단 복제 또는 유통을 하는 경우 민사상 피해보상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파일에는 개인 고유의 비밀번호와 본인의 이름이 책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데자뷰이론

머리말

새로운 분석의 세계로

어린 시절 나는 수학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재미있었고, 그 원리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내가 대학에 들어가며 선택한 전공은 수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주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초보 투자자로서 '수학의 정석' 처럼 기초가 될 만한 서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식 분야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체계를 이해하게 도움을 주는 책이 없었다. 주식 관련 설명은 모두 제각각이었으며 왜 그렇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모든 것이 패턴이란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었고, 패턴을 벗어난 것은 손절이란 무기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나에게 주식 시장은 정말 어려운 곳이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봉 패턴과 이동 평균선을 분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지표들의 수치를 외워 가며 그 조합을 이용해 거래를 시도한다.

혹자는 봉 차트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단지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참고로 나는 몇 초 정도 걸린 듯하다. 여러분이 배워야 하

는 것은 분석의 기초이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을 공부해 보면 주식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고수들이 주식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얼핏 들어 보면 대단하게 심지어 경이롭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 좀 더 알고 나면 실제 주가의 움직임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별개로 어떠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 접한 책은 고승덕 씨의 주식 강의였다. 그가 주식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 사람인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의 지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로 그의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듯 하나의 지표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주식 시장에 뿌리 내려야 한다. 이 책은 내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해 온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으며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처음에 만들었던 가설을 하나의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가 분석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기존의 틀에 갇혀 기술적 분석에 대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길 원치 않는다. 기술적 분석에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

람들은 알아야 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많은 실전 경험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분석을 폄하하는 행동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토대 없이 개개인의 매매 기법에 의해 기술적 분석이 곡해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보조 지표의 수치 조작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각의 지표들은 그 지표가 보여 주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러한 기초 지식 없이 단지 과열과 침체 그리고 골드크로스 와 데드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분석될 뿐이다.

이 책은 기존의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분석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술적 분석은 철저하게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며,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지표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나는 주식 세계가 확률이 아닌 함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믿으며, 단지 변수에 따라 반응하는 거대한 함수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함수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학적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감각에 의존하는 분석 방법 또한 지양하고 있다. 봉 몇 개를 나열해서 일종의 패턴을 만들어 분석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세상을 단지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미래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패턴이나 연구하는 조잡스런 미신이 아니라 철저히 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과학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과학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이 이론은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란 개인의 꿈에 의해 시작되었기에 데자뷰 분석 이론이라 부르기로 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때쯤에는 왜 이 이론을 데자뷰 분석 이론이라 이름 붙였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주식 공부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다만 주식을 분석할 때는 철저하게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데자뷰 분석 이론은 여러분의 투자 세계에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언젠가 데자뷰 분석 이론이 주식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워야 할 하나의 필수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때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겐 이론처럼 데자뷰 분석 이론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주식 시장에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차례

제1장 미래의 나침반 : 투자 심리도의 세계

01. 2010년 지동설의 시작	12
02. 기술적 분석을 말하다	19
03. 투자 심리도의 기본	25
04. 매트릭스의 이해	31
05. 투자 심리도 구조의 이해	46
06. 투자 심리도 고급편 : 주기론	53
07. 투자 심리도 고급편 : 수급론	137

제2장 판도라의 상자 : 데자뷰 차트의 세계

08. 데자뷰 차트 속으로	204
09. 미래를 여는 공식	210
10. 가격의 진실 P차트	214
11. 추세 대응 T차트	229
12.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243
13. 랠리를 말하다	263
14. 공간에 대한 이해	287

제1장 미래의 나침반

투자 심리도의 세계

01

2010년 지동설의 시작

갈릴레이는 무죄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데 359년이 걸렸다. 우리가 아는 주식의 세계는 천동설이 지배한다. 이런 와중에 누군가 지동설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지구는 돈다. 언젠가 먼훗날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어느 날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기초 상식도 모르고 있었느냐며 비아냥댈지도 모르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논할 가치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그는 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해져야 했을 것이다.

흔히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증 과정을 거쳐 일반화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세상이 존재한다. 바로 주식의 세계이다. 이제 주식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지동설과 천동설처럼 주식 세상에서도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설: 봉이 주가를 그려 간다.

두 번째 가설: 주가가 봉을 그려 간다.

이 두 가지 가설 사이에서 난 한 가지를 선택해 그것을 검증해 보려 한다. 사람들은 봉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고 주가를 분석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조 지표 같은 것은 단지 참고용일뿐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일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봉 차트에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들어 있지 않았다. 봉이 주가를 그려 간다면 분명히 봉이 주는 힌트가 있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봉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규칙이 보이지 않았다. 봉의 형태를 세분화시켜서 학습한 후에 그것을 각 봉 차트마다 적용해 보니 일정한 규칙이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봉이 주가를 그려 간다는 가설은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첫 번째 가설을 버리고 두 번째 가설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가설의 핵심 내용은 봉이란 단지 그려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봉이 아닌 주가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봉 차트 자체를 버려야만 했다. 봉이 단지 그려지는 것이라면 봉을 보지 않아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른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여러 지표들을 사용해 보

기로 했다.

만약 봉 차트가 종가 정보를 보여 주지 않는다고 해도 분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주식판 지동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아마도 나의 이런 계획을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갈릴레이가 겪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식판 지동설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이 기록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씩 지동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천동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차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봉 차트를 버리라고 주문한다.

봉 차트는 단지 차트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봉 차트를 막대 차트나 바 차트 또는 선 차트로 바꾼다고 해도 분석 결과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봉 차트는 단지 네 가지 정보의 위치 값을 봉으로 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봉 차트를 선 차트로 바꾼다면 분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봉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매뉴얼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선 차트에 양봉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거니와 막대 그래프에 비석형이 있다는 얘기도 접해 본 적이 없다.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주가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가에 관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많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간이 있다면 서점에 가서 재테크 코너의 주식 관련 책을 찾아보라.

그러면 다음 세 종류로 분류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자신을 자랑하는 책이다.

누가 투자금 얼마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을 말한다. 나는 이런 책은 아예 보지 않는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의 유지 여부이다. 즉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장기간 동안 그 수익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느냐가 더 큰 관심 사항인 것이다. 만일 300만원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적어도 1조 이상의 자본을 굴려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책을 썼을 리 없다. 그들은 운이 좋아 그런 돈을 만졌을 뿐이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자산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때에는 투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지만 투자금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는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거대해진 투자금 자체를 소

회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그런 시장을 찾지 못한 것 같다. 혹 그들 중에 파생 시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비법으로 투자를 한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식 바닥에서 알아 준다는 고수가 파생 시장에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광범위한 기초 서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초 서적을 가장 좋아한다. 각종 지표들에 대한 기본 개념, 즉 정의를 다루는 책들이다. 이런 책은 읽기에도 쉽고 상당히 중요한 지식들을 전해 준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주로 살펴본다. 그러나 이런 기초 서적 중에서도 좋은 책을 골라 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모든 기술적 분석 관련 서적들이 봉 차트를 다룬다. 봉의 정의, 봉의 형태, 그리고 연속적인 봉의 연결 상태를 패턴화 시킨 규칙 등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뒤 페이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 보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표당 할애된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쓸데없다고 판단되는 봉은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왜 정작 중요한 보조 지표들은 그토록 가볍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주식판 천동설 시대의 현실이다.

세 번째는 정보를 자세하게 다루는 전문 서적이다.

전문 서적 중에는 나름 자신만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보조 지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묘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보편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임의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책 속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무리 봐도 붕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으니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본 책의 내용도 세 번째 부류와 유사하다. 실제로 필자가 다루려는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다.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전문 서적을 보며 어려워했던 것처럼 본 책의 독자들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루려 한다. 그렇게 해야만 독자들이 본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붕을 외우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보조 지표가 허접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할 뿐이다.

본 책엔 붕을 다루는 내용이 없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서점에 가서 붕 관련 서적을 살펴보길 권한다. 단지 붕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절대로 읽지 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붕 형태나 연속된 붕의 패턴을 외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의 시각에서 주식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주가가 철저하게 함수에 의해 만들어짐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단지 그려져 가는 봉이 아닌 봉을 그리게 하는 힘을 볼 수 있는 보조 지표에 대해 먼저 배우게 될 것이다. 보조 지표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보조 지표를 알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 지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봉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02

기술적 분석을 말하다

기본적 분석도 기술적 분석도, 분석 방법들은 모두 후행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 자체를 두고 우위를 따질 필요는 없다. 다만, 기술적 분석에는 미래를 보는 창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그 창을 통해 미래를 보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선형적 분석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한다. 특히 기술적 분석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형적 지표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젖어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100% 공감하는 바이다. 세상에 선형 지표는 없다. 그것은 모든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봉차트 또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분석이란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이유로 데이터가 생성되기 전에는 분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PER이든 매출 자료이든 순이익이든 이동 평균선의 값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어떤 정보를 통해 다음 날 발생할 수치를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구이다.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파생 시장을 같이 놓고 본다면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이 내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 파생 시장은 구조 자체가 장기 투자의 개념이 없다. 물론 선물 쪽은 스프레드를 통해 장기 투자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옵션은 만기라고 해 봐야 고작 1개월에 지나지 않고, 선물은 만기가 3개월이므로 6개월 뒤의 경제 상황이 파생에 아무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내일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한 방향성만 알아도 수백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파생 시장이다. 그런데 고작 100%의 수익을 얻겠다고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적어도 파생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 것은 노력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우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는 접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이에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혹시 기본적 분석이 우월하다고 판단된다면 종합 지수를 기본적 분석으로 해석해 보길 권장하고 싶다. 단지 어떤 분석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장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 역시 너무도 다채롭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지나친 선입견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정말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혹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아마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해 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 분석이 있을 것이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수치의 조합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조 지표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이 중 몇 개를 골라 그 지표들의 속성 중 의미 있는 것들이 상호 교차하는 상황을 매매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다.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합성해야 할 보조 지표의 수를 늘리거나 보조 지표의 기본 수치들을 변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분석이 과거를 분석한다는 비난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방식이다.

스토캐스틱 역시 나타내는 일정 수치들이 있다.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0-6-6, 스토캐스틱 20-12-12 같이 보조 지표들은 각각의 지표를 사용하는 데 일정한 수치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이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혹 이런 수치로 보조 지표를 생성한 후에 침체 30 과열 70이라는 추가적인 수치를 대입해 매수와 매도의 진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30분봉이 침체이고 45분봉은 과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60분봉이 침체이고 120분봉은 과열이라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는 보조 지표의 수치에 의해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수치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다. 주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지 않은 채 일정한 수치 값만을 암기하여 거래하는 사람들은 후에 보

조 지표는 물론이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보조 지표의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그 주가가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표들의 값이나 봉의 형태를 일정한 패턴으로 정의하고 외워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기술적 분석이란 영원히 과거를 분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식 투자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에 상당히 편할 뿐만 아니라 잘만 매매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거래 행위를 했을 뿐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체계도 갖추지 못했으며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하는 객관적 근거 또한 확보하지 못했으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없이 응용력을 아무리 키워 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지표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표의 속성 값을 외워 거래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안타깝다. 그러나 시중에는 지표에 대한 정의부터 사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혹여 그런 책이 있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기술적 분석은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

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나는 기술적 분석이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홀로 주장해야 한다. 어쩌면 갈릴레이처럼 한동안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옳은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주식은 확률이 아니라 함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가 보는 HTS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그래프는 함수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함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을 확률이라고 말한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확률을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다. 단지 투자자가 방향을 찍기 때문에 확률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주가는 함수식에 의해 구현된다. 결국 주가를 이루고 있는 함수를 이해해야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주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다.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도 나와 똑같은 시각으로 주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술적 분석이 왜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고,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미래를 분석한다는 대전제를 이해하기에 앞서 기술적 분석을 해 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학습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접할 내용은 아주 쉬운 반면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래서 혹 이전에 기술적 분석을 다른 방식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을 동안 만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 놓길 바란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는 작은 배려이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보자.
이것이 투자의 시작이 될 테니까

03

투자 심리도의 기본

사람들에게 투자 심리도라는 보조 지표를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안다고 하고 그닥 쓸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투자 심리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단지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전부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투자 심리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과열 수치와 침체 수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자 심리도라는 지표가 그닥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스스로 연구해서 얻은 결과인가라고 다시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전문가가 그러더라 또는 책에서 봤다고 답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관점을 바꿀 생각은 없다.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 대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보조 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 한다.

우선 투자 심리도의 정의를 살펴보자.

투자 심리도 [投資心理度]

투자 심리 변화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최근 10일간의 주가지수 상승일수를 10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구한다. 대개 25% 이하면 침체권, 75% 이상이면 과열권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는 투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지 지표의 이름이 투자 심리도일뿐이다. 투자 심리도의 본질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내리면 투자 심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정말 주가가 오르면 투자 심리도 오르는 걸까? 아직까지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투자 심리도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정의가 아닌 어떤 함수식을 통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을 살펴보자.

$$\text{투자 심리도} = \frac{\text{단위 기간 내의 상승일수}}{\text{단위 기간}} \times 100$$

투자 심리도는 10일간 상승한 날짜 수를 10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서 구한다. 실제로는 10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통상 10일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공식

에는 단위 기간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자 심리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예전에는 12일을 기준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주 6일제 근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된 이후로 투자 심리도의 단위 기간이 10일로 변경된 듯하다. 아마도 투자자가 투자 심리도를 사용할 때 단위 기간에 10일 이외의 수치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투자 심리도의 공식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

$$\text{투자 심리도} = \frac{\text{단위 기간 내의 상승일수}}{\text{단위 기간}} \times 100$$

$$\text{투자 심리도} = \frac{\text{10일 중 상승일수}}{\cancel{10}} \times \cancel{100}^{10}$$

$$\text{투자 심리도} = \text{10일 중 상승일수} \times 10$$

10으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하는 과정은 결국 10을 곱하는 것과 같다. 이제 투자 심리도의 공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투자 심리도는 10일간 상승일수에 10을 곱해서 구한다.

투자 심리도는 매우 단순한 조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조 지표이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값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 안에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제부터 투자 심리도의 숨겨진 세계를 탐험해 보자.

투자 심리도의 정의에는 상승일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도대체 상승일수란 무엇일까?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한 내용 같지만 투자 심리도는 상승일수라는 독특한 구조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투자 심리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승일수가 투자 심리도를 이해하는 데 핵심 부분이 된다. 상승일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승일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럼 상승일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상승일수

상승일수는 전봉 대비 주가가 상승이면 1로, 전봉 대비 주가가 하락이면 0으로 표시한 후 이를 단위 기간만큼 더한 수치를 말한다.

전봉 대비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는 투자 심리도를 어떤 봉에 적용하나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투자 심리도를 일봉에 적용한다면 전봉은 전일이 되겠지만 주봉에 적용하는 경우라면 전봉은 전주가 된다. 이런 이유로 상승일수를 정의할 때 전봉이라는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1로 표시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0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보합은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전봉과 대비해 주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거나 작은 것은 하락에 포함되도록 공식이 만들어져 있다. 만약 보합 즉 등가의 주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락으로 표시한다.

투자 심리도에서의 상승

현재 봉 주가 > 이전 봉 주가

투자 심리도에서의 하락

현재 봉 주가 = 이전 봉 주가

현재 봉 주가 < 이전 봉 주가

그럼 이제 상승일수에 대한 최종 정의를 내려 보자.

상승일수란 전봉 대비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1로 표시하고 하락했을 경우 0으로 표시한 후, 10일간의 값을 합친 것이다.

용어로 정의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10일 동안 주가가 오른 날짜의 수를 말한다. 만약 10일간 주가가 상승한 날짜가 5일이라면 상승일수는 5이고 이것을 투자 심리도로 전환하면 50이 된다. 이렇듯 투자 심리도의 공식은 매우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 심리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 그 어디에도 투자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가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만약 투자 심리가 주가 상승 또는 주가 하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누군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자 심리도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테스트해보자. 여러분의 투자 심리도에 대한 이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몇 가지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다.

예제 1) 10일간 상승일수가 5일이었다면 투자 심리도는 몇인가?

① 40 ② 50 ③ 60 ④ 70 ⑤ 80

예제 2) 10일간 하락일수가 4일이었다면 투자 심리도는 몇인가?

① 40 ② 50 ③ 60 ④ 70 ⑤ 80

너무나 쉬운 문제이니 예제에 대한 풀이는 생략하도록 한다.

만약 위의 두 문제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04

매트릭스의 이해

매트릭스는 행렬을 뜻하는 수학 용어이다. 그리고 자궁 즉 모체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세계가 현실이라면 매트릭스는 가상의 세계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식의 세계에도 매트릭스의 세계가 존재한다. 매트릭스가 주식 세계를 지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심리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이다. 이 정도 수준의 지식으로 투자 심리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한다. 과열은 75이상이고 침체는 25이하라는 수치적 정의를 내린 후에 투자 심리도가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일정한 패턴의 형태로 결론을 내린다. 나는 그 어느 전문가를 막론하고 이런 형태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 또는 저자들의 결론에는 넌센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투자 심리도는 단위 기간을 10일로 사용하는 이상 75나 25 같은 수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조 지표의 경우, 그 수치 값이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표시될 수밖에 없지만 투자 심리도는 소수점이 발생할 수 없는 공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수치는 모두 10 단위로 끊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75 이상이 과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75라는 수치가 성립될 수 있어야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80 이상 또는 70 초과라고 하는 것이 투자 심리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

심리도 값 중 75나 25를 본 적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그러나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면 과연 75나 침체 25는 잘못된 정의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값을 정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과연 그들이 해당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투자 심리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상승일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상승일수가 매트릭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 심리도에서는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매트릭스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행렬이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 배웠던 행렬이 바로 매트릭스이다. 영화 매트릭스를 본 적이 있을 테니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행렬 [行列, matrix]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행렬의 가로 줄을 행, 세로 줄을 열이라 한다. 행렬에는 결합 법칙 및 배분 법칙이 성립하며, 덧셈·뺄셈·곱셈의 연산이 성립한다. 그러나 곱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눗셈에는 조건의 첨

가가 필요하다. 행렬은 이론적으로 매우 명쾌하며, 기호적으로도 간결하기 때문에 그 응용이 상당히 넓으며, 수학이나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위의 정의를 보면 다소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에서 다루는 매트릭스는 매우 단순하다. 상승일수를 정의할 때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 1로 표시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0으로 표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림이 조건 값에 의해 어디에 1이 표시되어 있고 어디에 0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매트릭스이다. 매트릭스가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심리도가 10일을 단위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항상 1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 차트는 보통 양봉/음봉 또는 상승/하락으로 주가를 표시한다. 그러나 매트릭스상에서는 단지 0과 1로 표시될 뿐이다.

5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한 후에 5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투자 심리도는 상승일수에 10을 곱하기 때문에 하락한 날짜를 생각할 필요 없이 상승한 날짜 5만을 적용해서 10을 곱하면 바로 투자 심리도 값이 나온다. 현재 조건 하에서 투자 심리도 값은 50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5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5일간은 계속 1만 만들어진다.

매트릭스

1/1/1/1/1

이후 5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나머지 5일간은 계속 0만 만들어진다.

매트릭스

1/1/1/1/1/0/0/0/0/0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0과 1 10개가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매트릭스이다.

그럼 왜 매트릭스를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동일한 투자 심리도의 값이어도 매트릭스의 구조는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투자 심리도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도의 수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매트릭스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매트릭스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주가는 3일 연속으로 상승한 후에 2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다시 2일 연속으로 상승한 후에 3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것을 매트릭스로 표현해 보자.

3일 연속으로 상승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매트릭스

1/1/1

이후 2일간 연속으로 하락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매트릭스

1/1/1/0/0

이후 주가는 다시 2일간 연속으로 상승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매트릭스

1/1/1/0/0/1/1

이후 주가는 다시 3일간 연속으로 하락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매트릭스

1/1/1/0/0/1/1/0/0/0

위와 같이 매트릭스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매트릭스를 통해 투자 심리도의 값을 구해 보면 50이 나온다. 연속으로 5일간 상승한 후에 다시 5일간 하락한 투자 심리도 값과 일치한다. 그러나 매트릭스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투자 심리도의 값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어도 실제로 매트릭스는 수없이 많은 경

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가 같다고 해서 향후 주가가 동일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매트릭스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지 오르고 내린 순서를 0과 1로 표시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것을 10개 단위로 묶어서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트릭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HTS에는 매트릭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심리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매트릭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주가를 분석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동 평균이다. 이동 평균은 이동 평균선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동 평균선은 이동 평균이 적용된 하나의 사례일뿐이고 이동 평균은 주가 분석에 기준이 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보통 평균은 모집 단위를 무작위 또는 일정한 범위를 조건식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 평균은 그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지정해 버리고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이동 평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각종 지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이동 평균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이동 평균 [移動平均]

추세의 변동을 알 수 있도록 구간을 옮겨 가면서 구하는 평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 6일 동안의 주가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대신 오늘의 주가를

넣으면 새로운 6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동 평균의 개념을 살펴보면,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예를 들어 평균에서는 우리 반 학생의 평균을 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경우 우리 반 학생들이 전입 또는 전출이 되지 않는 한 모집 단위는 변경될 일이 없다. 그러나 이동 평균은 기간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집 단위가 변경된다. 이렇게 모집 단위가 변경될 때 전출자와 전입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동 평균의 핵심이다.

이것을 투자 심리도에 적용해 보자. 투자 심리도에서는 10일을 단위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는 10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모집 단위는 10개만을 유지해야 이동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여기에서 매트릭스와 이동 평균의 관계를 살펴보자.

5일 연속 상승하고 그 후 5일 연속 하락한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매트릭스

1/1/1/1/1/0/0/0/0/0

위와 같은 매트릭스 구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가 더 지났다고 치자. 그럼 그날 장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고 적용해 보자.

매트릭스

1/1/1/1/1/0/0/0/0/1

주가가 상승했으므로, 맨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매트릭스의 기본 조건은 10개를 모집 단위로 사용하는 것인데 매트릭스의 숫자가 11개가 되어 버렸다. 그럼 모집 단위를 10개로 축소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이동 평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이동 평균에서 밝혀 준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조건을 살펴보자.

이동 평균 [移動平均]

추세의 변동을 알 수 있도록 구간을 옮겨 가면서 구하는 평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 6일 동안의 주가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대신 오늘의 주가를 넣으면** 새로운 6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동 평균의 정의에 보면 가장 오래된 주가 대신 오늘의 주가를 넣는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동 평균에서 모집 단위를 조절하는 기준이다.

새로운 값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오래된 값이 나가야 하며, 그래야 정확한 모집 단위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추가로 새로운 값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맨 좌측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값이 퇴출되어야만 한다.

이동 평균의 정의에 근거해서 매트릭스를 수정해 보자.

매트릭스 (모집 단위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1/1/1/1/1/0/0/0/0/1

매트릭스 (모집 단위를 조정한 경우)

1/1/1/1/0/0/0/0/0/1

이전의 매트릭스의 상태

1/1/1/1/1/0/0/0/0/0

변경된 매트릭스의 상태

1/1/1/1/0/0/0/0/0/1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빠져나가야 하는 값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전의 매트릭스의 상태와 변경된 매트릭스의 상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 매트릭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트릭스가 투자 심리도 값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야 한다. 매트릭스와 이동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투자 심리도 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투자 심리도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투자 심리도는 상승일수에 10을 곱해서 구한다. 상승일수에서 하락일수는 중요하지 않다. 상승은 1로 표시하고 하락은 0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된 값은 투자 심리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0이라는 숫자가 상승일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5일간 연속으로 하락하고 다시 5일간 연속으로 상승한 경우,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만들어진다.

매트릭스

0/0/0/0/0/1/1/1/1/1

이것을 투자 심리도 값으로 계산하면 상승일수에 10을 곱하는 것이므로 50이 된다.

이 값을 잘 기억해 두자.

여기에서 날짜가 하루 더 바뀌게 되면 그 다음 날의 주가 상태에 따라 매트릭스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다음 날의 주가와 무관하게 이동 평균

의 규칙에 의해 되출되는 매트릭스 값은 알 수 있다.

매트릭스

0/0/0/0/0/1/1/1/1/1/?

?는 앞으로의 주가 결과가 표시될 부분이다. 여기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해서 0이 들어올 수도 있다. 즉 아래와 같이 2개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의 매트릭스

0/0/0/0/0/1/1/1/1/1/1

주가가 하락할 경우의 매트릭스

0/0/0/0/0/1/1/1//1/1/0

위의 결과처럼 어차피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제 매트릭스에서 모집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값을 되출시켜 보자.

주가가 상승할 경우의 매트릭스

0/0/0/0/1/1/1/1/1/1/1

주가가 하락할 경우의 매트릭스

0/0/0/0/1/1/1//1/1/0

위의 경우에서 가장 오래된 매트릭스의 값은 0이다. 맨 좌측에 존재하는 값이 퇴출 대상이 된다. 가장 오래된 값을 퇴출 시킨 후에 투자 심리도 값을 구해 보면, 주가가 상승할 경우의 상승일수의 합은 6이다. 따라서 투자 심리도 값은 60이 된다. 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의 상승일수의 합은 5이다. 따라서 투자 심리도 값은 50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봉을 적용하기 전의 투자 심리도 값은 50이었다.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가가 하락해도 투자 심리도 값은 변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가가 하락했다면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주가의 하락과 무관하게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 사람들은 그래프를 통해 결과만을 보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이다. 투자 심리도의 경우, 매트릭스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투자 심리도 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트릭스에서 1이 퇴출되어야 한다. 0은 퇴출되어도 상승일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출된 상태에서도 투자 심리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매트릭스 [10일 동안의 값]

0/0/0/0/0/1/1/1/1/1

오래된 값을 미리 퇴출시킨 매트릭스 [9일 동안의 값]

0/0/0/0/1/1/1/1/1

매트릭스에서 미리 하나의 값을 퇴출시켜 놓고 투자 심리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둘 다 상승일수는 5이고, 투자 심리도는 50이 된다. 결국 0이 빠져나가는 것은 투자 심리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심리도의 값은 매트릭스에 의해 강력하게 제어를 받게 된다.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의 주가와 관계없이 투자 심리도는 한 쪽 방향으로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퇴출되는 값이 0이라면 투자 심리도는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 반대로 퇴출되는 값이 1이라면 투자 심리도는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절대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투자 심리도는 주가와 무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단순한 표로 정리해 보자.

가장 오래된 값(A)	가장 최근 값(B)	계산(B-A)	투자 심리도
상승 (1)	상승 (1)	$1-1=0$	횡보
	하락 (0)	$0-1=-1$	하락
하락 (0)	상승 (1)	$1-0=1$	상승
	하락 (0)	$0-0=0$	횡보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구조는 딱 한 가지이다. 가장 오래된 값이 0이어야 하고 가장 최근 값은 1이어야 한다. 이는 10일 전 주가가 하락했고, 오늘 주가가 상승한다면 투자 심리도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10일 전 주가가 상승했다면 투자 심리도는 어떤 경우에도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투자 심리도를 통해 적어도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7일 연속으로 하락한 후에 3일 연속으로 상승했다면 앞으로 7일간 투자 심리도는 절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사람들은 투자 심리도의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서 과열과 침체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 심리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매트릭스를 통해 투자 심리도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매트릭스만을 갖고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트릭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지 주가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와 주가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한 주가와 투자 심리도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론과 수급론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매트릭스의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심리도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투자 심리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위의 글을 통해 조금은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투자 심리도의 개념과 상승일수 그리고 매트릭스를 배우는 이유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내용들은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겠지만 매트릭스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매우 난해하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글을 읽어 가면서 매트릭스를 이해하도록 하자.

05

투자 심리도 구조의 이해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미 그려져 있는 투자 심리도 그래프를 분석하려 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려져 있지 않은 투자 심리도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가의 미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투자 심리도의 기본적인 정의와 근간을 이루는 매트릭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투자 심리도의 정의나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이유는 투자 심리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트릭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와 투자 심리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투자 심리도를 그려 보면서 주가가 투자 심리도 그래프와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서 움직이는지 또 매트릭스는 주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반대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우선 투자 심리도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자. 10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한 봉이 있다. 이 봉을 A라고 부르기로 하자. 10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한 봉이 있다. 이 봉을 B라고 부르기로 하자. A봉의 투자 심리도는 10일간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0이 된다. 반면 B봉의

투자 심리도는 10일간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므로 100이 된다.

그럼 A봉과 B봉의 매트릭스를 살펴보자.

A봉 매트릭스

0/0/0/0/0/0/0/0/0/0

투자 심리도 0

B봉 매트릭스

1/1/1/1/1/1/1/1/1/1

투자 심리도 100

A봉의 경우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하였고, B봉의 경우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하였다면 A_1봉과 B_1봉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A_1봉 매트릭스

0/0/0/0/0/0/0/0/0/1

투자 심리도 10

B_1봉 매트릭스

1/1/1/1/1/1/1/1/1/0

투자 심리도 90

A_1봉과 B_1봉의 상황에서 그 다음 봉을 모두 상승시키면 A_2봉과 B_2봉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A_2봉 매트릭스

0/0/0/0/0/0/0/0/1/1

투자 심리도 20

B_2봉 매트릭스

1/1/1/1/1/1/1/1/0/1

투자 심리도 90

A_2봉과 B_2봉의 상황에서 그 다음 봉을 모두 하락시키면 A_3봉과 B_3봉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A_3봉 매트릭스

0/0/0/0/0/0/0/1/1/0

투자 심리도 20

B_3봉 매트릭스

1/1/1/1/1/1/1/0/1/0

투자 심리도 80

이제 마지막으로 A_3봉과 B_3봉 상황에서 그 다음 봉을 모두 상승시키면 A_4봉과 B_4봉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A_4봉 매트릭스

0/0/0/0/0/0/1/1/0/1

투자 심리도 30

B_4봉 매트릭스

1/1/1/1/1/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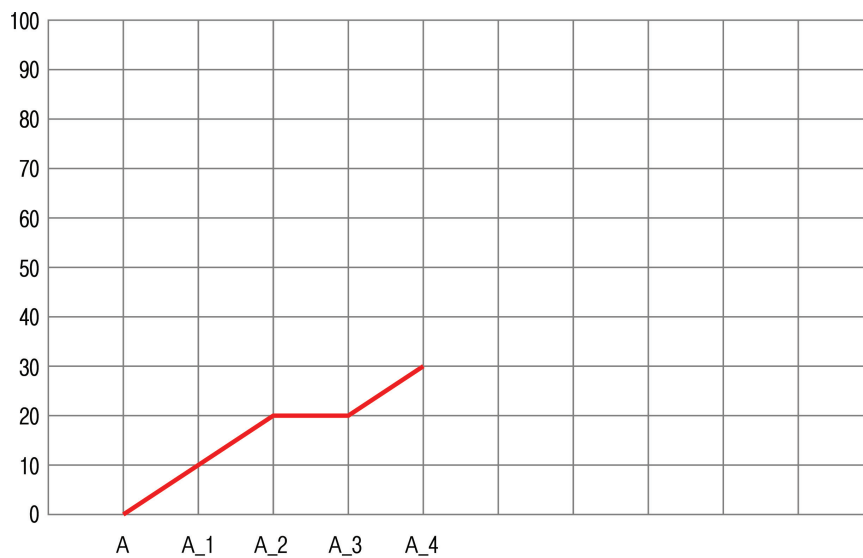
투자 심리도 80

이제 두 경우의 투자 심리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확인해 보자.
먼저 A봉의 경우를 살펴보자.

최초 투자 심리도의 값은 0이었다. 그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트릭스에 1이 추가되었고 가장 오래된 값인 0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면 계산식(최근 값 - 가장 오래된 값)을 통해서 투자 심리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투자 심리도는 10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상승하였으니 매트릭스에 1이 추가되고 0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투자 심리도는 다시 상승하게 된다. 이제 투자 심리도는 20이 되었다.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매트릭스에 0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0이 빠져나가게 된다. 즉 값은 변하지 않는다. 투자 심리도는 20을 유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트릭스에 1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0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게 된다. 이제 투자 심리도는 30이 되었다.

4일에 걸쳐 3번 상승하였고, 1번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도는 한 번의 하락도 없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간에 투자 심리도가 횡보를 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투자 심리도가 지속적인 상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A봉의 투자 심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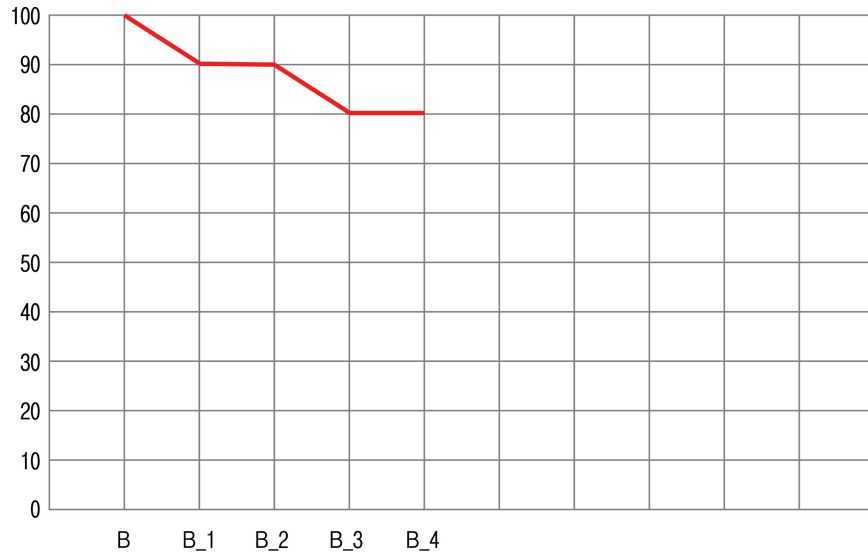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를 통해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다.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에서 0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없는 이유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럼 이제 정반대의 상황인 B봉을 한번 확인해 보자.

B봉의 경우, 10일 동안 주가가 연속으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100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매트릭스에는 0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1이 빠져나가게 된다. 계산식(최근 값 - 가장 오래된 값)에 의해 투자 심리도 값이 하락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투자 심리도는 100에서 90이 되었다. 그 다음 봉에서는 주가가 상승했으므로 매트릭스에 1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1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도는 횡보한다. 여전히 투자 심리도 값은 90을 유지한다. 그 다음 봉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매트릭스에는 0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1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투자 심리도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 이제 투자 심리도는 80이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므로 매트릭스에는 1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값인 1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게 된다. 최종 투자 심리도의 값은 80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에서 1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없는 이유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림 2. B봉의 투자 심리도]

위의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매트릭스가 투자 심리도 그래프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매트릭스가 모두 0이 되거나 모두 1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1과 0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투자 심리도의 방향을 읽어 내는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요구하게 된다.

매트릭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 심리도 그래프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주가에 미치는 힘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 주기론과 수급론이다.

06

투자 심리도 고급편 : 주기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인다. 이러한 주가의 일정한 주기를 이해하면 언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는지 또 언제 하락을 시작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 심리도의 기초 내용을 다루었다. 투자 심리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매트릭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프가 그려지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전 투자에서는 단지 매트릭스가 1의 영향을 받느냐 또는 0의 영향을 받느냐보다 주가와 어떤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투자 심리도의 하락이 주가 하락의 징후일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도 전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 심리도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어 분석하는 방법이 주기론과 수급론이다.

우선 주기론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보는 봉 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의 4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심리도의 값은 종가의 투자 심리도이다. 물론 투자 심리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종가

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투자 심리도는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도는 하나의 그래프로 정의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단지 표현(표시)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자. 흔히 이동 평균선이라 하면 사람들은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처럼 단위 기간에 의해 나뉘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동 평균선은 종가의 이동 평균선을 비롯하여 시가의 이동 평균선, 저가의 이동 평균선, 고가의 이동 평균선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거래량까지도 이동 평균선이 존재한다. 결국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 각 상황에 맞는 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종가의 이동 평균선에 저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가는 저가의 이동 평균선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이지 종가의 이동 평균선에 의해 지지를 받지 않는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수험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등록금을 대주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이동 평균선과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도에도 다양한 투자 심리도가 존재한다. 종가의 투자 심리도, 저가의 투자 심리도, 고가의 투자 심리도, 시가의 투자 심리도 그리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그것이다. 스토캐스틱의 투자 심리도도 존재하며, RSI의 투자 심리도도 존재한다. 투자 심리도의 공식에서 단지 변수 값 하나만 바뀌 주면 무한대의 투자 심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 심리도라는

보조 지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좁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동등한 논의나 토론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투자 심리도는 수천 가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수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한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증가의 투자 심리도 하나만을 보고 투자 심리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조 지표는 허술하지 않다. 보조 지표의 세상은 엄청나게 거대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보조 지표를 개발한 사람들 역시 상당 기간 연구를 통해 개발을 했을 텐데 이런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을 몇 줄 정도만 읽고는 그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한다.

투자 심리도를 정의하면서 투자 심리도는 투자 심리를 보여 주는 그래프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의 일정한 주기를 표시해 주는 그래프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투자 심리도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구조적인 모습을 그래프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통해 상승하는 주기와 하락하는 주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주가의 주기가 아닌 투자 심리도라고 하는 지표의 주기를 의미한다.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과 무관하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게 되는 구간을 상승 주기라 하고 반대로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게 되는 구간을 하락 주기라 한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의 주기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4가지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투자 심리도가 상승 주기일 경우

주가 상승 : 상승

투자 심리도와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상승이라고 정의한다.

주가 하락 : 조정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하락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정의한다.

투자 심리도가 하락 주기일 경우

주가 상승 : 반등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상승하는 것을 반등이라고 정의한다.

주가 하락 : 하락

투자 심리도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 하락이라고 정의한다.

위의 내용처럼 주가의 방향과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를 온전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양방향의 힘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주가의 상태이더라도 다른 상태라고 정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승 주기에서는 상승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주기에서는 하락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상승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주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주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도에 의해 조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심리도에 의해 반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지식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해 준다.

주기론에서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주기론의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도는 종가의 투자 심리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려면 종가가 아닌 고가와 저가를 이해해야 한다. 왜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고가나 저가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주가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단지 주가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보다 주가가 내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가를 갱신해야 하며, 주가가 내리기 위해서는 저가를 갱신해야 한다. 고가를 갱신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며, 저가를 갱신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공간 또한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졌는가는 고가의 힘을 통해 판단해야 하고, 주가가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는가는 저가의 힘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종가는 단지 그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도구일뿐이다. 결국 오르고 내리는 힘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는 고가와 저가이며, 이런 이유로 주기론에서는 고가의 투자 심리도와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주기론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가와 저가의 투자 심리도이다.

주기론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한계치에 대한 부분이다.

주가는 경우에 따라 무한대로 상승하거나 무한대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주가만을 보고 앞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주가만으로 주가의 주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계치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보조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 심리도에는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투자 심리도에 한계치 또는 한계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되고 반대편 사이클이 시작되게 된다. 만일 상승 주기에서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면 상승 주기는 마무리되고, 하락 주기가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락 주기가 시작되면서 하락 주기가 지속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명시해 준다.

즉 투자 심리도의 한계를 통해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구분되게 되며, 이 주기를 그대로 주가에 대입해 분석하게 된다.

물론 투자 심리도의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주가와 일치할 수는 없다. 때론 일치할 것이고 때론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도의 주가에 의해 주가를 분석하면서 일치와 불일치를 통해 주가의 힘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심리도에서 한쪽 방향의 한계치에 도달한 후에 방향을 선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곳을 변곡점[變曲點,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부른다.

투자 심리도가 꼭 상승을 해오다 갑자기 발생한 한 번의 하락이 투자 심리도가 절대로 상승할 수 없는 환경을 야기시켜 그로 인해서 상승 주기가 끝나고 하락 주기가 시작된다는 논리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 매수의 경우 선물 매수일 수도 있고, 콜 매수일 수도 있다. 때론 풋 매도의 형태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든 주가 상승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어느 날 저가를 깨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은 전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든 상관없이 전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

자자는 저가 붕괴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전부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태로 주가를 관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 중의 일부는 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손절이라고 부른다. 즉 주가 상승이 매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청산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당일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와 전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취한 매도 포지션(청산)이 충돌하면서 주가는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전일 저가가 붕괴되는 것은 주가 상승에 강력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전일 저가를 붕괴시킴으로써 손절을 이끌어내어 매집을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붕괴가 저렴하게 매집을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대량 손절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주가를 보고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저가 투자 심리도의 주기이다.

투자자들의 행위를 단순하게 붕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고난도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고난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준하는 자금력 또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붕으로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에 따른 피드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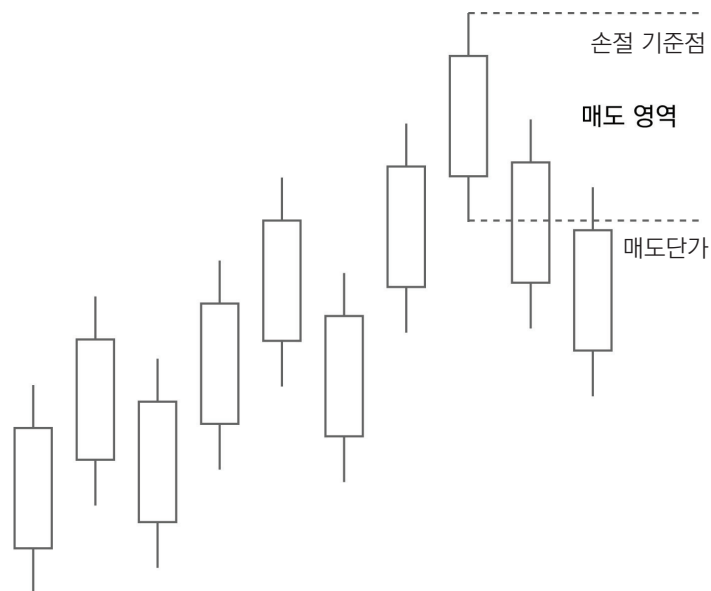
주가가 전일 저가를 깨는 경우는 많이 존재한다. 그 중 어떤 날 전일 저가를 깬 때 대량 손절 물량이 출회하는가를 구분해 내야 한다. 이것을 판단하려면 저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해야 한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통해 하락 주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라.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매수자들은 대량 손절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대량 손절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는 저가의 가격을 매도단가라고 한다. 즉 매도단가에 이르게 되면 상승을 억제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무리 강한 매수세가 발생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 동안은 대량 손절 물량을 받아 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힘을 이용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손절 물량이 매도 포지션을 유리하게 작용하게 해 준다. 그럼 매도단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지 저가의 투자 심리도 그래프를 통해 배워 보자.

매도단가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한계치, 즉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주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공간을 열기 시작한다. 이처럼 아래로 공간을 열게 되는 시발점을 매도단가라고 부른다.

실제로 거래에서 매도단가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하고,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가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매도단가를 활용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매도단가가 나온 이후에 등장하는 봉들의 저가는 대부분 매도단가보다 낮게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단가 위에서 매도를 하

게 되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다음 봉 또는 그 다음 봉에 의해 주가가 다시 매도단가까지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렇듯 주가가 매도단가로 회귀하려는 힘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매도단가의 활용 목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매도단가 역시 취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도단가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한 규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림 3. 매도단가의 구조]

그림 3에서 매도단가의 구조를 살펴보면 저가의 고점을 매도단가라고 설정하고, 이곳을 매도 진입의 시작으로 판단한다. 매도단가와 더불어 손절 기준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도단가와 투자 심리도의 관계

매도단가와 저가의 투자 심리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럼 매도단가와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매도단가는 일반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가의 고점이 아니다. 매도단가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의 고점과 일치하는 지점의 저가를 의미한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고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의 고점이 계속 높아져 간다 해도 매도단가는 변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도단가는 주가의 현상과 무관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매도단가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의 매트릭스이다.

저가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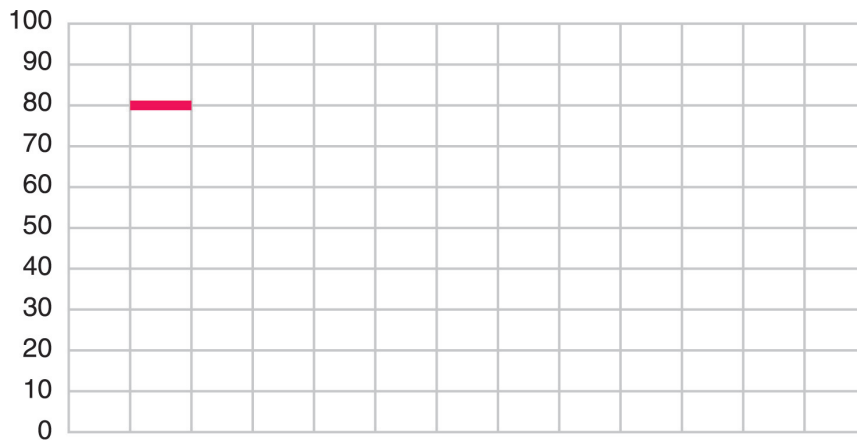
0/1/1/1/1/0/1/1/1/1

저가의 투자 심리도 80

상황 1.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저가를 붕괴시키는 경우

우선 상황을 설정해 매트릭스 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저가를 붕괴시킨다는 조건이 나왔으므로 다음 번 저가의 매트릭스 값은 0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값도 0이다. 즉 0이 새로 들어오고 0이 빠져나

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재 봉의 저가를 다음 봉에서 붕괴시킨다 해도 저가만 붕괴될 뿐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는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 값은 매트릭스 값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80을 그대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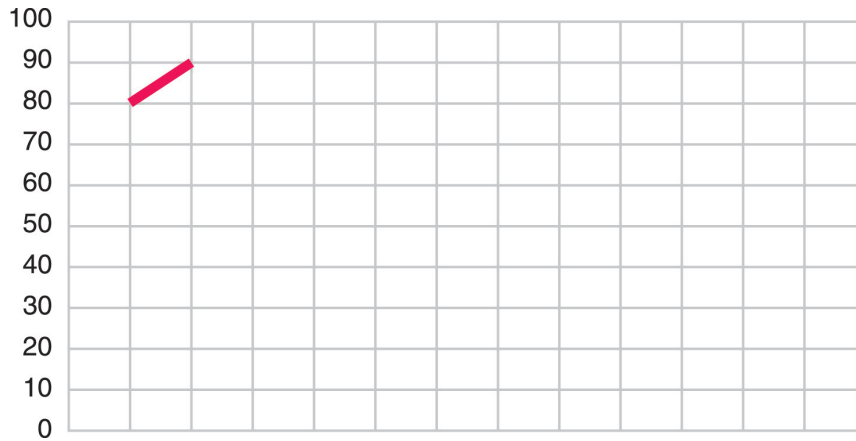


[그림 4. 상황 1의 저가 투자 심리도]

상황 2.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을 경우
가장 오래된 값인 0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저가를 지킨다는 조건이 붙었으므로 1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투자 심리도의 값은 80에서 90으로 상승하게 된다.

상황 1과 상황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매우 단순하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지 않으면 변곡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점이 계속 진행 중일 뿐 고점이 최종적으로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그림 5. 상황 2의 저가 투자 심리도]

상황 1과 상황 2 중, 상황 2가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저가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저가의 매트릭스

1/1/1/1/0/1/1/1/1/1

저가의 투자 심리도 90

그럼 이 상황에서 다음 봉이 현재 봉의 저가를 붕괴시킨다면 좀 전의 상황 1과 상황 2에서 발생한 결과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상황 3. 다음 봉의 저가가 현재 봉의 저가를 붕괴시키는 경우
 저가를 붕괴시킨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0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이고,
 가장 오래된 값이 1이므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저
 가의 투자 심리도는 80이 된다.



[그림 6. 상황 3의 저가 투자 심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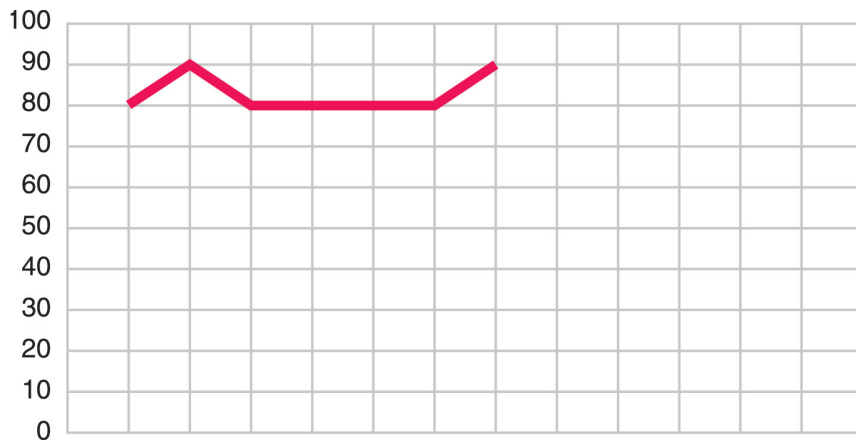
현재 봉에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90인데 반해 다음 봉 저가의 투자 심리
 도는 80이 된다. 그런데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에서 80으로 내려오면서
 한 가지 특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변경된 매트릭스를 한
 번 살펴보자.

저가의 매트릭스

1/1/1/0/1/1/1/1/1/0

저가의 투자 심리도 80

여기에서 향후 3일간 저가를 계속 상승시킨다고 해도 가장 오래된 값이 1이기 때문에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없다. 단지 상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90으로 복귀할 수 없다. 따라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90이 최고점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에서 80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매도단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매도단가가 나온 이후로 4일간 연속으로 저가를 높여 보자. 그럼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3일간 80을 유지하다가 4일째 다시 90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림 7. 상황 3의 저가 투자 심리도를 이용한 함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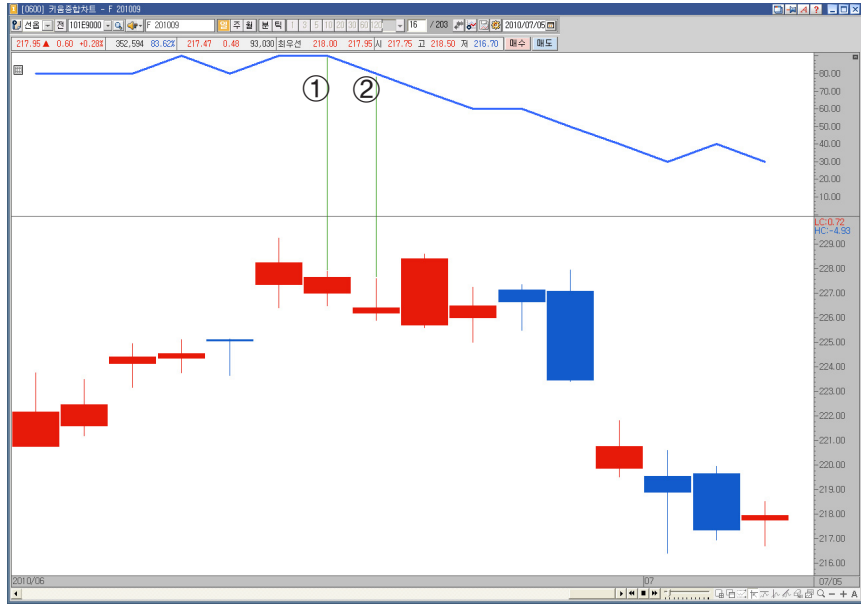
즉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에서 80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매도단가라고

판단했지만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손절의 과정을 거쳐 가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손절의 유형을 학습해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80에서 70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바닥까지 내려간 뒤에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렇게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힘의 원리 때문에 저가가 계속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저가가 붕괴되는 힘에 의해 매도 포지션을 가진 자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힘이 매도단가를 이용하는 자들이 노리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주식 차트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처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가질 지도 모르겠다. 실제 차트는 이런 이론과 다소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주가 및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하다. 물론 단지 저가의 투자 심리도의 변곡으로 인해 매도단가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 하락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매도단가는 단지 진입에 필요한 가격과 그 가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단면을 통해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림 8. 매도단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림 8은 2010년 7월 5일자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 선물 일봉의 화면이다. 그런데 주가를 떠나 위에 있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보면 ①번에서 ②번으로 이동할 때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①번이 매도단가가 되는 봉이다. 그럼 ①번에서 ②번으로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매트릭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저가의 매트릭스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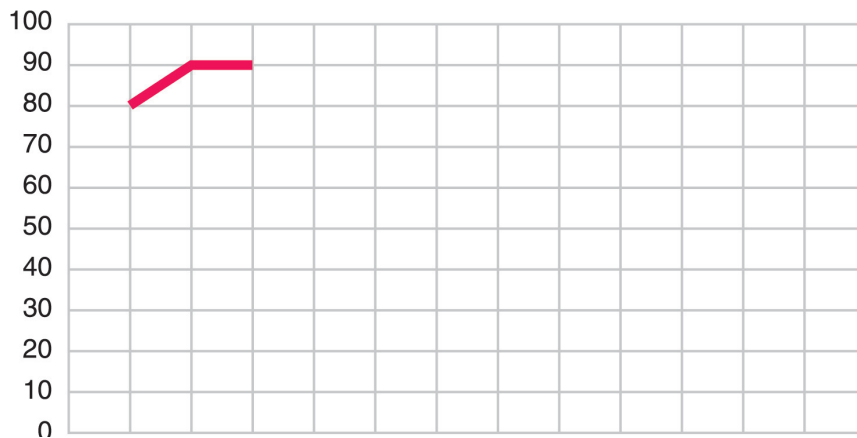
일자	증가배열	시가배열	거래량배열	고가	저가	고가투심	저
2010/06/09	0.00	1.00	1.00	0.00	1.00	60.00	
2010/06/10	1.00	1.00	1.00	1.00	1.00	70.00	
2010/06/11	1.00	1.00	1.00	1.00	1.00	70.00	
2010/06/14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6/15	1.00	1.00	0.00	0.00	1.00	60.00	
2010/06/16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6/17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6/18	1.00	1.00	0.00	1.00	0.00	70.00	
2010/06/21	1.00	1.00	1.00	1.00	1.00	80.00	
2010/06/22	0.00	0.00	0.00	0.00	1.00	70.00	
2010/06/23	0.00	0.00	1.00	0.00	0.00	70.00	
2010/06/24	1.00	0.00	1.00	1.00	0.00	70.00	
2010/06/25	0.00	1.00	1.00	0.00	0.00	60.00	
2010/06/28	1.00	1.00	0.00	1.00	1.00	60.00	
2010/06/29	0.00	0.00	1.00	1.00	0.00	70.00	
2010/06/30	0.00	0.00	0.00	0.00	0.00	60.00	
2010/07/01	0.00	0.00	1.00	0.00	0.00	50.00	

[그림 9. 선물 일봉의 매트릭스 값]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월 23일 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트릭스의 값은 6월 9일자이다. 그런데 6월 9일자로 시작된 저가의 매트릭스 값은 7일 연속 1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배우게 될 매도단가의 유효 기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이미 한 번 무너진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7일 동안은 절대로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매트릭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8을 통해 실제로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편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최초로 상승할 수 있는 날짜는 6월 23일자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는 7월 7일이다. 바로 옵션 만기일 바로 전날이다. 우연치고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 상황 4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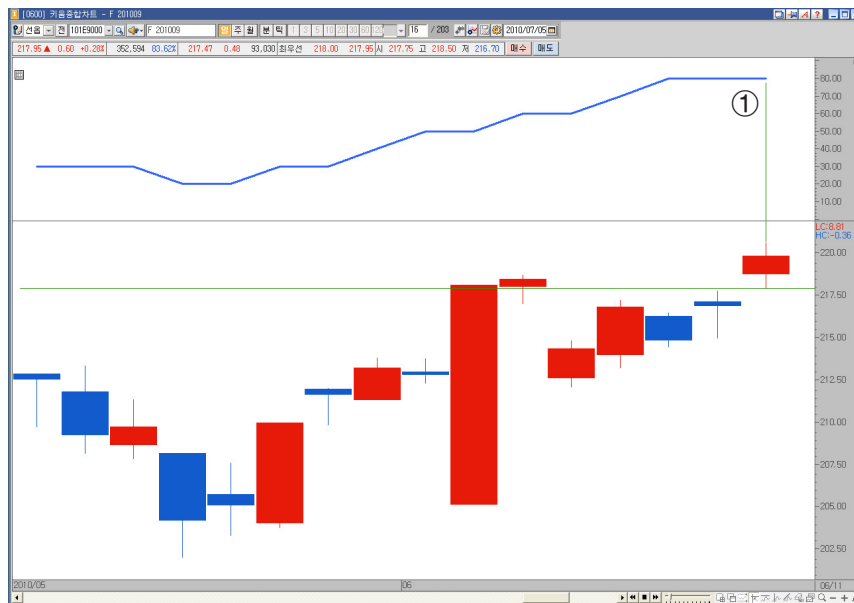
상황 4. 다음 봉의 저가가 현재 봉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을 경우



[그림 10. 상황 4의 저가 투자 심리도]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매트릭스의 구조에 상관없이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가장 오래된 값이 1이므로 1이 빠져나가고 저가가 상승하므로 1이 들어오게 된다. 결국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횡보한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언젠가 하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인 상태에서 9번 연속으로 저가를 높였다면 미리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절대

로 메이저보다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메이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되기도 전에 개인 투자자가 메이저의 방향이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추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아래의 화면을 한번 보자.



[그림 11. 매도단가가 나오지 않은 횡보 상태]

그림 11을 보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도단가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매도단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매도를 단행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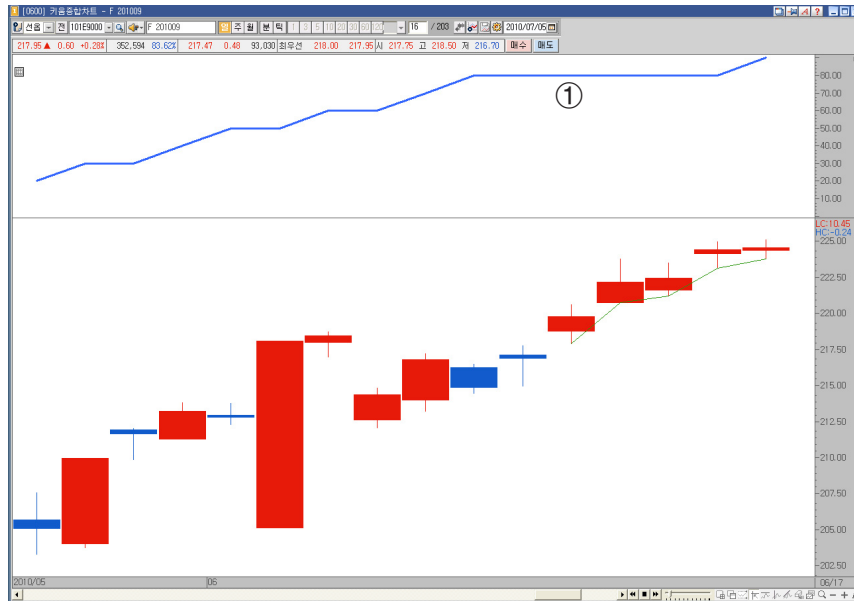
가? 상황 4에 대한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고점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움직일 경우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다. 그럼 2010년 6월 11일 이후에 저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자.

일자	증가배열	시가배열	거래량배열	고가	저가	고가투심	저가
2010/05/27	1.00	0.00	1.00	1.00	1.00	30.00	30.00
2010/05/28	1.00	1.00	0.00	1.00	1.00	30.00	30.00
2010/05/31	1.00	0.00	1.00	1.00	1.00	40.00	40.00
2010/06/01	0.00	1.00	0.00	0.00	1.00	40.00	40.00
2010/06/03	1.00	0.00	1.00	1.00	0.00	50.00	50.00
2010/06/04	1.00	1.00	1.00	1.00	1.00	60.00	60.00
2010/06/07	0.00	0.00	1.00	0.00	0.00	50.00	50.00
2010/06/08	1.00	1.00	1.00	1.00	1.00	60.00	60.00
2010/06/09	0.00	1.00	1.00	0.00	1.00	60.00	60.00
2010/06/10	1.00	1.00	1.00	1.00	1.00	70.00	70.00
2010/06/11	1.00	1.00	1.00	1.00	1.00	70.00	70.00
2010/06/14	1.00	1.00	0.00	1.00	0.00	70.00	70.00
2010/06/15	1.00	1.00	0.00	0.00	1.00	60.00	60.00
2010/06/16	1.00	1.00	0.00	1.00	1.00	70.00	70.00
2010/06/17	1.00	1.00	0.00	1.00	1.00	70.00	70.00
2010/06/18	1.00	1.00	0.00	1.00	0.00	70.00	70.00
2010/06/21	1.00	1.00	1.00	1.00	1.00	80.00	80.00

[그림 12. 선물 일봉의 매트릭스 값]

6월 11일에 영향을 주는 매트릭스 값은 5월 27일자이다. 5월 27일 이후 4일간 저가의 매트릭스는 모두 1이다. 즉 4일 중 하루라도 전일 저가를 붕괴시키는 주가가 나온다면 매도단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매트릭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결과는 어떠했을까? 과연 주가를 움직이는 시장의 주체들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단가를 만들어 냈을까?

아래 그림 13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림 13. 매도단가가 나오지 않은 주가의 모습]

그림 13에서 ①번의 위치는 그림 11에서 마지막 봉의 위치와 일치한다. 그 이후의 저가를 보면 저가는 전봉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메이저가 주가를 하락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메이저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무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메이저보다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도 있

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메이저보다 먼저 포지션을 구축한 대가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파생 시장은 일반 주식 시장과 달라서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보다 앞서 나가는 사고방식은 파생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 3의 경우에 매도단가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매도단가, 손절 기준점, 그리고 손절의 유형을 이용해 거래하면 된다. 반면 상황 4의 경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손절 기준점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과 내리게 하는 힘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하는데 내리게 하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 매도단가라면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 손절 기준점이다. 매도단가에 대응하는 손절 기준점은 고가의 고점이다. 물론 고가의 고점은 고가의 투자 심리도와 그 값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고가의 고점이 생성되고 나면 더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가끔 고가의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으나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고가의 고점이 갱신되면 매도 포지션을

접고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

결국 매도가 최초 시작되는 매도단가부터 매도를 포기해야 하는 손절 기준점까지의 영역이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매도를 시도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 이를 매도 영역[Sell zone]이라고 부른다. 매도는 매도단가라 칭하는 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매도 영역 지점을 선택해서 진입하는 것이다.

매도 포지션의 유효 기간

매도단가가 발생하고 나면 매도단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단가를 사용할 수 있는 봉의 수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매도단가가 성립된 후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매도 포지션의 유효 기간이라 한다. 유효 기간은 매도단가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되며, 차트의 구조에 따라 유효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매도 포지션의 유효 기간은 매트릭스에 의해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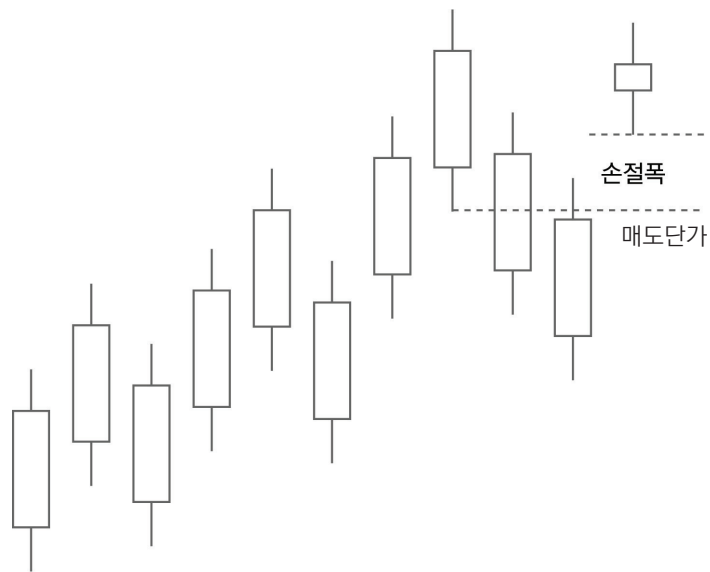
손절의 유형

매도단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와 투자 심리도가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주가는 투자 심리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주가를 투자 심리도에 의해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렇게 주가가 투자 심리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진행 중인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손절을 감행해야 한다.
손절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손절 유형 : 저가를 높인다.

매도단가가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가는 계속 내려가야 한다. 저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포지션의 유효 기간 동안 저가가 계속 매도단가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4. 매도의 손절 유형 1]

그러나 매도 세력에 맞서는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저가는 내려가지 않고 버티게 된다. 물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손절 기준점을 넘지는 않으면서 매도단가보다 높은 저가를 두고 시위를 하게 된다. 이런 봉이 나오게 되면,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힘은 현저하게 약화된다. 아래로 내리려는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적정한 시점에서 포지션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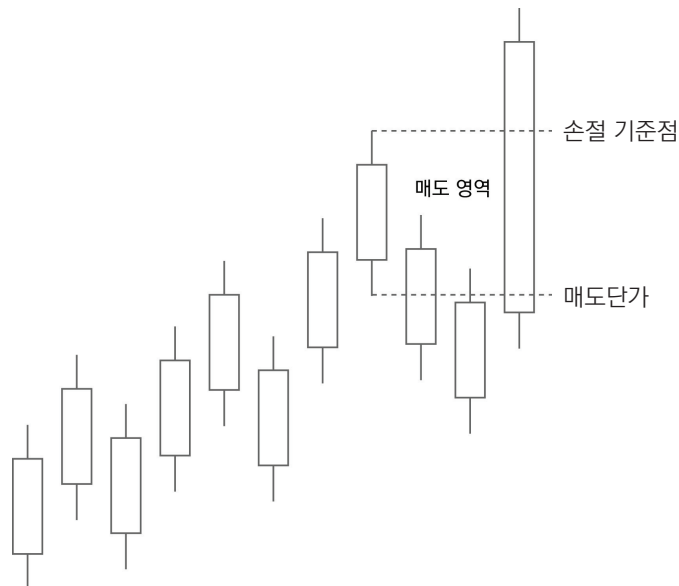
그림 14를 보면 매도가 시작된 매도단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저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매도단가보다 높은 위치에 선 저가가 나오게 되면 손절을 감행한다.

두 번째 손절 유형 : 최고점을 돌파한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점을 돌파해야 한다. 고점이 돌파되지 않는 한 주가의 상승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폭은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강력한 저항의 상징인 최고점은 그 힘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주가가 이런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오를 수 있는 윗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매도 단가에 의해 내려갈 힘을 확보했지만 최고가를 갱신함으로 인해 주가는 오

를 힘도 함께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양방향의 힘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그림 15를 보면, 매도 영역을 벗어나는 주가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적절한 타이밍을 통해 청산하고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



[그림 15. 매도의 손절 유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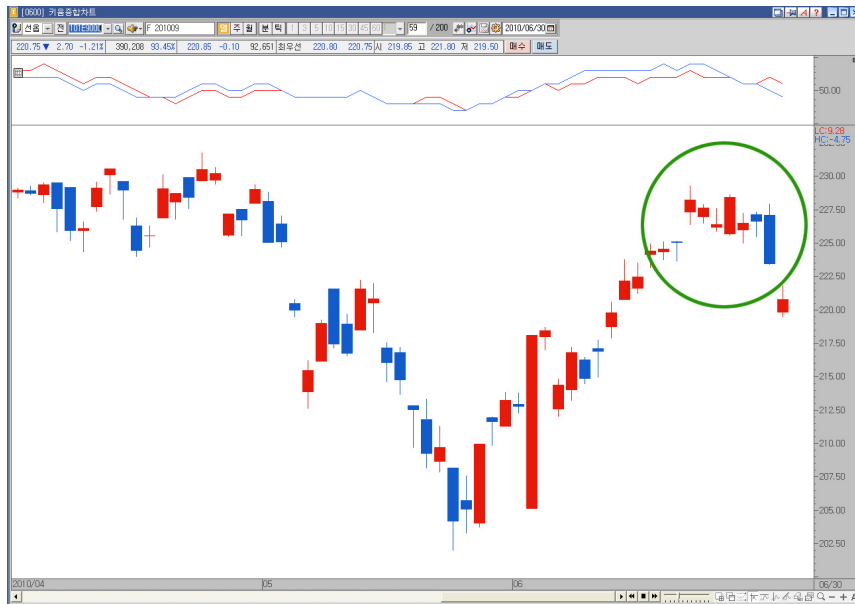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손절 유형 때문에 매도단가를 이용한 매도 전략 또한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해서 매도단가가 발생하게 되면 매도단가가 아닌 매도 영역을 활용해 매도를 시도해야

하며, 항상 손절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매도 가격에서 몇 톱을 벗어나면 손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며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매도단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휩소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물론 휩소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휩소가 발생하는 빈도도 적을 뿐더러 휩소에 의해 손절을 해야 하는 폭도 상대적으로 작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위험은 실제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몫이 된다. 위험의 크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절 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즉 거래 시 이익이 얼마까지 가능하며 손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매도단가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매도단가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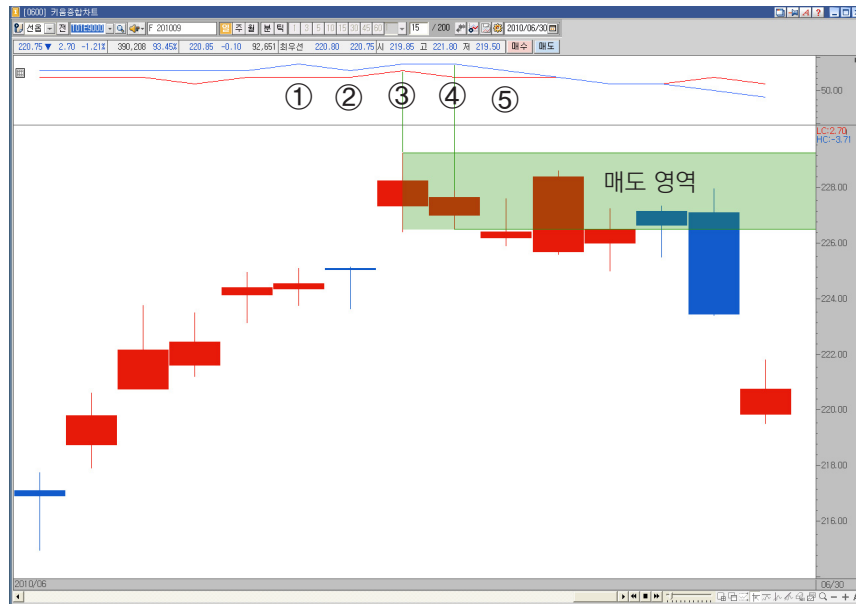


[그림 16. 2010년 6월 29일 선물 일봉]

그림 16은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선물 일봉이다.

녹색 원 안의 봉을 잘 보길 바란다.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가 2010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6월 21일 이후 봉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봉만 보고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봉 차트만을 통해 상황을 읽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 봉 차트를 보고 여러분은 주가 횡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제 6월 21일 이후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자.



[그림 17. 매도단가 규칙 적용 화면]

그림 17에서 6월 21일 이후 봉 차트상의 고가 및 저가의 투자 심리도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청색 실선은 저가의 투자 심리도이고 적색 실선은 고가의 투자 심리도이다. 매도는 청색 실선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는 자리가 기준이 된다. ①번을 보면 ②번에 의해 고점이 생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③번에 의해 고점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번이 고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③번의 주가가 ②번의 저가를 붕괴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메이저는 주가를 내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킴으로써 ①번이 아닌 ③번이 새로운 고점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수조차도 모두 매트릭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고점이 생성되고 ⑤번에 이르러서야 ④번이 고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⑤번 이후 ③번과 같은 휩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③번과 같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번 이후의 청색 실선을 관찰해 보면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도단가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손절 기준점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번 봉 고가가 ②번 봉 고가를 갱신하면서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최고의 높이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④번 봉의 고가가 ③번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못함으로써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꺾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손절 기준점이 나온 것이다. ④번 봉 이후로 229.25를 넘는 주가가 나오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자는 손절을 해야 한다. 그럼 매도 기준가가 얼마인지 살펴보자. 226.50이다. 2010년 6월 23일 이후 226.50을 넘고 229.25를 넘지 않는 주가가 나오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6월 24일 주가는 228.60까지 올랐다. 만약 226.55에 매도했다면 손실만 대략 2포인트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손절 기준점인 229.25를 넘지 않았다. 또한 저가는 226.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절의 규칙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6월 25일 주가는 226.50 아래로 회귀하면서 매도단가가 아래로 내려왔다. 6월 24일 이후 저가만을 살펴보면 226.50보다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26.50 위에서 매도했다

면 언제든 청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절의 신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감행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사람들은 붐을 보고 판단하지만 매도단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 준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느냐 또는 어디까지 내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입한 가격이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보이다.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을 편안하게 관망할 수 있으며 언제든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산 후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되면 손실 상태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주가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보다는 손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제 6월 24일 당시의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자.

일자	증가배열	시가배열	거래량배열	고가	저가	고가투심	저
2010/06/04	1.00	1.00	1.00	1.00	1.00	1.00	60.00
2010/06/07	0.00	0.00	1.00	0.00	0.00	1.00	50.00
2010/06/08	1.00	1.00	1.00	1.00	1.00	1.00	60.00
2010/06/09	0.00	1.00	1.00	0.00	1.00	1.00	60.00
2010/06/10	1.00	1.00	1.00	1.00	1.00	1.00	70.00
2010/06/11	1.00	1.00	1.00	1.00	1.00	1.00	70.00
2010/06/14	1.00	1.00	0.00	1.00	1.00	1.00	70.00
2010/06/15	1.00	1.00	0.00	0.00	0.00	1.00	60.00
2010/06/16	1.00	1.00	0.00	1.00	1.00	1.00	70.00
2010/06/17	1.00	1.00	0.00	1.00	1.00	1.00	70.00
2010/06/18	1.00	1.00	0.00	1.00	0.00	1.00	70.00
2010/06/21	1.00	1.00	1.00	1.00	1.00	1.00	80.00
2010/06/22	0.00	0.00	0.00	0.00	0.00	1.00	70.00
2010/06/23	0.00	0.00	1.00	0.00	0.00	0.00	70.00
2010/06/24	1.00	0.00	1.00	1.00	0.00	0.00	70.00
2010/06/25	0.00	1.00	1.00	0.00	0.00	0.00	60.00
2010/06/28	1.00	1.00	0.00	1.00	1.00	1.00	60.00

[그림 18. 선물 일봉의 매트릭스 값]

그림 18은 선물 일봉의 매트릭스 값을 보여 주고 있다. 6월 7일자의 저가 매트릭스 값은 0이다. 이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일 이후가 되는데, 그 날짜를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6월 21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6월 7일에 6월 21일의 저가가 6월 20일의 저가보다 높게 생성되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 준 것이다. 그리고 6월 8일 이후 저가의 매트릭스에는 0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8일간 저가의 매트릭스는 1만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6월 22일 이후로 전일 저가를 붕괴시키면 7월 5일까지는 매도단가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준 셈이다. 실제로 6월 23일에 6월 22일의 저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는 매도단가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매트릭스에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매트릭스와 실제 주가를 함께 놓고 분

다면 매트릭스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메이저라고 불리는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조정해 가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분봉에서의 매도단가 적용

일봉 이상의 봉에서 매도단가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반면,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파생 투자 영역에서는 하루 사이에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의 휩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손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손절로 인해 안을 수 있는 손실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봉 이상의 봉에서 발생하는 매도단가는 단순히 일봉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 그리고 다우지수의 상황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절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장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학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반면 분봉의 경우에는 일봉처럼 오버나이트를 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매도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꽤나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분봉의 매도단가를 활용하는 이유는 당일 안에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주봉이나 월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다우지수, 상해지수, 니케이지수 등과 같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수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분봉에서 매도단가를 적용하려면, 매도단가가 갖고 있는 특성과 분봉의 성질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한다. 우선 각각의 분봉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자.

봉의 종류	봉의 수	비고
240분봉	2	9시~13시, 13시~종가
180분봉	3	9시~12시, 12시~15시, 15시~종가
120분봉	4	9시~11시, 11시~13시, 13시~15시, 15시~종가
60분봉	7	시간당 1개, 동시호가 1개
30분봉	13	시간당 2개, 동시호가 1개
10분봉	37	시간당 6개, 동시호가 1개
5분봉	73	시간당 12개, 동시호가 1개

위의 표를 통해 각각의 분봉이 하루에 몇 개씩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단가에는 그 시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결정되는데 매도단가의 유효기간은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까지이다. 물론 조건에 의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매도단가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최대 9개까지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생성되는 분봉의 수가 매도단가의 유효 기간과 가까울수록 활용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도단가의 최대 유효 기간 9와 유사한 숫자를 가진 봉은 30분봉(13개)과 60분봉(7개)이다. 만약 10시에 30분봉에서 매도단가가 발생했고, 매도단가의 유효 기간이 6개라면 매도단가의 발생 시점부터 오후1시까지 매도단가의 전략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30분

봉이나 60분봉에서 매도단가가 발생하게 되면 하루 중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당일 거래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분봉과 같이 하루에 37개나 생성되는 경우, 일봉의 힘에 의해 휩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경 10분봉에서 매도단가가 발생했고, 매도단가의 유효 기간이 7개라면 12시 10분까지 매도단가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그 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고작 1시간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시 10분 이후 일봉에서 강하게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경우 남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봉에서 매도단가를 사용할 경우 30분봉 이상의 봉을 사용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봉 이상의 봉은 전 세계 증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갭하락 또는 갭상승으로 인해 전체 추세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60분봉 이하의 분봉에서는 왜곡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번 봉에서 종가가 마무리되면 다음 봉의 시가는 종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로 분봉에서의 매도단가의 활용도는 일봉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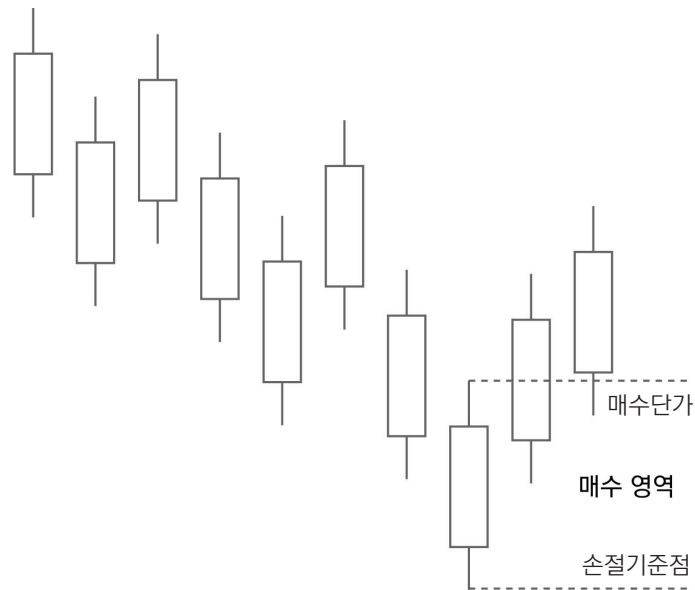
매수단가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 반대로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내리다가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한계치 즉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주가는 더 이상 하방으로 누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더 이상 아래로 누를 수 없는 환경에서 윗 공

간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윗공간이 열리게 되는 지점을 매수단가라고 한다.

실제로 거래에서 매수단가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의미하고,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가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매수단가를 활용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매수단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봉들의 고가가 대부분 매수단가보다 높게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단가 아래에서 매수를 할 경우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다음 봉 또는 그 다음 봉에 의해서 다시 매수단가까지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렇듯 주가가 매수단가로 회귀하려는 힘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것이 매수단가의 활용 목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매수단가 또한 휩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수단가 역시 매도단가와 마찬가지로 활용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매수단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재 봉의 고가가 이전 봉의 고가를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갱신한 고가는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바닥을 벗어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지 현재 고가가 이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투자 심리도상에서 다시는 올 수 없는 값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단가가 성립된다. 그럼 이 매수단가의 기준 가격 아래에서 매수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9. 매수단가의 구조]

매수단가와 투자 심리도의 관계

매도단가와 마찬가지로 매수단가도 투자 심리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매도단가의 경우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 관련이 깊지만 매수단가의 경우에는 고가의 투자 심리도와 관련이 깊다.

그럼 매수단가와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관련을 맺으면서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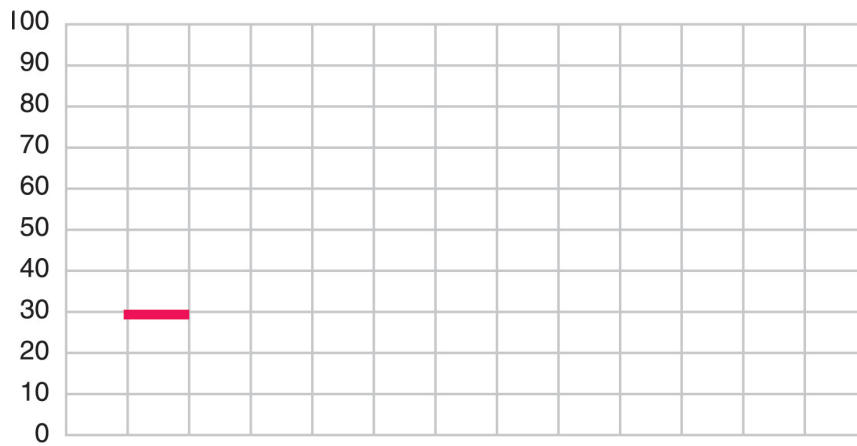
아래는 고가의 매트릭스이다.

고가의 매트릭스

1/1/0/0/0/0/0/0/1

고가의 투자 심리도 30

상황 1.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갱신하는 경우



[그림 20. 상황 1의 고가 투자 심리도]

앞에서 배웠듯이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오래된 값을 우선적으로 매트릭스에서 없애고 새로운 값을 포함시켜 그 값의 변화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여기에서도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갱신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매트릭스에서 가장 오래된 값이 1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조건에 의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값은 1이다. 그런데 1이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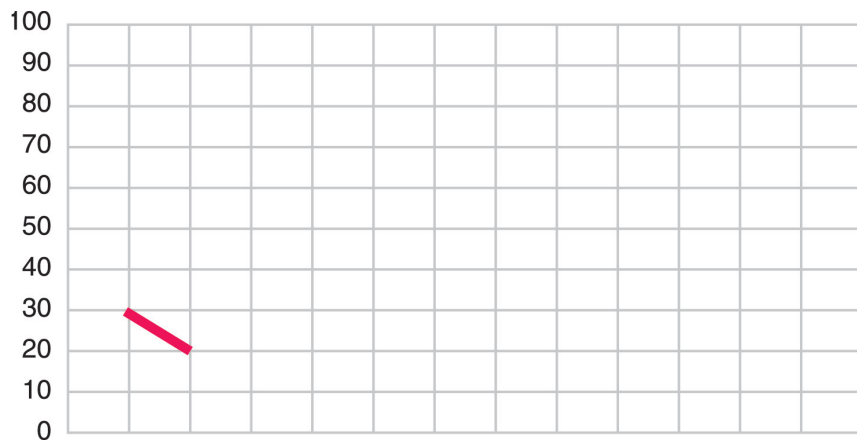
저나가고 1이 들어오게 되므로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게 된다. 또한 고가의 투자 심리도의 값도 30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변화된 매트릭스를 점검해 보자.

고가의 매트릭스

1/0/0/0/0/0/0/0/1/1

고가의 투자 심리도 30

상황 2.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그림 21. 상황 2의 고가 투자 심리도]

위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값은 1이다. 그런데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므로 새로 들어오게 되는 값은 0이 된다. 결국 고가

의 투자 심리도 값은 30에서 20으로 내려가게 된다.
변경된 고가의 투자 심리도를 살펴보자.

고가의 매트릭스

1/0/0/0/0/0/0/1/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상황 1과 상황 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고가의 투자 심리도 값이 전 봉 고가의 갱신 여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체크해 보면 된다. 상황 1의 경우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30이 되고, 상황 2의 경우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20이 된다. 결국 기존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30인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전 봉 고가의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수단가가 나오려면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수단가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매트릭스에서 가장 오래된 값이 1인 경우 매수단가를 만들 수 없다. 또한 상황 2의 경우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2에 대한 내용은 주가의 고점/저점 추적하기를 통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상황 1과 상황 2 중 상황 1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고가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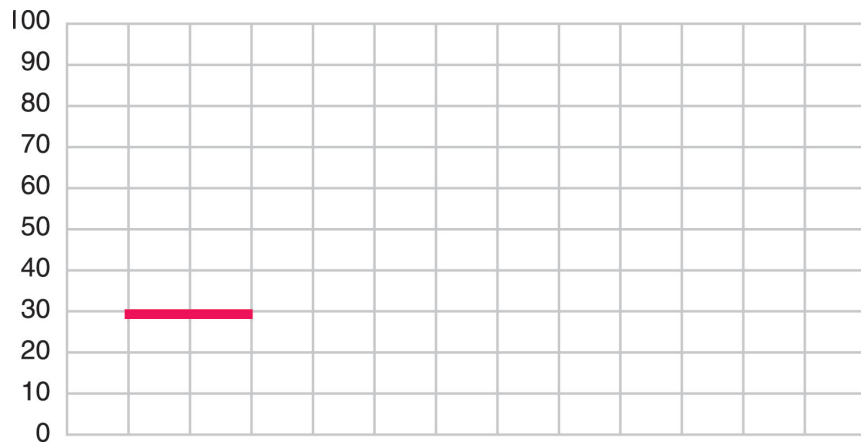
고가의 매트릭스

1/0/0/0/0/0/0/0/1/1

고가의 투자 심리도 30

그럼 이후의 상황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상황 3.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는 경우



[그림 23. 상황 3의 고가 투자 심리도]

가장 오래된 값은 1이다. 그럼 상황 1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고 횡보한다. 변경된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30이다.

고가의 매트릭스

0/0/0/0/0/0/0/1/1/1

고가의 투자 심리도 30

상황 4.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림 24. 상황 4의 고가 투자 심리도]

가장 오래된 매트릭스의 값이 1이므로 1이 빠져나가고 0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30에서 20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제 생성된 고가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다.

고가의 매트릭스

0/0/0/0/0/0/0/1/1/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상황 3과 상황 4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봉 고가의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단가를 생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매수단가의 필수 조건인 고가의 투자 심리도상승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수단가가 나오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단지 그 날짜에 매수단가를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가 매수단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물론 매수단가가 나오는 날과 매수단가가 위치한 날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매수단가가 성립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투자 심리도의 수급론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

이번에는 상황 4의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고가의 매트릭스

0/0/0/0/0/0/0/1/1/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상황 5. 3일간 연속으로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는 봉이 나온다.

고가의 매트릭스에서 가장 오래된 값이 3일 연속 0이다. 따라서 3일 연속 고가를 갱신하는 봉이 나왔다면 3일 연속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림 25. 상황 5의 고가 투자 심리도]

1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0/0/1/1/0/1

고가의 투자 심리도 30

2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0/1/1/0/1/1

고가의 투자 심리도 40

3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1/1/0/1/1/1

고가의 투자 심리도 50

상황 4의 경우, 고가의 투자 심리도 값은 20이었다. 그런데 상황 5의 1일째 날에 이미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상황 5의 1일째 날에 매수단가가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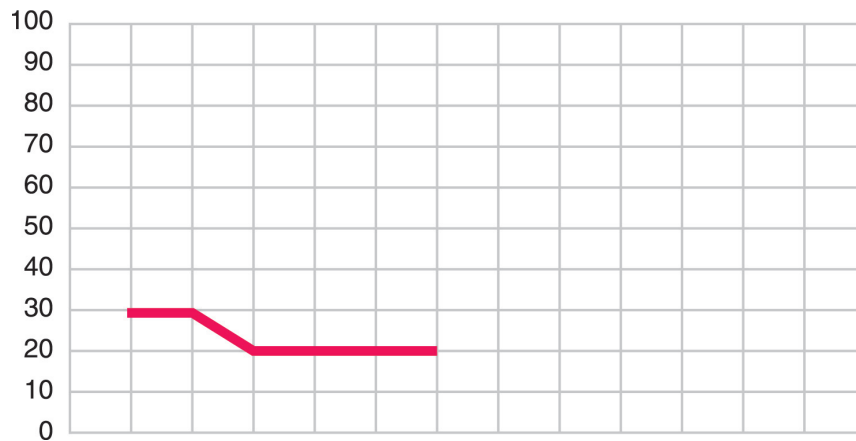
이것을 주가와 함께 연결해 보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6. 상황 5의 고가 투자 심리도와 봉의 관계]

단순히 고가의 갱신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갱신이 투자 심리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황 6은 다른 환경에 있다고 봐야 한다.

상황 6. 3일간 연속으로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봉이 나온다.



[그림 27. 상황 6의 고가 투자 심리도]

상황 6의 경우, 3일 연속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매트릭스의 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못했다.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려면 1이 들어와야 하는데 새로 들어온 값이 모두 0이기 때문이다. 그럼 3일간 고가의 투자 심리도 변화 추이를 직접 살펴보자.

1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0/0/1/1/0/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2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0/1/1/0/0/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3일째 고가의 매트릭스

0/0/0/0/1/1/0/0/0/0

고가의 투자 심리도 20

결국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3일 연속 20에 머무르게 된다. 상황 4의 경우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2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번도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수단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메이저가 매수단가를 내기 좋은 구조에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매수단가를 만들지 않고 하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구분해 내려면 항상 고가의 갱신 여부가 고가의 투자 심리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이 매수단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단가가 나와 있다면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절 기준점

매도단가와 마찬가지로 매수단가에도 손절 기준점이 존재한다. 매도단가에서는 고가의 고점이 손절의 기준이 되었듯이 매수단가에서는 저가의 저점이 손절의 기준이 된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위로 가는 힘도 필요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도 필요하다. 따라서 위로 가는 힘이 강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지지하는 힘이 약화되면 반등 후에 폭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저가의 저점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손절 기준점'으로 정의한다.

손절 기준점으로 인해 주가는 손절 기준점에서 매수단가까지 매수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매수 영역[Buy zone]'이라고 부른다.

매수 포지션의 유효 기간

매수단가가 성립되면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매수단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매수단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을 '매수 포지션의 유효 기간'이라고 부른다. 물론 매수 포지션의 유효 기간은 매트릭스에 의해 결정된다.

손절의 유형

매수단가가 나왔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주가는 위가 아닌 아래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것은 매수단가의 기준이 봉이 아닌 투자 심리도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투자 심리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투자 심리도로는 감지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매수단가를 이용한 투자 방법은 전적으로 주가가

투자 심리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두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투자 심리도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기본적인 투자 방법에 위배되므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포지션을 청산하는 지점이 수익 상태가 아니라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절이 된다. 매수단가에서도 손절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손절 유형 : 고가를 낮추다.



[그림 28. 매수단가의 손절 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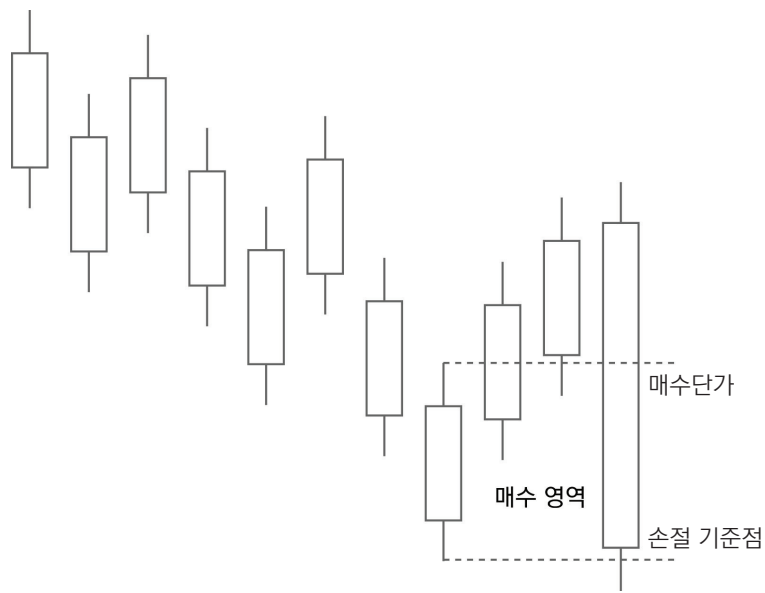
매수단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위로 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세력이 잠복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부담을 겪게 된다. 주가를 폭락시키지는 않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세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포기하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고가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고가의 투자 심리도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 고가는 매수의 기준이 되는 고가보다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 시점에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앞으로 손실이 날 것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림 28에서 매수의 기준이 되는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나온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한 후에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손절 유형 : 최저가를 붕괴시키다.

매수단가가 나온 상태에서는 주가가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야 정상이다. 이것은 단지 투자 심리도에서만 아니라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단가가 나온 상태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지지하는 힘도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올라가려는 힘은 강화되는 반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약화되면 강한 매도 세력이 나타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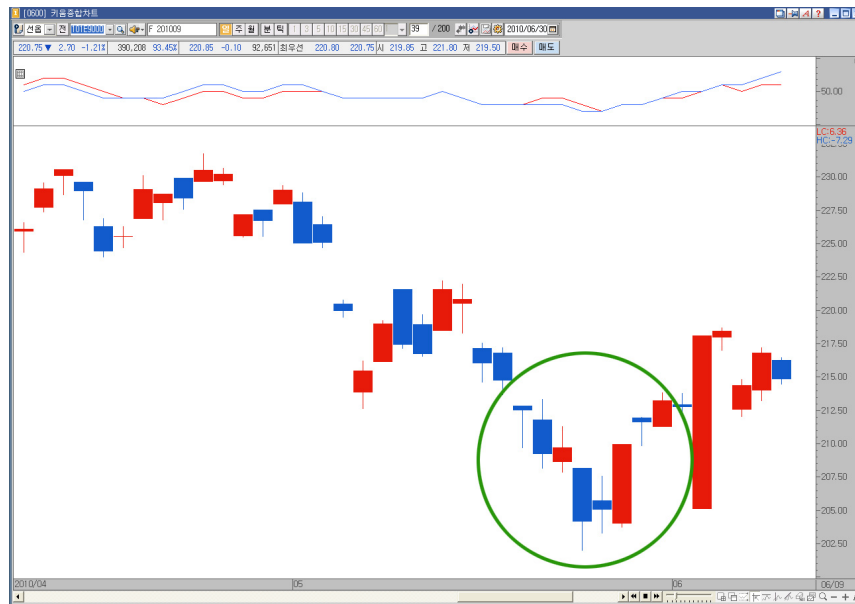
힘이 크게 위축된다. 그리고 그렇게 위축된 상태는 최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현실화된다. 이렇게 위축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손절 기준점이 되는 최저점의 붕괴이다. 최저점이 붕괴되면 손절을 해야 한다.



[그림 29. 매수단가의 손절 유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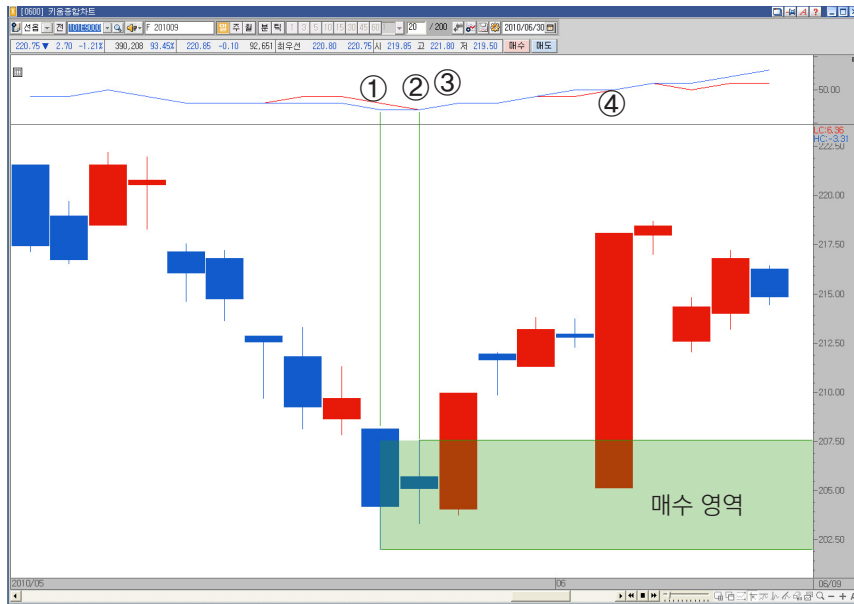
물론 주가가 반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뿐이고, 투자자가 진입한 가격이 오고 안 오고는 투자자의 능력이 아닌 메이저의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매수 포지션을 감행했던 투자자의 판단은 오판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 과감하게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

이제 매수단가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그림 30. 2010년 6월 9일 선물 일봉]

그림 30에서 2010년 5월 26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주가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상승했을까? 일반적인 봉 차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매수단가를 적용해 분석해 보자.



[그림 31. 매수단가 규칙 적용 화면]

2010년 5월 25일 202.00을 찍고 주가가 반등했다. 그러나 5월 25일 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아직 매수단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26일도 고가가 전일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여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리고 5월 27일 전일 고가를 갱신함으로써 드디어 고가의 투자 심리도에 매수단가가 나왔다. 결국 매수단가는 ②번 봉의 고가를 ③번 봉이 갱신함으로써 발생했다. 또한 저가의 투자 심리도도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①번과 ②번 중 하나가 바닥이 되어야 한다. 주가로 보면 202.00이 바닥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제 202.00 밑으로 내려가거나, 207.55보다 낮은 고가가 나오면 손절

을 해야 한다. 이 둘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손절 없이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 고가의 투자 심리도에 의해 만들어진 매수 영역에서는 주가가 회귀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 그런데 다우지수의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해 6월 3일 ④번의 시가가 매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때 저가가 202.00을 붕괴시켰다면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저가가 202.00을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매수단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자	증가배율	시가배율	거래량배율	고가	저가	고가투심	저가
2010/05/03	0.00	1.00	1.00	0.00	0.00	50.00	
2010/05/04	1.00	0.00	1.00	0.00	0.00	50.00	
2010/05/06	0.00	0.00	0.00	0.00	0.00	40.00	
2010/05/07	0.00	0.00	1.00	0.00	0.00	40.00	
2010/05/10	1.00	1.00	0.00	1.00	1.00	40.00	
2010/05/11	0.00	1.00	0.00	1.00	1.00	40.00	
2010/05/12	0.00	0.00	1.00	0.00	0.00	40.00	
2010/05/13	1.00	0.00	1.00	1.00	1.00	50.00	
2010/05/14	0.00	1.00	1.00	0.00	0.00	40.00	
2010/05/17	0.00	0.00	1.00	0.00	0.00	30.00	
2010/05/18	0.00	0.00	0.00	0.00	0.00	30.00	
2010/05/19	0.00	0.00	1.00	0.00	0.00	30.00	
2010/05/20	0.00	0.00	0.00	1.00	0.00	40.00	
2010/05/24	1.00	0.00	1.00	0.00	0.00	40.00	
2010/05/25	0.00	0.00	1.00	0.00	0.00	30.00	
2010/05/26	1.00	0.00	0.00	0.00	1.00	20.00	
2010/05/27	1.00	0.00	1.00	1.00	1.00	30.00	

[그림 32. 매트릭스 화면]

그럼 이와 관련된 매트릭스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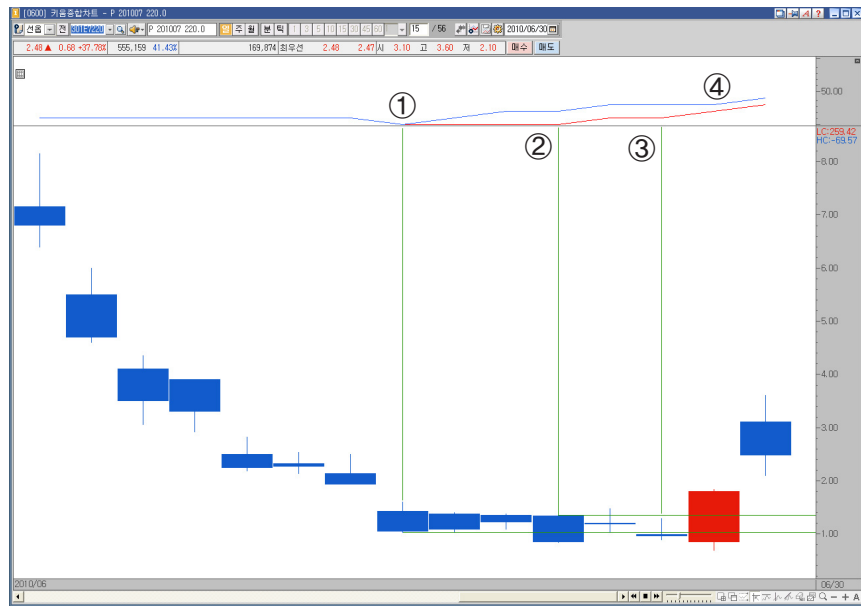
그림 32를 보면, 5월 27일 이후에 영향을 주는 매트릭스는 5월 13일부터이

다. 그러나 5월 13일의 매트릭스 값만 1이고 그 이후의 매트릭스 값은 짧게는 4일 길게는 8일 동안 0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1의 영향을 받을 때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꺾이지 않는다면 투자 심리도가 약 8일 연속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런 힘으로 인해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매수단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가는 매우 복잡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힘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 중에 하나가 매수단가일뿐이다. 따라서 매수단가를 활용하는 게 언제나 맞다라는 전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매수단가가 나온 이후의 주가는 상당히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매수 영역에서는 매수는 못할 지언정 적어도 매도를 해서 안 되겠다.

매수를 하려면 적어도 매도단가보다 한 톱이라도 낮아야 하고 매도를 하려면 매수단가보다 한 톱이라도 높아야 한다. 그것이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매수단가와 매도단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떻게 투자 심리도에 의해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매수단가와 매도단가를 보다 정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매수단가, 매도단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향후에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매매 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검증을 해 가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제 매수단가와 매도단가가 어떤 경우에 손절 처리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3. 풋 220 2010년 7월물_6월 30일자]

그림 33은 2010년 7월물 옵션 풋 220의 일봉 차트이다. 청색 실선과 적색 실선을 살펴보면 ①번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매수단가가 없다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①번을 지나면서 바닥이 확인되었다. 이제 ①번이 바닥이므로 손절 기준점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수단가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②번 봉을 지난 후에야 매수단가가 나왔다. 그런데 매수단가가 나온 시점에서 손절 기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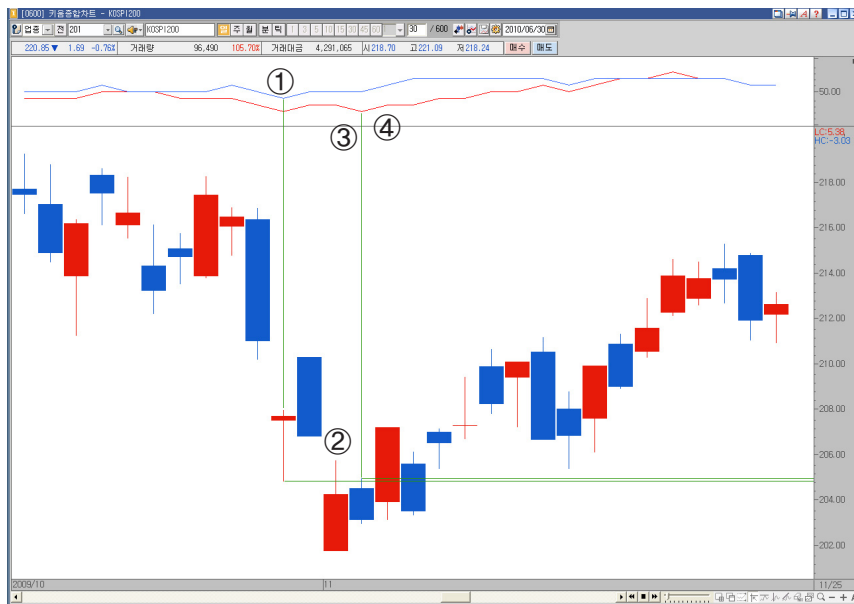
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다. 손절이 된 다음에 매수단가가 나온 모양새이다. 이런 경우 손절 기준점이 없다고 봐야 한다. 풋 220의 매수단가는 1.35이다. 즉 풋 220의 주가가 1.35 아래이면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6월 28일의 고가를 보면 1.28이다. 즉 매수단가보다 낮은 고가가 나온 것이다. 이런 경우 손절을 해야 한다. 6월 29의 풋 220의 종가는 1.80이다. 그런데 왜 6월 28일날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그 다음 날 저가에 있다. 종가를 보면 1.80이지만 저가를 보면 0.69이다. 6월 28일의 종가가 0.96이었던 것을 반영해도 0.3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로 30% 손실이 발생한다면 과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차라리 1.35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2대나 1.1대에서 정리했다면 거의 반값 수준으로 다시 풋 220을 잡을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결국 풋 220을 살 기회는 6월 29일에 왔다. 기회는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④번 봉에서 풋 220을 0.9대 아래에서 매수했다고 해도 100%의 수익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잡는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손절을 단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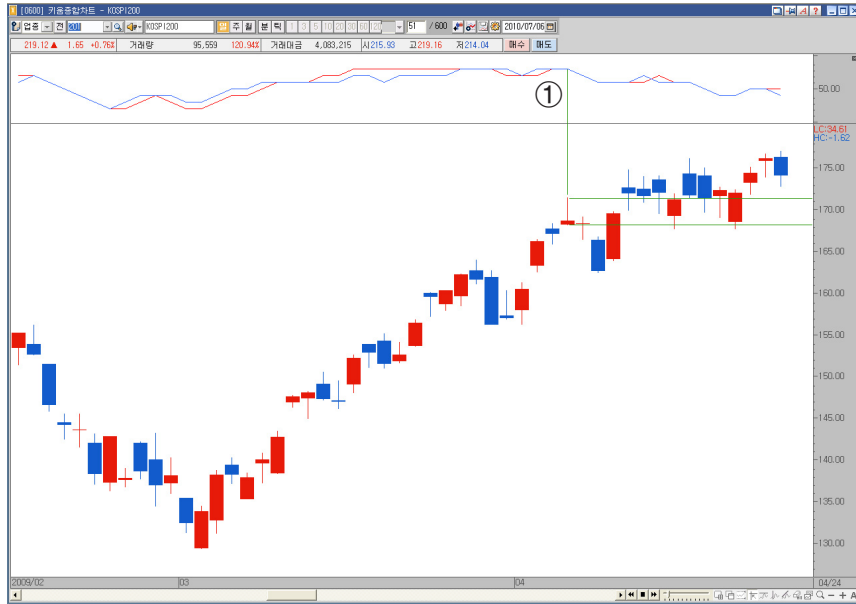
2009년 10월 코스피 200지수를 한번 살펴보자.

①번 봉을 통해 저가의 바닥이 온 것을 볼 수 있다. ①번 봉 이후의 청색 실선 그래프를 보면, 그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①번 봉이 저가의 바닥이어야 한다. 그런데 ②번 봉에서 ①번 봉의 저가를 붕괴시켜 버렸다. 이제 ②번 봉에서 손절을 감행해야 한

다. 물론 ②번 봉의 시가에서 청산을 했다면 바닥에서 손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손절 기준점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손절을 했다면 그리 나쁜 손절은 아니었을 것이다. ②번 봉에서 손절을 한 후에 ③번 봉을 지나 ④번 봉에 이르면서 매수단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④번 봉을 지나서 재매수 기회가 왔다. 화면을 보면 매수단가와 ①번 봉의 바닥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의 격차가 클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②번 봉에서 손절을 해야 하고, ④번 봉 이후부터 재매수를 해야 한다. 그 이후 주가는 적색 실선의 상승과 함께 가파른 상승의 길을 가고 있다. 손절은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림 34. 2009년 10월 29일자 코스피 200 일봉]



[그림 35. 2009년 4월 6일자 코스피 200 일봉]

그림 35는 2009년 4월 6일자의 코스피 200지수 일봉의 차트이다. ①번 봉의 저가의 투자 심리도와 고가의 투자 심리도를 함께 보자. ①번 봉을 지나고 나서 ①번의 고가 및 저가가 매도단가와 손절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①번 봉 이후를 보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때는 일봉을 기준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참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단가와 손절 기준점이 나온 것이다. 손절 기준점을 넘는 순간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면 어땠을까?

더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으며, 매도단가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포지션을 갖추지 못한 채 손절을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주가 움직임에 대해 놀라게 되고 심리적 동요로 인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는 매도단가 위에서 매도를 시도하면 손실 없이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다. 단지 선물 매도의 익절을 위해 아무런 거래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손절이란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단지 손실로써 투자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손절의 기준을 일정 수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손절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것이다. 0.3포인트가 손절 기준이라고 해도 한 번 거래에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15만원이나 된다. 0.3이라는 수치를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되도록이면 손절이 필요없는 구간을 이용하거나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이유 있는 손절을 통해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가 고점/저점에 대한 논리적 분석

주기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특별하게 익혀야 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주가의 고점/저점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주기론에서는 단지 매수단가나 매도

단가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도에 의해 주가가 어떤 분기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찾아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주가가 전 봉의 저가를 붕괴시키거나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일반 봉 차트로 보면 이런 이유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를 보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투자 심리도의 위치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도의 위치에 따라 주가의 위치도 정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자 심리도 중 가장 높은 투자 심리도가 현재라면 주가 역시 현재가 가장 높은 시점이어야 정상이다. 특히 주기를 이루고 있는 고가와 저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변곡점이다. 즉 매수단가와 매도단가가 나온 상태에서야 주가 고점과 주가 저점을 추적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점이 나와야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좋고 저점이 나와야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좋다. 그런데 고점 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점 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움직인다는 것이 때론 아주 힘든 일이다. 고점이 나와야만 오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 결정되는 것이고, 저점이 나와야만 내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부재한다는 것은 그 힘을 측정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점과 고점의 기

준은 무엇이 되는가? 바로 투자 심리도의 위치이다. 보통 변곡이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 심리도상의 저점이거나 또는 투자 심리도상의 고점에 해당한다. 즉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90이 최고 값이고 이후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향하고 있다면 투자 심리도상에서의 고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주가는 변곡을 지났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투자 심리도상 90이었을 때의 고가보다 투자 심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고가가 더 오르고 있다면 주가와 투자 심리도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바로 변곡의 기준이 되었던 지점의 고가의 값이다. 시간에 따라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고가의 투자 심리도의 힘에 의해 변곡이 되었던 고가의 값보다 낮은 고가의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힘을 이용해 얼마의 주가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리까지 주가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0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가의 투자 심리도로 인해 저가의 변곡점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때 실제 주가에서 저가의 위치를 확인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저가는 위로 치솟아 오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 방법이 늘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의 힘을 분석하는 데 투자 심리도의 저점과 고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주가의 위치를 명확한 값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가의 투자 심리도 값은 가장 높은 상태인데 주가의 고가가 가장 높

은 상태가 아니라면 투자 심리도가 주가에 선행하게 되고, 주가는 신고가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가가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투자 심리도에 나타난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우선 고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반대 세력이 자신들의 매도 물량을 철회한다면 주가는 투자 심리도상의 고점과 일치하는 주가의 고점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물론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면 손절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저점인데 반해 주가의 저점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 떨어져 최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면 과연 매수를 감행해야 할까? 물론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저점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흐름은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강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수자는 주가가 최저점을 갱신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중간에 주가가 그냥 반등하더라도 그것은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아니라 시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인 것이다. 주가는 결과론적인 입장이 아닌 과정론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즉 결론만 보고 이렇게 되었으니 주가의 결론에 따라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가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 중인 주가를 보고 있다면 앞으로도 이전의 주가 결과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

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봉 차트의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주가를 결과론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확률에 근거한 방법을 취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 몇 개이고, 저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 몇 개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저런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단지 변수에 반응하는 함수로 본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함수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변수가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변수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하지만 변수를 알면 결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잠시 승률 80%의 함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를 하면 4번은 꼭 이기고 1번은 꼭 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가 한 번의 투자로 얻는 수익은 50%이다. 이와 똑같이 손해를 볼 때에도 50%를 본다. 과연 이 사람이 5회 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 될까?

초기 자금을 1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용해 보자.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승리했다면 그의 자금은 100만원에서 5,062,500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차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의 50%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250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2.5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1차부터 2차까지 성공했을 경우 투자자의 자금은 225만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3번 투자에 2번이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자금은 25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만약 승률을 80%에서 66%로 낮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0만원에서 다시 반토막이 나는 것이므로 125만원 된다. 최초 원금이 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승률 66%의 결과는 1회 승리한 결과보다도 초라하다.

이것이 승률이 가져다주는 함정이다. 그러나 확률 구조상 66%의 확률을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승률에 의해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복리 방식이 아닌 단리 방식의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매번 투자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럼 승리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패배에 의해 잃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같게 된다. 단리 방식을 다시 적용해 보자. 4번을 승리하면 200만원을 번다. 그리고 1번을 패배하면 50만원을 잃는다. 결국 15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고 최종 자금의 규모는 250만원이 된다. 결과를 잘 보길 바란다. 복리로 투자했을 경우의 결과와 단리로 투자했을 경우의 결과는 똑같다. 그러나 투자금의 규모를 보면 복리에서는 500만원까지 투자를 했지만 단리에서는 늘 100만원만을 투자했을 뿐이다. 어느 쪽이 리스크가 적겠는가? 투자의 확률이 80%에 66%로 감소하더라도 단리로 투자하는 경우 50만원의 손실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의 수익은 100만원이다. 그리고 최종 자금은 200만원이다. 복리로 투자하는 경우 25만원에 그쳤던 수익이 단리를 적용하니 1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려 4배의 차이이다.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복리는 은행 이자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투자의 세상에서 복리란 위험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복리는 말 그대로 몰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필 그때 초대형 사건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대응조차 못

하고 가지고 있던 원금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확률론적 사고 방식에 입각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저점과 고점의 신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확률에 근거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수에 대응해서 주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간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람들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어디로 갈 것 같다는 환상을 갖고 무모하게 투자를 감행한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익을 거두게 되면 자신의 감각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감각을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한다. 이것이 패턴에 의한 투자이다. 결국 한 번의 휩소로 그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고 실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자신을 속였다고 분개한다. 시장은 언제나 시장의 흐름을 지켜 왔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일뿐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투자자가 이전 시장에서는 흐름을 잘 탔던 반면 이번 시장에서는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시장이 예전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손실을 준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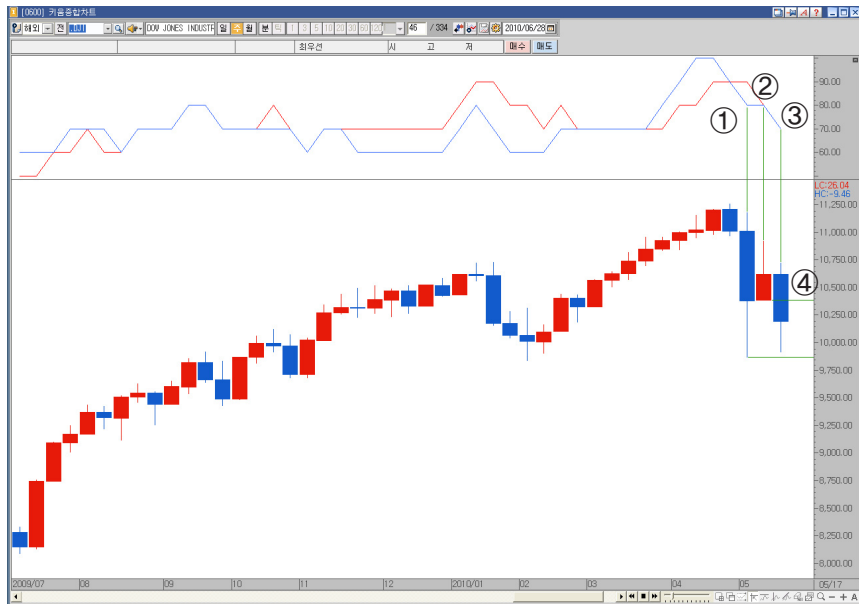
확률론적 사고방식에 의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해 늘 암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수를 이해하는 함수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일정한 규칙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변수에 반응하는 함수론적 사

고방식을 갖길 바란다. 함수론적 사고방식에서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에 나오는 화면은 저점이 갱신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두 개는 다우지수의 주봉이고 하나는 선물지수의 일봉이다. 이것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따라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가에는 시간의 개념과 가격의 개념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그 자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들어가면 해당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는 거래를 중지하거나 조건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만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려면 주가는 조건에 만족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건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성은 높아지고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언제나 휩소는 발생한다. 그것은 메이저의 자금력이 차트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 36. 2010년 5월 3일자 다우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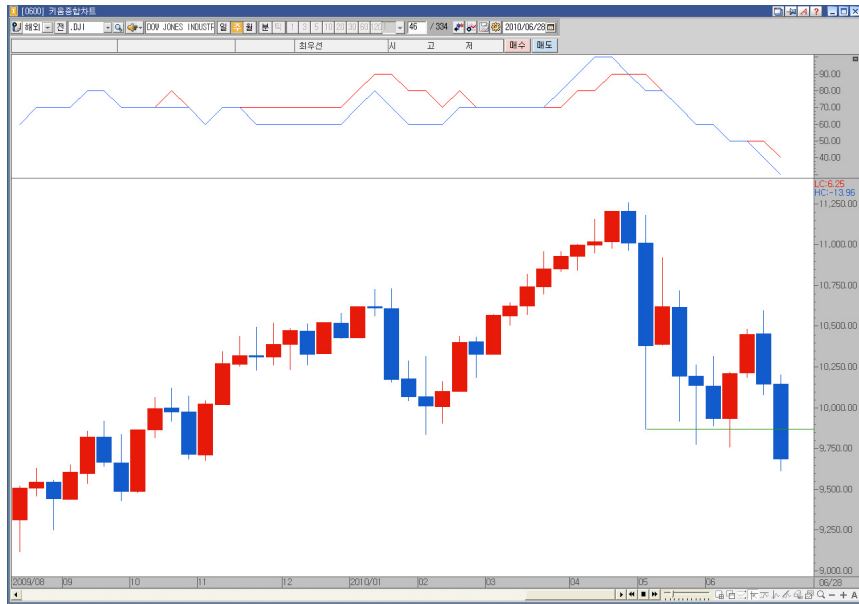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1천 포인트나 넘게 하락한 적이 있었다. 2010년 5월 6일의 일이다. 그리고 주가가 위로 다시 강하게 감아 올라갔다. 뉴스에서는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자의 시각으로 본 해프닝에 불과하다. 주가에는 늘 조작이 있고, 주가 자체가 조작의 산물인데 그것을 조사한다고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폭락이 닥친 날은 주가가 고점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점이 나오려면 한참을 더 내려가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두 가지 딜레마가 존재했는데,

아직 수급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한 가지 내용만 다루기로 하겠다. 다우지수의 상황을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갱신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매트릭스를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일엔 무려 1천 포인트 가깝게 떨어졌던 저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되게 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저점이 갱신되었는지 그리고 저점을 갱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자.

저가의 투자 심리도의 추이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 계속 아래로 가고 있다. 저가의 투자 심리도인 청색 실선을 보면 폭락이 왔던 2010년 5월 6일의 주봉 상황은 고점에서 이제 막 내려가는 중이었다.

①번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80이다. 100에서 두 번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100이라는 수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숫자가 100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전체가 1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①번은 앞으로 8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②번에서 주가는 반등을 했다. ①번에서 주가가 상승해야 했는데 주가가 조작되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신호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징후를 보이게 되었다. ③번 봉의 주가가 ②번 봉의 저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③번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70으로 내려왔다. 여기에서 수치를 주목해야 한다. ①번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80이었다. 따라서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③번이 최저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저점 로직에 의해 주가가 최저치로 내려가야 한다. 저가를 붕괴시킬 당시의 저가는 10,386.03이었다. 그리고 ①번의 저가는 9,869.62이

다. 50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을까?



[그림 37. 2010년 5월 17일자 다우주봉]

그림 37을 보면, 그림 36에서 발생한 주가 저점 갱신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9,869.62라는 주가가 과연 갱신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런데 그냥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다. 다우 주봉이 갖고 있는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우 지수가 1천 포인트 넘게 하락을 시도했던 주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80인 상태였고, 이후 저가의 매트릭스는 모두 1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려 8

개가 1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8주 연속 저가가 갱신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일자	증가배율	시가배율	거래량배율	고가	저가	고가투심	저
2010/02/01	0.00	0.00	0.00	1.00	0.00	80.00	
2010/02/08	1.00	0.00	0.00	0.00	1.00	70.00	
2010/02/16	1.00	1.00	0.00	1.00	1.00	80.00	
2010/02/22	0.00	1.00	1.00	0.00	1.00	70.00	
2010/03/01	1.00	0.00	0.00	1.00	1.00	70.00	
2010/03/08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3/15	1.00	1.00	1.00	1.00	1.00	70.00	
2010/03/22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3/29	1.00	1.00	0.00	1.00	1.00	70.00	
2010/04/05	1.00	1.00	1.00	1.00	1.00	80.00	
2010/04/12	1.00	1.00	1.00	1.00	1.00	80.00	
2010/04/19	1.00	1.00	0.00	1.00	1.00	90.00	
2010/04/26	0.00	1.00	1.00	1.00	0.00	90.00	
2010/05/03	0.00	0.00	1.00	0.00	0.00	90.00	
2010/05/10	1.00	0.00	0.00	0.00	1.00	80.00	
2010/05/17	0.00	1.00	1.00	0.00	0.00	70.00	
2010/05/24	0.00	0.00	0.00	0.00	0.00	60.00	

[그림 38. 매트릭스 화면]

그림 38은 다우지수가 폭락을 시도했던 5월 6일이 포함된 주봉의 매트릭스를 보여 주고 있다. 5월 6일 폭락에 관여했던 매트릭스 값은 2010년 2월 22일자 주봉이다. 저가의 매트릭스만을 보면 이후 8주 동안 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8주가 지나 7월 6일이 되었다. 현재의 저가는 최저치이다. 이것이 단지 개인의 상상력에 기인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지난 8주 동안 전주의 저가를 갱신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최저치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월봉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한몫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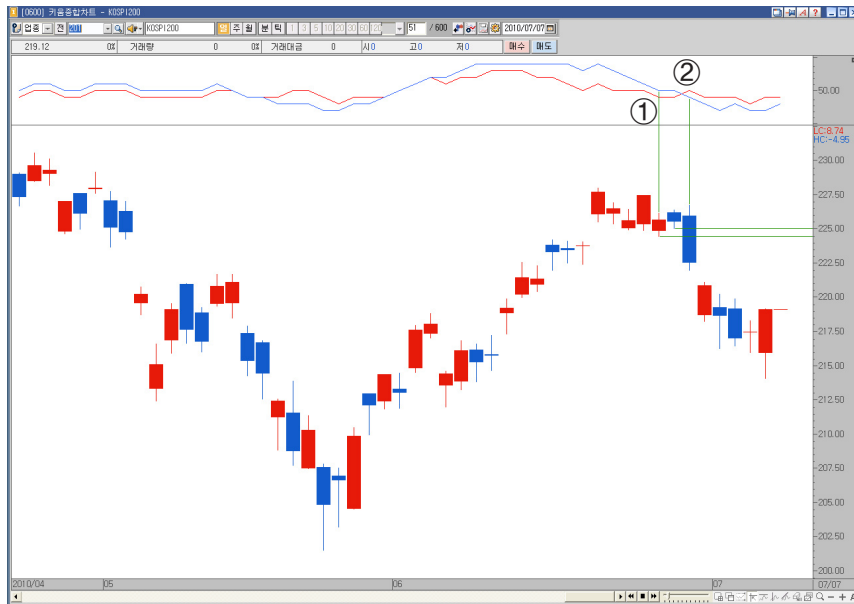
그러나 분석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우지수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일반 투자자들은 개사기장이라며 시장에 대해 욕설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지수는 과연 어떤 환경 속에 있었길래 다우지수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각국의 지수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이 세계 시장을 조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각국의 지수는 그 나라의 상황에 의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물론 다우지수가 몸통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몸통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다우지수가 아닌 코스피지수를 살펴보자.

그림 39는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①번은 ②번의 기준에서 볼 때 지난주의 저가가 된다. 그런데 ②번 봉이 전 저가를 붕괴시키는 것이 어떻게 ①번봉의 저가를 깨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림 39. 2010년 6월 29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2010년 6월 29일 주가가 전 주의 저가를 붕괴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기에도 다우지수와 동일한 내용이 숨어 있다.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의 주봉처럼 청색 실선이 ②번 지점에 도달했을 때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②번이 지금까지의 저가 중 최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최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단가가 발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나온 저가 중 가장 낮은 저가를 만들어야 한다. 매도단가가 나온 이후 만들어진 저가 중 가장 낮은 저가는 ①번이다. 따라서 최저가를 만들려면 ①번 봉의 저가를 갱신해야 한다. 이처럼 주가가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최저치의 주가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신저점 모드’라고 한다. 이 경우의 주봉을 분석해 보면, 주봉이 굳이 전 봉의 저가를 갱신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즉 일봉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주봉과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봉에 의해 주봉의 저가가 붕괴됨으로 인해 주봉의 전략 또한 일봉과의 관계에 의해 변해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봉들은 상호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차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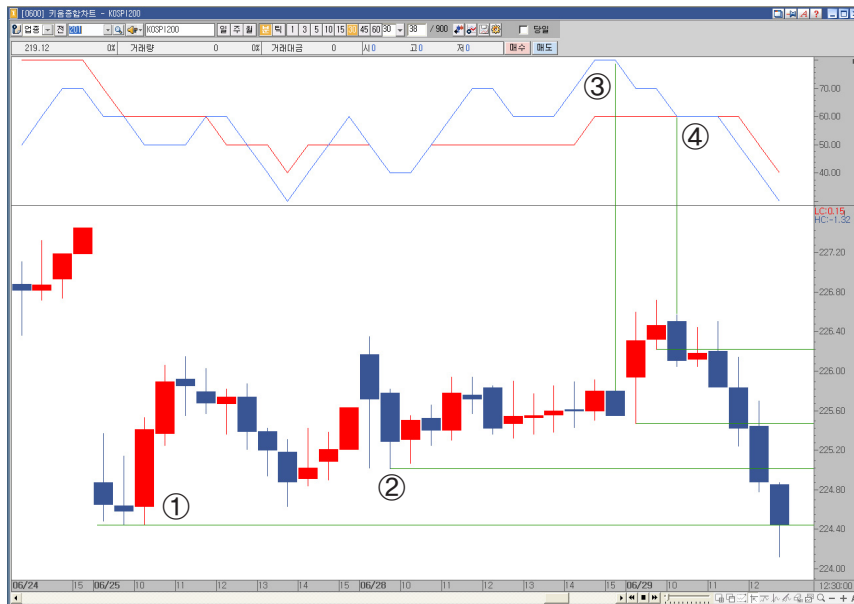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일봉 차트를 꺼내 놓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석을 마무리한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일봉만을 분석하는 사람은 초절정 고수이거나 주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다. 주가가 단지 일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일까? 주봉에도 차트가 있고, 월봉에도 차트가 있다. 심지어 분기봉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월봉에 의해 일봉이 움직일 수도 있고, 주봉에 의해 일봉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봉 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일봉 20개는 월봉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주봉 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일봉 5개는 주봉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월봉이나 주봉의 분석 없이 일봉 차트만으로 어떻게 주가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이 월봉 시작 첫날이라고 하자. 그럼 월봉 하나를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월봉은 이미 생성되었으므로 봉의 상황을 분석하면 봉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대략적인 것들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봉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일봉은 고작 봉 하나가 만들어진 상황에 불과하다. 앞으로 19개에서 21개 정도의 봉이 더 생성되어야 하는데 그 봉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봉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봉을

마치 그려진 것처럼 분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려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추측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차피 차트는 메이저라 불리는 세력들이 그려 간다. 봉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려 가고 싶은 방향으로 주가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봉이 아닌 5분봉이나 3분봉으로 주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불쌍할 따름이다.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봉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5분봉은 5분에 한 개씩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봉은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진다. 30분봉은 동시호가까지 포함해 하루에 13개가, 60분봉은 하루에 7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5분봉은 하루에 몇개나 생성될까? 30분에 6개이므로 하루에는 $6 \times 12 + 1$ 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5분봉은 하루에 73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만약 30분봉 하나의 움직임에 이해하고 있다면 5분봉의 6개 정도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런데 5분봉을 볼 필요가 있는가? 그냥 30분봉 한 개를 확인하면 된다. 그럼 5분봉의 6개와 맞먹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봉인 것이다. 이것이 봉 차트에서 미래를 보는 핵심 키워드이다. 상위 봉을 보면 하위 봉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래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신저점을 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본 화면이다. 중요한 것은 신호와 결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림 40. 2010년 6월 29일자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그리고 그 시차에는 투자 심리도의 값이 주가의 값에 선행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①번은 2010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주 저가의 위치이다. ②번은 6월 28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의 저가이다. 6월 29일 오전 장은 상승이었다. 주가는 10시까지 치솟아 올랐으며 하락한다는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의 30분봉의 전 저가를 붕괴시켰다. ③번의 저가가 매도단가라는 사실은 그림 40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④번을 통해서 최저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③번 봉의 저가보다 낮은 저가가 나와야 한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의 30분봉에서 결국 최저점이 나

왔다. 그 이후 ②번 봉의 저가를 12시 30분경에 붕괴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0분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지 30분봉의 문제가 아닌 일봉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모든 힘이 일봉으로 넘어갔고, 이 시점 이후의 주가는 30분봉이 아닌 일봉의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 그리고 지난주의 저가에 해당하는 ①번 봉의 저가도 모두 붕괴시켰다. 혹자는 이것을 3분봉이나 5분봉에서 찾으려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일봉의 의도에 의해 주가가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일봉이 아닌 다른 봉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분석은 원인이 존재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단지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접근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분석 방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의 세계를 경험해 보자. 매트릭스를 통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선 30분봉과 60분봉의 매트릭스를 통해 상황을 먼저 판단해 보자.

1) 2010년 7월 1일자의 60분봉의 매트릭스 값이다.

60분봉의 매트릭스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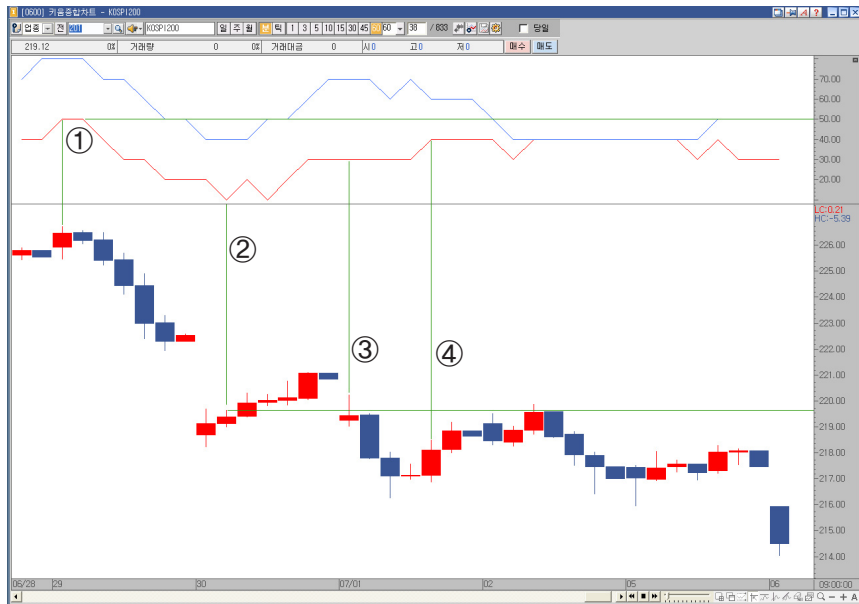
구분	값	1	2	3	4	5	6	7	8	9	10
고가	30	0	0	0	0	0	1	1	1	0	0
저가	40	0	0	0	0	1	1	1	0	1	0

2) 2010년 7월 1일자의 30분봉의 매트릭스 값이다.

30분봉의 매트릭스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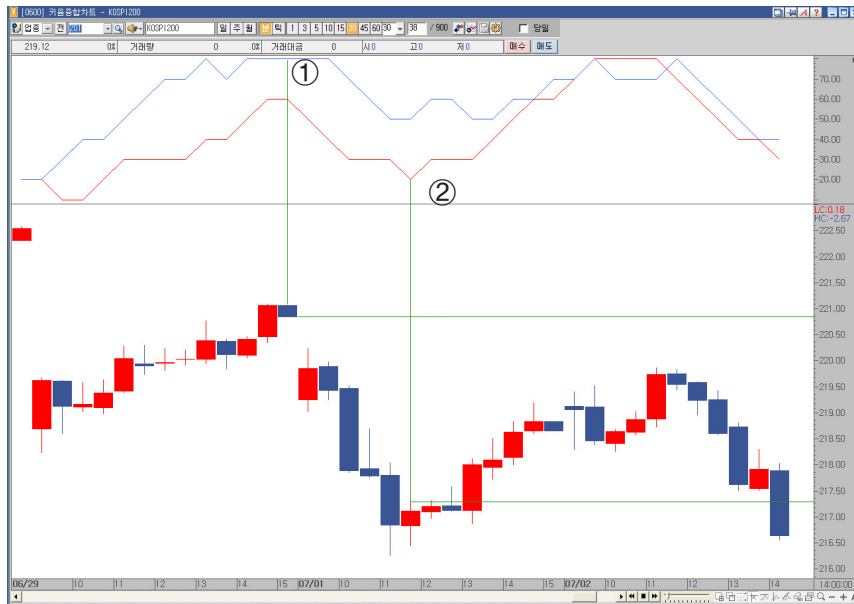
구분	값	1	2	3	4	5	6	7	8	9	10
고가	50	1	1	0	1	0	1	0	0	1	0
저가	70	1	1	1	1	0	1	0	1	1	0

실제로 주가는 매트릭스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때론 매도단가가 존재해도 강력한 지지에 의해 제대로 하락해 보지도 못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매수단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주가 분석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수없이 많은 헛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헛소에 의해 분석 방법을 체계화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직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과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 어느 영역을 사용해야 하는가는 학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은 매트릭스만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그림 41. 2010년 7월 1일자 코스피 200지수 60분봉]

그림 41은 2010년 7월 1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60분봉 차트이다. 우선 60분봉의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5시간 동안 0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1시간과 동시호가 상황에서만 1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만큼 상승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30분봉의 경우 4시간 30분 동안에는 1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조 또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보듯이 30분봉과 60분봉은 서로 가려는 길이 다르다. 30분봉은 매도단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60분봉은 매도단가를 만들어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 실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림 42. 2010년 7월 1일자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우선 60분봉을 보자.

②번이 매수단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②번이 손절 기준점도 함께 갖고 있다. 이후의 주가를 보면 손절 기준점을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를 했다고 해도 손절을 해야 하는 자리가 생겼다.

③번이 7월 1일의 첫 60분봉이다. 그런데 ④번에서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4개의 봉이 모두 고가를 갱신하지 않고 있었는데 5번째 봉이 결국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해 버린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 41의 고가의 투자 심리도를 잘 보면 7월 1일 중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매수단가를 기준으로 매수단가보다 높은 고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치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고가를 갱신해도 된다. 다만 분봉은 일봉의 힘에 의해 휩소가 많이 발생한다. ②번 봉의 고가를 결국 깬다. ④번의 상황처럼 고가가 신고가 모드를 지향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피해야 한다. 그런 힘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 1일은 30분봉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날이다.

그림 42를 보면, 시초가가 저가를 붕괴함으로써 ①번에서 바로 매도단가가 나와 버렸다. 매도단가가 나온 후 주가는 계속 하락했으며, 이렇게 30분봉의 매도단가에 의해 하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분봉은 고가를 내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60분봉의 고가는 0의 영향을 받으므로 60분봉 전 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60분봉은 상방으로 움직이게 된다. 30분봉의 하락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60분봉은 고가를 낮추면서 30분봉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3시간이 흐른 후에 ②번 봉에서 다시 매수단가가 나왔다. 30분봉이 이제 위로 가려는 신호를 보내 왔다. 그리고 60분봉에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

그럼 주가의 결과에 상관없이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 보자.

60분봉의 매트릭스 값을 보면 5시간 동안 고가는 0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고가가 단 한 번이라도 갱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가장 높은 값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최초 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최고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즉 60분봉을 기준으로 전 고가를 갱신하면 주가는

221.80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주가는 상당히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주가가 221.80을 넘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봉의 고가를 갱신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 오후 1시까지 주가는 전봉의 고가를 갱신하면 안 된다. 만약 주가가 전봉의 고가를 갱신한다면 221.8까지 반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주가가 전 봉의 고가를 갱신한다면 221.80을 목표로 매수를 하는 것이 하나이고, 221.80을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자는 60분봉이 전고점을 갱신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한다. 60분봉이 전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은 결국 221.80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30분봉의 경우 60분봉과 달리 4시간 30분 동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30분봉은 명백한 하방이다. 그럼 60분봉이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상상했던 봉의 모습과 실제 장이 만들어진 결과를 비교해 보자.

주가를 보기 전에 투자 심리도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0분봉의 고가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의 위치 값을 잘 보면 주가가 왜 그렇게 흘러갔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30분봉에서 최초로 매수단가가 나온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도는 매수 신호를 주지 않는다. 단지 개인이 갖고 있는 욕심이 매수 의지를 불러오는 것이지 차트가 매수를 하라고 유혹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다.

60분봉의 결과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는 약간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는 단순히 매트릭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이라는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심리도에는 이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 투자 심리도의 공식상 하락과 상승의 정보만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의 값을 제외하고는 다른 값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데자뷰 차트 안에 포함된 P차트와 T차트이다.

P차트와 T차트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P차트와 T차트의 값을 보면 하락에 유리한 상황인지 상승에 유리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힘에 의해 매트릭스가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기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주기론은 수급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알아 두면 투자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미래를 보는 방법을 익혀 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도 메이저의 장난질로부터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다.

07

투자 심리도 고급편 : 수급론

거래량은 주가의 거울과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래량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수급론을 통해 거래량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심리도를 이루는 이론 중 주기론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수급론이다. 주기론이 주가가 시간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라면 수급론은 주가가 거래량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다. 주가는 거래량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거래량의 추이를 통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수급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말이다. 수요와 공급은 거래량이라는 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에는 수요적 측면의 거래량인지 아니면 공급적 측면의 거래량인지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거래량을 이용해 수급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수급이 왜 거래량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의 규모가 어떻게 수급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급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거래량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수급은 거래량의 크기에 방향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거래량은 크기만 존재할 뿐,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량만을 분석해서는 절대로 방향성을 말할 수 없다.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주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파악하려면 거래량 자체가 아닌 주가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해야 한다. 주가와 거래량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수급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주가와 거래량을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 주가와 거래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량을 분석하기 위해 VR 이나 OVB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도구일뿐이다. 또한 스톡캐스틱이나 MACD 같은 것들은 거래량의 특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지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보자.

파생상품이 아닌 이상 일반 주식의 주가 변동 폭은 30%이다. 하한가(-15%)에서 상한가(15%)까지 움직이게 되는 경우 변동 폭은 30%가 된다. 그러나 거래량의 변동 폭은 무한대에 가깝다. 만약 오늘 10주가 거래되었는데 내일 100만주가 거래된다면 거래량과 관련된 모든 보조 지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다. 이런 변동 폭의 특성 때문에 주가에 적용하는 보조 지표를 거래량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가와 거래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보조 지표 중에 변동 폭에 반응하지 않는 지표가 있을까?

그것이 투자 심리도이다. 투자 심리도는 0과 1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10000% 발생한다고 해도 1로 처리해 투자 심리도에 값을 넘겨 준다. 따라서 주가의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변동 폭에 상관없이 늘 일정한 규칙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수급을 분석할 때는 투자 심리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 주가의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사이클 차트’라고 부른다.

사이클 차트는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동일한 그래프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이클 차트의 경우, 주가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4개, 거래량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1개 존재한다. 즉 5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클 차트의 구성 요소

고가 사이클 (적색 실선) : 고가의 투자 심리도

저가 사이클 (청색 실선) : 저가의 투자 심리도

종가 사이클 (적색 점선) : 종가의 투자 심리도

시가 사이클 (청색 점선) : 시가의 투자 심리도

거래량 사이클 (녹색 실선) :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이제 사이클 차트를 통해 수급에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선 아주 간단한 상상을 한번 해 보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값이 높다는 것과 낮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높다는 것은 거래량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낮다는 것은 거래량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이다. 투자 심리도에 이러한 가설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높다는 것은 거래량에 대해 투자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므로 매수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된다. 반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낮다는 것은 거래에 대해 투자자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므로 매수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가설을 적용하는 이유는 단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사이클 차트를 자세히 보면 경우에 따라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더 높은 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더 낮은 값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럼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높은 값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현재의 주가에 발생하는 거래량에도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래량은 매도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낮은 경우 현재 주가에 발생하는 거래량에 투자자들이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즉 누군가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 매도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수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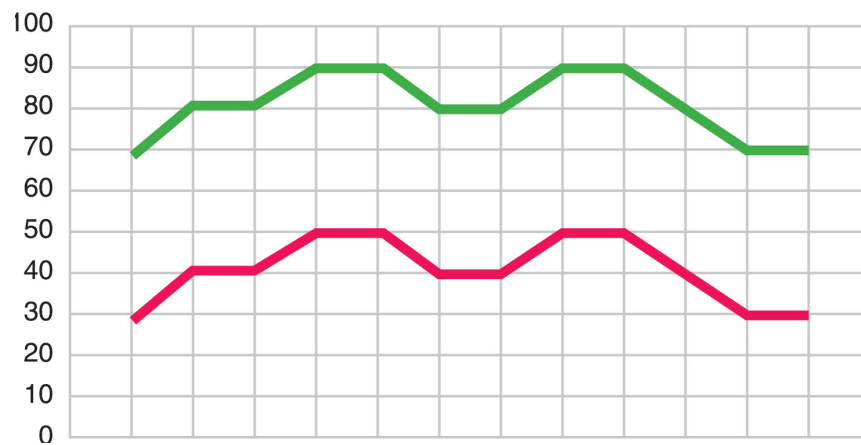
한다.

이렇게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와 주가의 투자 심리도의 위치를 통해 수급의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수급을 정의해 보자.

수급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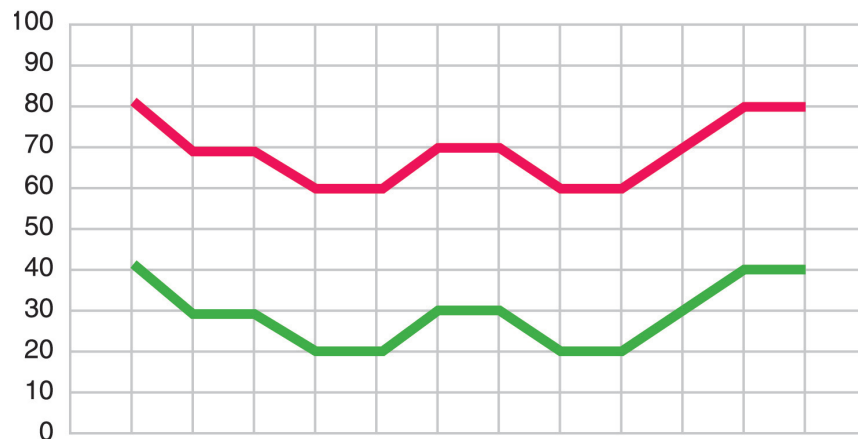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 주가의 투자 심리도



[그림 43. 수급 매도]

수급 매수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 주가의 투자 심리도



[그림 44. 수급 매수]

수급이 매도이면 주가가 떨어지고 수급이 매수이면 주가가 오른다는 이분법적 분석을 하기 위해 수급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이 매도라는 것은 거래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수급이 매수라는 것은 거래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 보자. 수급이 매수 상태라면 거래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부담을 느낄 만큼의 높은 주가를 필요로 한다. 즉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는 높은 주가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높은 주가라는 인식이 거래량에 전달되어야 하락으로 전환하게 된다.

반대로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주가는 거래량의 부담을 안고도 잘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든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에 대해 거래량이 얼마만큼 부담을 주고 있느냐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내려가려고 하며 반대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부담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저렴한 주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는 강한 하락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듯 수급이 매수이나 매도이나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거래량에 의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수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가와 비교할 수 있을까?

수급이 실제 주가와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우선 데자뷰 차트에는 P차트와 T차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P차트는 가격에 반응하는 그래프이고, T차트는 추세에 반응하는 그래프이다. P차트와 T차트에 대한 내용은 제2장 판도라의 상자 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수급과 반응하는 선에 대해 설명해야 하므로 P차트와 T차트의 일부 선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P차트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이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라는 용어 대신 가격을 의미하는 Price의 이니셜을 이용해 P차트라 했다. 그리고 T차트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그래프이다. 이것은 일반 HTS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P차트와 T차트에는 장기선이 두 개씩 존재하는데 바로 이 장기선이 수급에 반응한다. P차트와 T차트의 장기선은 위 아래로 각각 한 개씩의 선을 갖고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을 저항선이라 부르고 아래에 있는 선을 지지선이라 부른다.

P차트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클 차트에 반응하지만 T차트의 경우 별도의 사이클 차트를 필요로 한다. 즉 일반적인 사이클 차트는 P차트에 반응하므로 P 사이클 차트라 하고, 특별하게 개발된 사이클 차트는 T차트에 반응하기 때문에 T 사이클 차트라 부른다. 이렇게 P 사이클 차트의 수급 상태는 P차트의 장기선에 영향을 미치고, T 사이클 차트의 수급 상태는 T차트의 장기선에 영향을 미친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위의 설명에서 수급이 매수일 때는 비싼 가격이 올 때까지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는다고 했고, 반대로 수급이 매도일 때는 싼 가격이 올 때까지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비싸다, 싸다라는 구분이 바로 P차트나 T차트의 장기선이다.

장기선의 하단 선은 저렴한 선 즉 매수선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선의 하단

선은 저렴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다 받아 준다. 반면 장기선의 상단선은 비싼 선 즉 매도선이다. 장기선의 상단선은 비싸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웬만한 매수세가 아니라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게 된다.

그럼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하단을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매수세가 강한 상태에서 저렴한 주가를 제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선의 하단선에서는 반등이 온다. 그리고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상단선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는 거래량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그 물량을 다 받아 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급이 매수인 경우에는 장기선의 하단선을 뚫을 수가 없고 장기선의 상단선은 경우에 따라 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급 매수인 경우 장기선의 하단선에 도달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며, 장기선의 상단선에 도달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상단선에 도달하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비싼 가격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쏟아지게 된다. 반면 장기선의 하단선에 도달하게 되어도 매수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도세를 안고 왔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지 못할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단선을 내주고 폭락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장기선의 하단선에서는 매수 진입을 하지 않고 장기선의 상단선에서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수급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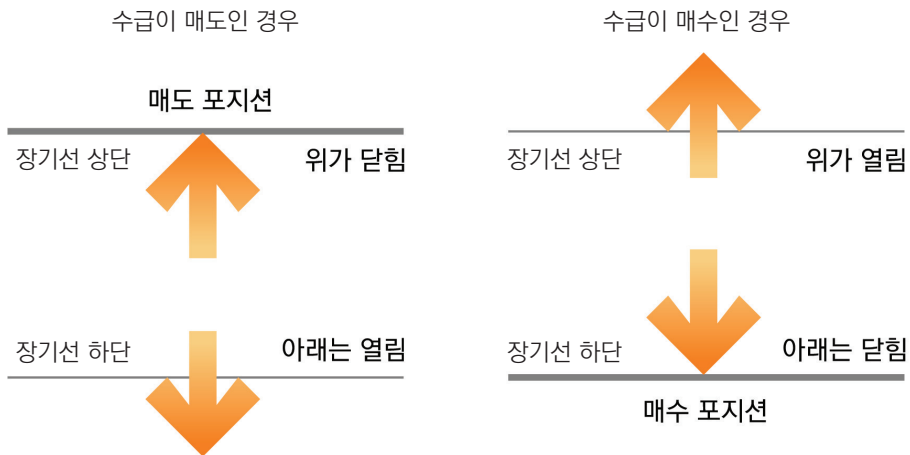
장기선의 상단선 도달 : 매도 포지션 구축

장기선의 하단선 도달 : 포지션 없음

수급 매수

장기선의 상단선 도달 : 포지션 없음

장기선의 하단선 도달 : 매수 포지션 구축



[그림 45. 수급에 따른 포지션 구축]

따라서 주가가 P차트와 T차트에서 장기선의 상단선 또는 하단선에 도달했

을 때 수급 상태를 확인하면 추가적인 힘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힘이 다 소진되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거래량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론적으로 수급에 대해 살펴보았다. 얼핏 들어 보면 그냥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내용을 실제 주가에 적용하려는 것일까라는 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 수급 차트를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사이클 차트 또한 투자 심리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는다. 즉 거래량에도 매트릭스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폭발력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위한 것인지도 구분할 수 있으며, 메이저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거래량을 이용해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수급론을 통해 거래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분석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 거래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기론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주기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락 주기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상승이 아닌 반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반등이 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주기론에는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주

가가 하락할 때도 수급 구조상 더 내려갈 수 없는 경우 자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주기론에서는 이러한 수급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 주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분석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따라서 주기론에는 반드시 수급론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수급의 매트릭스

모든 투자 심리도 그래프에는 필연적으로 매트릭스가 포함되어 있다. 단지 차트 속에 녹아 있는 매트릭스 정보를 HTS에서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이다. 주기론에서는 고가와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이용해 시간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매트릭스를 통해 수급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수급의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 보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만들어 보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안에 상승일수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매트릭스로 구현할 수가 있다. 거래량의 매트릭스도 일반 주가의 매트릭스처럼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0과 1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수급이 어떤 경우에 매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매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가의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보다 높을 경우 수급은 매수라고 정의했다. 반대로 주가의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보다 낮

은 경우 수급은 매도라고 정의했다. 그럼 여기에서 아주 쉬운 상상을 해 보자. 만약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가려고 한다면 향후 수급은 어떻게 될까? 주가의 투자 심리도와 상관없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움직이려는 힘이 강하다고 분석해야 한다. 만약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50인데, 하루 뒤에는 40이 되고, 그 다음 날에는 30이 되었다면 수급은 상대적으로 매도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투자 심리도 중 종가의 투자 심리도가 40을 계속 유지했다면 첫날의 수급은 매도였겠지만, 둘째 날의 수급은 중립으로, 셋째 날의 수급은 매수로 변환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가려는 힘이 강할 수록 수급은 매수 쪽으로 기울게 되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할 수록 수급은 매도 쪽으로 기울게 된다.

앞에서 매트릭스의 기본에 대해 학습할 때 투자 심리도는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고, 매트릭스의 가장 오래된 값에 의해 한쪽 방향이 제거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럼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렇다. 가장 오래된 값이 1이면 된다.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에서 매트릭스의 값 중 1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횡보 또는 하락하기 때문에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기가 쉽고, 매트릭스의 값 중 0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횡보 또는 상승하기 때문에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기가 쉽다. 그래서 거래량의 매트릭스 값이 1의 영향을 받으면 매수세가 커진다고 판단하고 0의 영향을 받으면 매도세가 커진다고 판

단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거래량이 1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주가는 상승하기 좋고, 0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하락하기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거래량의 포지션 즉 수급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메이저가 하락할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거래량의 매트릭스가 1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들은 거래량을 늘려 투자 심리도를 회복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위를 향해야만 매도세가 커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당일 주가의 상승과 하락하는 문제를 떠나서 매도세를 키우면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의 매트릭스가 0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가급적 거래량을 감소시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수급의 매트릭스를 이해해 보자.
주가의 모든 투자 심리도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간단히 주가를 대표해 종가의 투자 심리도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종가의 투자 심리도 60

종가의 매트릭스

1/0/1/0/1/0/1/1/1/0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50

거래량의 매트릭스

0/0/0/0/0/1/1/1/1/1

종가의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만을 비교해 보면,
종가의 투자 심리도 60 >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50
따라서 현재 종가의 수급은 매수이다. 매수 강도는 10이다.

그럼 날짜에 따라 수급이 어떻게 변해 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자.

다음 날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내려 보면,

거래량은 0의 영향을 받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1이 들어오고 0이 나간다. 따라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50에서 60으로 상승한다. 반면 종가는 1의 영향을 받는데 주가가 하락했으니 0이 들어오고 1이 나간다. 따라서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60에서 50으로 하락한다. 단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수급이 매수였는데 갑자기 매도로 전환되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왔다면 장기선의 하단선이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급이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다면 수급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거래량은 여전히 0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도 동반 상승한다. 따라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70이 된다. 종가의 경우에는 0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의 투자 심리도도 주가가 함께 동반 상승한다. 이제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50이 되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매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존재한다. 투자 심리도의 그래프는 이론적 특성상 한 번에 위아래로 10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즉 다른 보조 지표처럼 어제는 30이었는데 오늘은 80까지 올라가고 내일은 다시 10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수치가 10이라는 것이다. 종가의 투자 심리도가 50인 상태에서 종가의 투자 심리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위로 10, 아래로 10이다. 그런데 매트릭스가 0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갈 수 있는 10은 불가능해지고, 위로 갈 수 있는 10만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가가 오르든 내리든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50 혹은 60만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미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60이라는 수치가 있었다. 즉 거래량 투자 심리도의 위치와 종가 투자 심리도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종가의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보다 위로 올라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한 번에 50에서 70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수급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게 된다. 그런데 거래량은 매트릭스로 보면 0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도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60을 유지하며,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70까지 상승하게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수급이 절대로 매수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다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자.

종가의 투자 심리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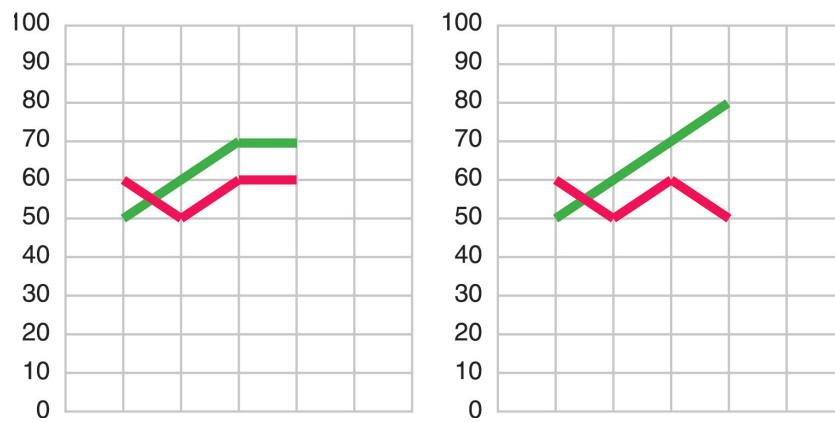
종가의 매트릭스

1/0/1/0/1/1/1/0/0/1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70

거래량의 매트릭스

0/0/0/1/1/1/1/1/1/1



[그림 46. 주가에 따른 수급의 변화]

그런데 위의 매트릭스를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종가의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보면, 주가의 결과에 상관없이 수급은 완전한 매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즉 수급은 주가의 움직임 또는 거래량 증감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종가의 매트릭스와 거래량의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종가는 1의 영향을 받고, 거래량은 0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가의 결과에 상관없이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래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으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70과 80 사이에서,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50과 60 사이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종가의 투자 심리도 값 중 높은 값인 60이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값 중 낮은 값인 70보다 작기 때문에 수급은 절대로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에 충돌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급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종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수급의 상태를,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수급의 상태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내용처럼 절대적으로 하나의 수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완전 매수’ 또는 ‘완전 매도’라고 부른다. 즉 수급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만약 종가의 투자 심리도가 70이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30이라면, 수급은 절대로 한 번에 매도로 돌아서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수급을 ‘완전 매수’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을 분석할 때는 종가의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고가/저가/종가의 모든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를 함께 비교한다. 그리고 모든 주가의 투자 심

리도보다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높은 경우 모든 가격에 대해 수급이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체 매도'라고 부른다. 반대로 모든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낮은 경우는 모든 가격에 대해 수급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체 매수'라고 칭한다. 대부분 전체 매수는 위로 강하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매수가 나오면 강하게 상승하게 되고, 전체 매도는 아래로 강하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매도가 나오면 강하게 하강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매수인 상태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신중해야 하고, 전체 매도인 상태에서는 매수 포지션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수급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추세와 가격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가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추세가 사라져 버린 암흑의 세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수급론은 추세가 죽어 버린 암흑의 세계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는 데 활용하는 도구이다.

만약 추세가 하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싶다면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하는 주가를 찾아내야 한다. 반대로 추세가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하고 싶다면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주가를 찾으려 한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매수였다면 장기선의 상단선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없다. 장기선의 상단선이 매도의 기준이 될거라고 생각하

겠지만 실제로는 장기선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급론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급이 어떻게 하면 매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매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보다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에 의해 장기선의 하단선이 방어되는지 아니면 장기선의 상단선이 방어가 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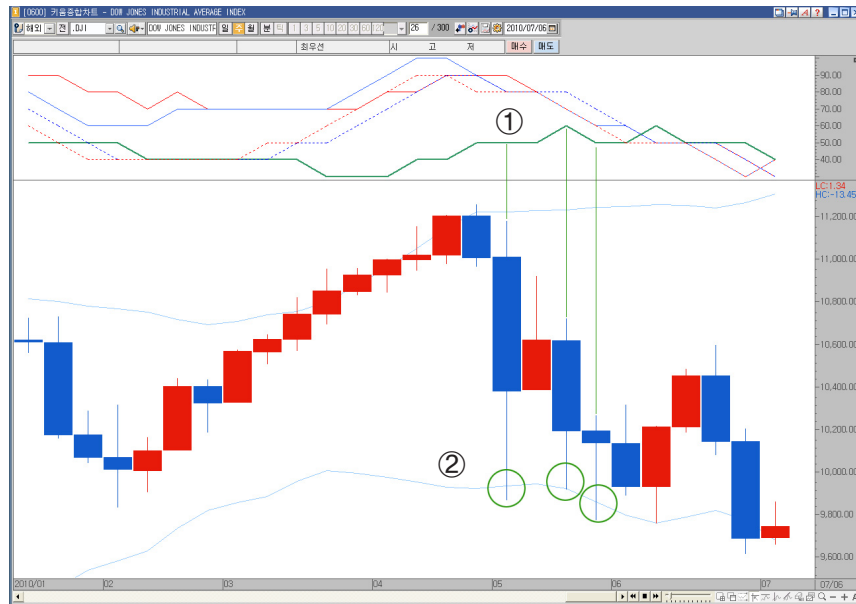
물론 수급론 자체는 봉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지만, 작은 분봉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휩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30분봉 아래의 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데자뷰 이론에서의 수급은 T차트의 수급과 P차트의 수급으로 나뉜다. 사례를 통해 어떤 차트의 수급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우선 P 사이클 차트를 통해 수급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자.

사례 1. 수급이 매수이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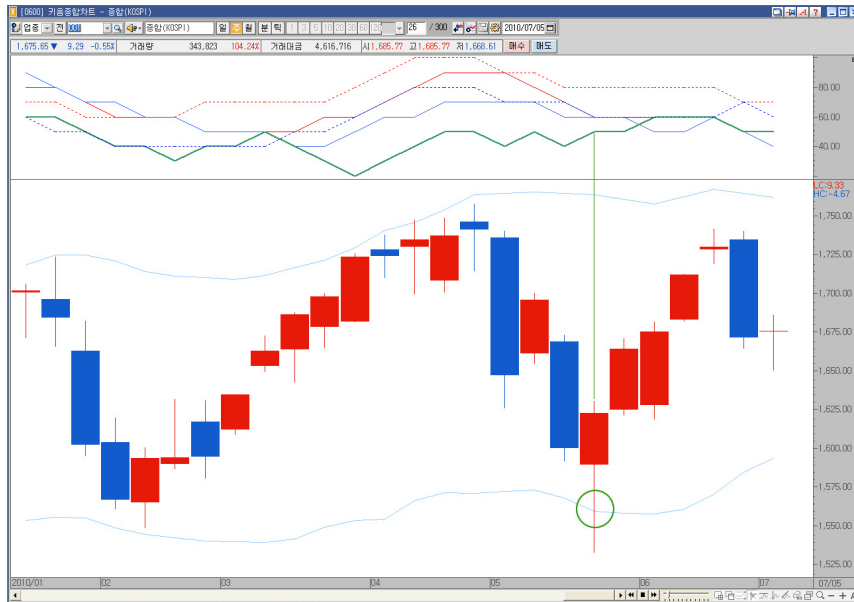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그림 47. 2010년 5월 3일자 다우지수 주봉 차트]

그림 47은 다우지수의 2010년 5월 초의 모습을 보여 주는 주봉 차트이다.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급격한 폭락이 왔다. 그런데 저가의 위치를 보면 항상 일정한 움직임이 보인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도달한 주가가 계속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①번은 거래량의 위치를 보여 준다. 거래량의 경우 맨 하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매수 상태이고 투자 심리 도에서도 완전 매수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장기선의 하단선은 웬만해서는 돌파하기 어렵다. 이후로 약 4주간 수급은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기선의 하단선에 도달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코스피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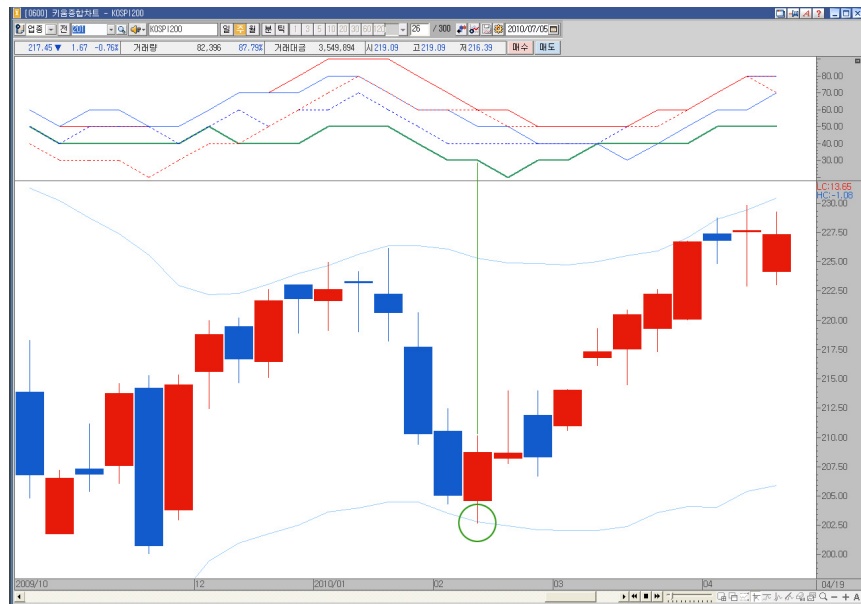


[그림 48. 2010년 5월 24일자 코스피지수 주봉 차트]

그림 48에서는 다우지수 주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인다.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는 어린이날이 지난 그 다음부터 장기선의 하단선을 접촉했지만 코스피지수는 5월 24일 주간에 와서야 장기선의 하단선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의 수급은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다우지수의 주봉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매수 상태이므로 장기선의 하단선은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 코스피 200지수의 주봉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자.

코스피 200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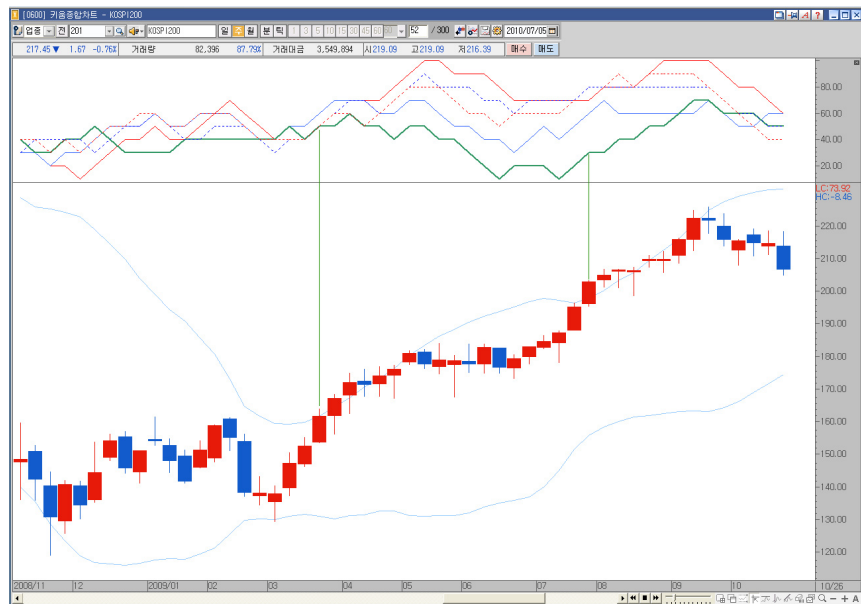


[그림 49. 2010년 2월 8일자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49에도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정확하게 지지가 되어 주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사례 2. 수급이 매수이면 장기선의 상단선은 저항이 되지 못한다.

코스피 200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그림 50. 2009년 3월 30일자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50은 대세 상승기가 시작되던 2009년 3월 30일자의 주봉 차트를 보여 준다.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럴 경우 이 자리가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3월 30일자 주봉 차트의 수급을 보면 수급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주가가 물론 이

자리에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수급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의 전략에서는 절대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2009년 7월 27일 다시 주가는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급이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길 바란다. 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일봉이나 주봉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법들은 특정 봉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자뷰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봉이든 상관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단지 주식 차트뿐만 아니라 가격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일반 기업의 주가, 코스피지수, 코스피 200지수, 선물 지수, 옵션 지수 뿐만 아니라 환율, 유가, 각종 원자재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다.

그림 50과 유사한 현상을 코스피 200지수의 월봉 차트에서 찾아보자.

코스피 200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그림 51. 2003년~2007년 사이의 코스피 200지수 월봉 차트]

그림 51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코스피 200지수의 월봉을 볼 수 있다.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수급의 경우 위의 표시된 세 지점이 모두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두 경우는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한 후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왜 첫 번째는 가파른 돌파를 하지 않고 하락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의 하락은 매도단가에 의한 하락이지 수급에 의한 하락이 아니다. 따라서 주가를 분석할 때에는 어

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장기선의 상단선에서 수급이 매수인 상태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매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란다.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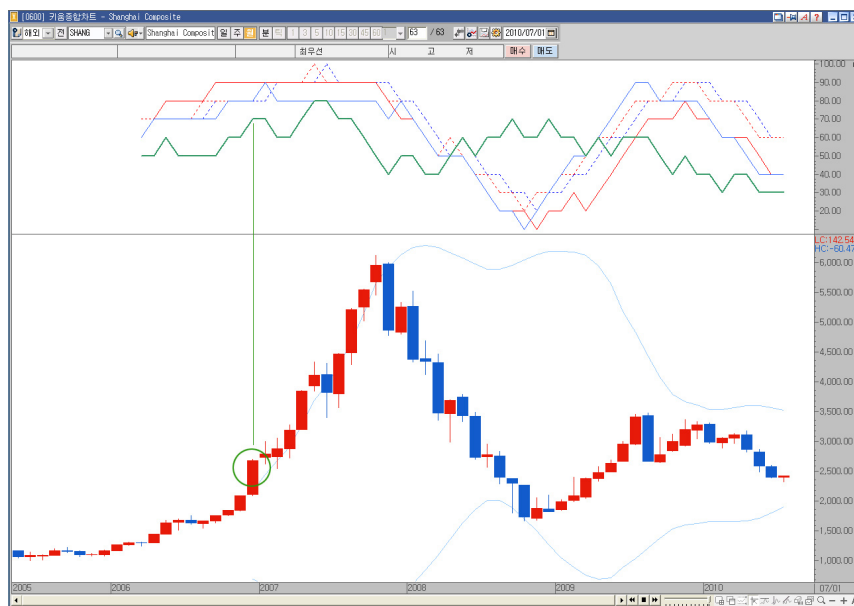


[그림 52. 2003년~2007년 사이의 다우지수 월봉 차트]

그림 52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의 다우지수 월봉 차트를 보여 준다. 코스피 200지수의 월봉처럼 세 번의 돌파를 표시했는데 첫 번째는 돌파 후 하락했고, 나머지 두 경우에는 위로 거침없는 상승을 지속했다. 역시 세 경

우 모두 수급이 매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주가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코스피 200지수의 월봉처럼 첫 번째 경우에는 매도단가가 발생하고 나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단지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에만 해당하는 규칙이라고 봐야 할까? 이번에는 상해지수를 보자.

상해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그림 53. 2003년~2007년 사이의 상해지수 월봉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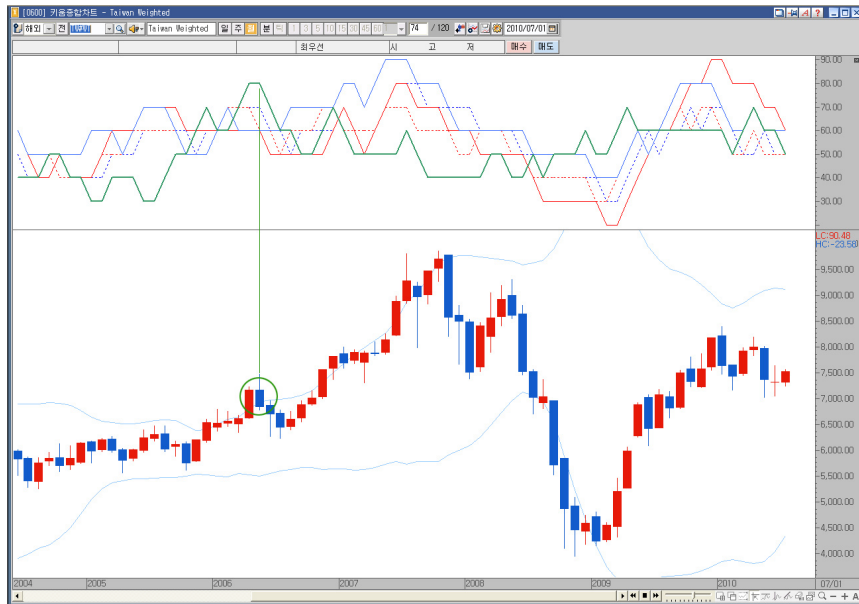
그림 53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해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여 주고 있

다. 다우지수나 코스피지수와 마찬가지로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수급이 매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론의 사례에서 주봉이나 월봉의 차트를 보여 주는 이유는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시각을 키워오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3. 수급이 매도이면 장기선의 상단선은 저항이 된다.

대만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그림 54. 2006년 5월 대만지수 월봉 차트]

어쩌면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2006년 5월은 전 세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2006년 5월의 대만지수의 월봉을 보면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주가는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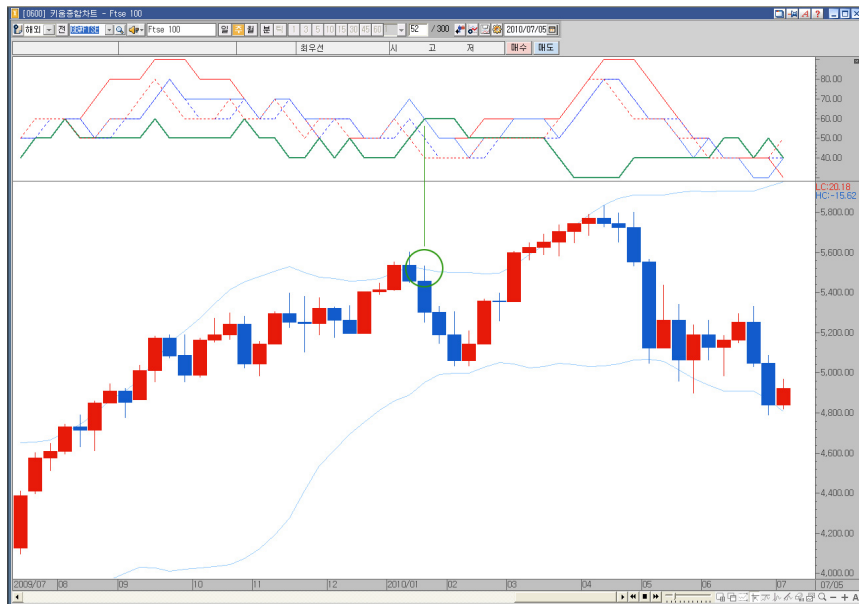
영국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그림 55. 2005년 10월 영국지수 월봉 차트]

그림 55는 영국지수의 2005년 10월 월봉 차트를 보여 주고 있다. 역시 수급이 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는 장기선의 상단선을 넘으면 매도의 대상이 된다. 2005년 11월과 2005년 12월 봉의 고가를 잘 보면 장기선의 상단선을 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수급이 매도이기 때문에 장기선의 상단선을 넘으면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주가를 관리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차트를 한번 찾아보자.

영국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그림 56. 2010년 1월 18일자 영국지수 주봉 차트]

그림 56은 영국지수의 2010년 1월 18일자 주봉 차트이다. 1월 11일자 주간에는 수급이 완전 매도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1월 18일자 주간으로 들어가자 수급이 완전한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장기선의 상단선은 매도의 대상이 된다. 이후 약 3주간 강한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 주고 있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다. 투자자가 임의로 이만큼 가져가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뿐이고, 수익폭은 시장이 스스로 정해 준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해외지수와 국내지수를 비교 분석하면서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지 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가정을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시장이 개사기장이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댔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스스로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더라도 각각의 시장은 다른 구조 속에 있으며 그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가? 뉴스를 보면서 세계를 조망하는가? 아니면 밤을 세워 가면서 다우지수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온갖 보조 지표를 합성해 당신만의 지표로 분석을 하는가? 당신만의 지표가 과연 세계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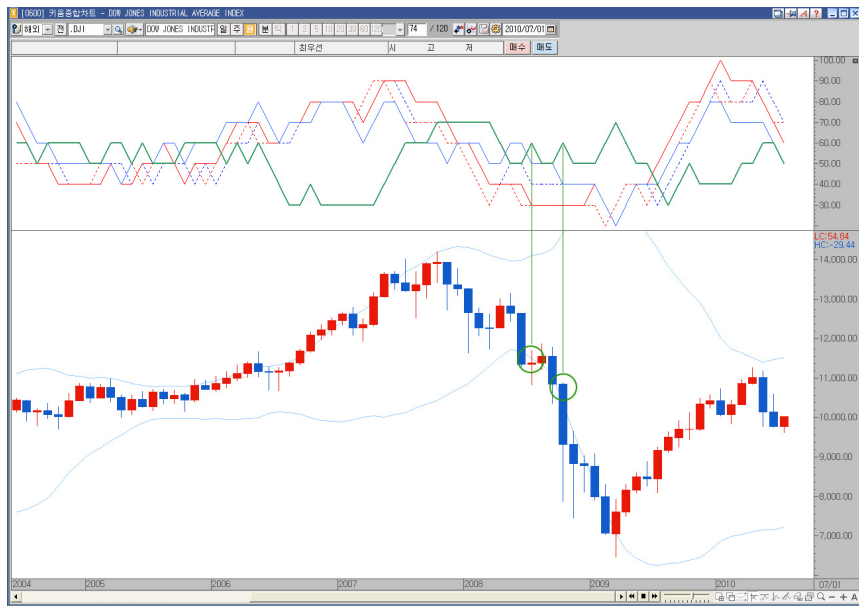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이론을 배우라고 권장하면 왜 기법을 두고 이론을 배워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 기초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기초를 아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응용이라는 것은 기초를 알면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럼 수급이 매도일 경우 장기선의 하단선이 지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4. 수급이 매도이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가 되지 않는다.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지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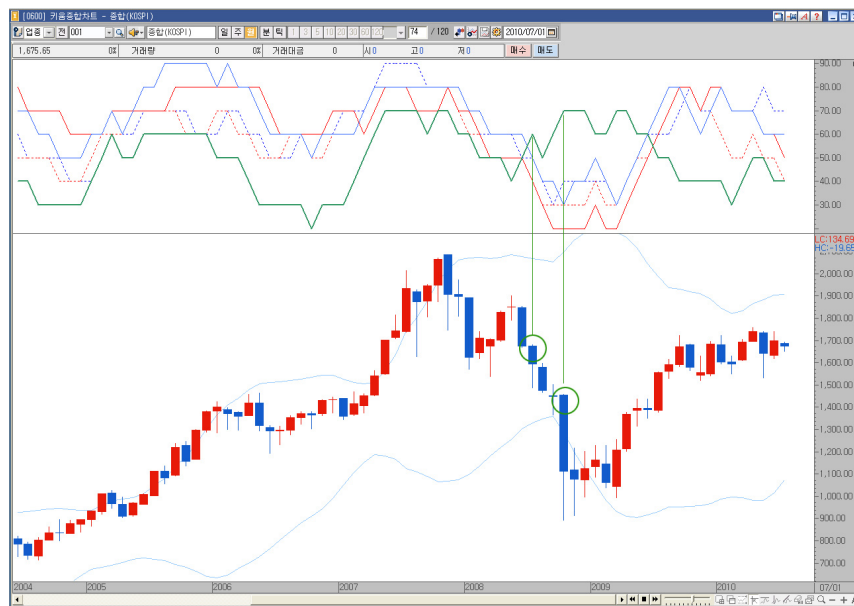
[그림 57. 2008년 10월 다우지수 월봉 차트]

수급이 매도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에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중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7월의 주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주가는 0.25%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다. 사람들은 저 부분에서 바닥을 논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나조차도 당시에는 저 정도 수준이 바닥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달리 모두 다 시장을 떠나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8년 10월 다시 주가는 장기선의 하단선을 공격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매도로 돌아선 상태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의 폭락 수준을 잘 지켜보길 바란다. 단지 하락한 것이 아니다. 장기선의 하단선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2009년도 2월까지 수급은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 즉 주가도 장기선의 하단선을 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선의 하단선이 붕괴되는 시점은 10,000포인트보다 높은 지점이였다. 그리고 그후 6,000대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 가까이 폭락한 셈이다. 무엇 때문인가? 정말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믿는가? 지금 당신의 머릿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은 주식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

그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코스피지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일

까? 정말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코스피로서는 예견하지 못한 시장의 악재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코스피지수의 월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지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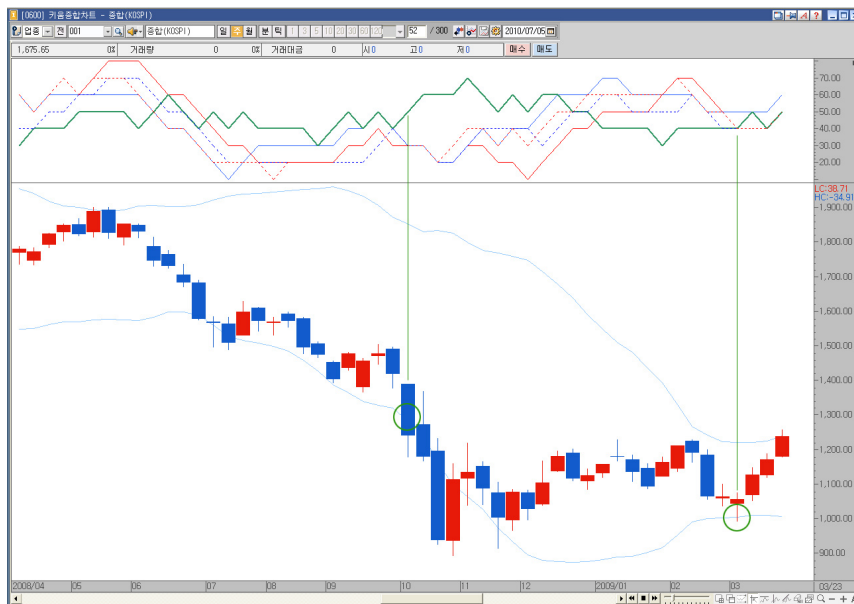
[그림 58. 2008년 10월 코스피지수 월봉 차트]

그림 58은 2008년 10월의 코스피지수의 월봉 차트이다. 2008년 6월을 주목해 보자. 주가가 2008년 5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2008년 5월에 1900대의 주가에 진입하고 하락한 이유는 2010년 주가가 1745에 진입하고 하락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다

를 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2008년 6월의 거래량을 보자. 수급이 완전한 매도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 장기선의 하단선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수급을 확인해 보자. 2008년 9월의 수급은 완벽한 매도 상태이다. 즉 장기선의 하단선이 지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봉은 장기선의 하단선이 주가에 의해 붕괴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리고 운명의 2008년 10월이 왔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런데 코스피지수는 이미 하락에 대해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젠든 주가 하락이 오면 장기선의 하단선을 열어 줄 준비를 해 놨다는 것이다. 정말 모르는 악재였을까? 모르는 악재였다면 수급이 매도 상태가 아닌 매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악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경우 절대로 메이저가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저가 시장에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 주식의 수가 줄기 때문에 거래량은 메이저의 전략에 의해 철저하게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메이저가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그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다른 메이저의 능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라는 신호로써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급 상태는 2009년 7월이 되어서야 매수 상태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주가는 이미 장기선의 하단선을 지지로 한참이나 올라온 상태이다.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면 주가는 장기선의 하단선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기 전에 주가를 올려놓아야 한다. 그럼 단지 코

스피지수의 월봉 차트만이 시장에 대한 신호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시장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호 간 연관 관계를 만들면서 움직인다. 그래야 시장을 움직이는 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봉에는 강력한 매도세를 두고 주봉에는 강력한 매수세를 두는 바보 짓을 할 리가 없다.

코스피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지지 돌파]



[그림 59. 2008년 10월 코스피지수 주봉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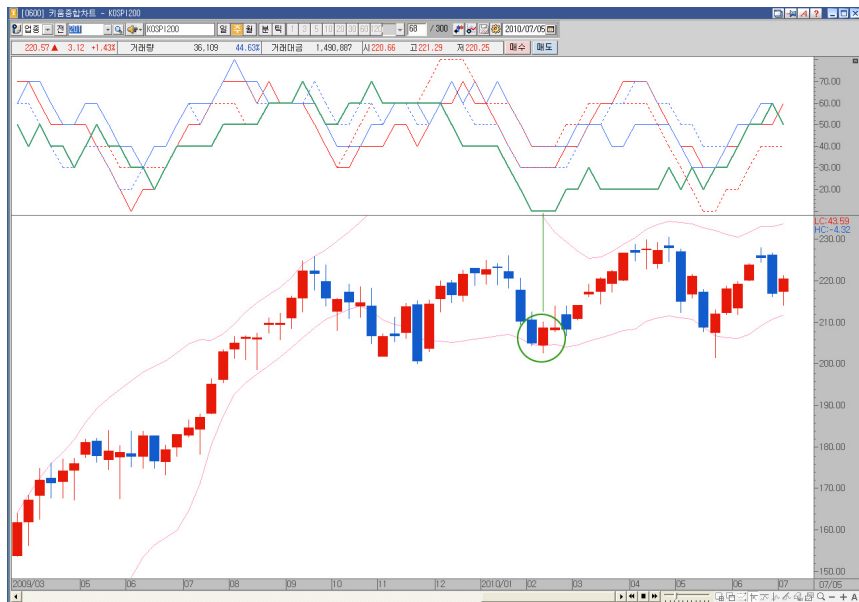
그림 59를 보면 주봉 역시도 수급을 매도로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수급이 매도이면 장기선의 하단선을 지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장기선의 하단선이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니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2008년 10월 6일자 주봉의 현실과 2009년 3월 2일자 주봉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이에 대한 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다. 2008년 10월 6일자 주봉에는 수급이 매도로 표시되어 있지만 2009년 3월 2일자 주봉에는 수급이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매도세를 줄여 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을 공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지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수급이 매도가 아니므로 장기선의 하단선을 열어 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P차트의 수급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럼 단지 주가는 P차트의 수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 T차트의 수급을 함께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T차트는 추세가 포함되어 있는 차트이다. 따라서 수급이 추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차트의 장기선 위치와 P차트의 장기선 위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T차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5. 수급이 매수이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가 된다.

코스피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그림 60. 2010년 2월 8일자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단지 P차트의 수급에 의해 주가가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이해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분명히 어떤 지점까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러한 이유에 대해 매우 궁금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단지 P차트와 동일한 가격에 의존하는 수급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T차트처럼 추세와 관련된 곳에서도 별도의 수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T차트의 수급선은 P차트와는 달리 적색 계열로 표시한다. 이것은 수급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T차트의 수급 상태는 P차트의 수급 상태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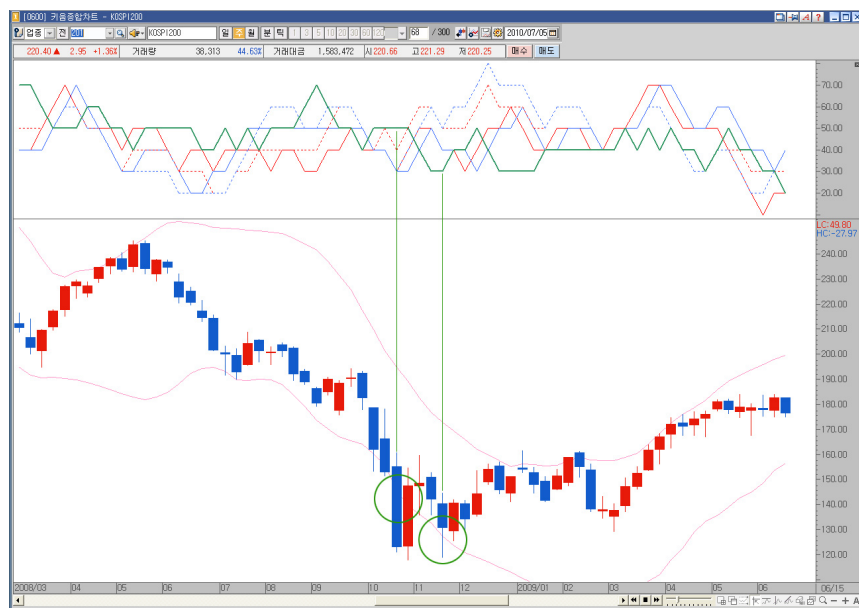
그림 60은 2010년 2월 8일자의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이다. P차트의 수급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내용이다. 단지 P차트의 수급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T차트에서도 똑같이 지지를 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2월 8일자 주봉을 보면 T차트의 수급은 매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하려고 했으므로 매수 세력이 이것을 막아 내기 위해 반등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연하게도 바닥이 되어 버렸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이 체계적인 형태로 반복되기는 어렵다. 그럼 리먼브러더스가 망하던 당시 T차트의 수급은 과연 어떠했을까? 만약 수급이 매수인 자리가 있었다면 정말로 주가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분이 쉽게 품을 수 있는 의구심이리라 생각한다. 정말로 이 이론이 맞다면 그러한 악재 속에서도 차트는 정상적

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

코스피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그림 61. 2008년 10월 20일자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61은 2008년 10월 20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주봉 차트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최악을 달리고 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을 뚫고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때의 수급은 어떠한가? 역시나 매도 상태이다.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하게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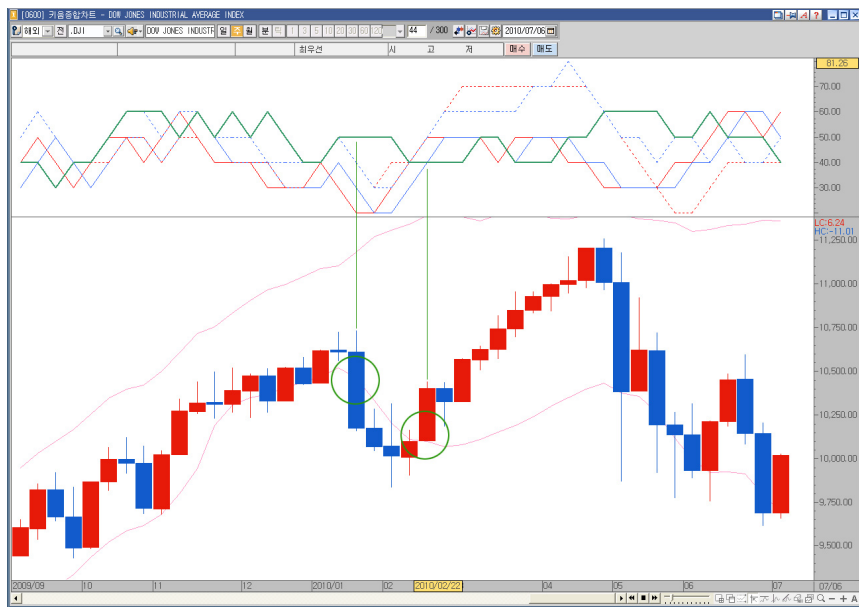
려면 어쩔 수 없이 수급을 매도로 돌려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리먼브러더스 폭락 때 수급을 매도로 돌려 놓은 사실이 아니라 수급이 매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답이 2008년 11월 17일자 주봉 차트에 있다. 이제 두 번째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살펴보자. 봉은 음봉이고, 주가는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했다. 만약 수급이 매도였다면 저 지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이 매수였다면 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수급을 확인해 보자. 매도 상태가 아니라 매수 상태이다. 그것도 거래량이 가장 아래에 있는 완전 매수 상태이다. 그럼 가설에 의해 주가는 장기선의 하단선을 뚫을 수 없다. 결국 주봉은 반등을 시도했고, 그 지점이 바닥이 되어 상승의 발판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지 코스피지수 하나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차트에 적용해도 이러한 물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수급의 힘은 대단하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팔려고 하는 자들이 사려고 하는 자들에 비해 힘이 약한 상태에서 매도세를 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단지 코스피지수만의 것인지 해외 지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국내지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가치가 없을 테니 말이다.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지지 사수]



[그림 62. 2010년 2월 16일자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62는 2010년 2월 16일자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이다. 2010년도에도 리먼브러더스 때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 1월 19일자 주봉 차트를 보면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이 매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선의 하단선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4주가 흘렀다. 2월 16일자 주봉 차트를 보면 매도였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자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잘 보면 저가가 장기선의 하단선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도 주가는 그 이후 거의 10주간 끊임없는 상승을 이어 갔다. 만약 수급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1월 19일자의 상황과 2월 16일자의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온갖 핑계를 다 들이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단하게 T차트의 수급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월 16일자의 상황은 후행적일 수도 있다. 거래량은 감소했으며, 고가는 전 고가를 갱신하고 저가는 전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았다. 종가조차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것이라 해도 할 말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와 반대로 고가가 전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저가 또한 전 저가를 붕괴시켰으며, 거래량은 증가하고 종가마저 하락했다면 결론은 지금과 정반대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힌트가 존재한다. 결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양방향일 가능성이 있지만 힌트를 통해서 보면 약간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주가가 강하게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시가를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에 둔다. 그것은 장기선의 하단선에 고가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보다 높게 시작하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수급에 상관없이 일단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할 때에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매수세를 죽여야 하는데, 따라서 수급을 매도로 해 놓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 주가의 시작점 자체가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라면 장기선의 하단선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부 손실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수 자리

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감행했기 때문에 현재 손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쪽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대량 손절이 일어나게 된다. 손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절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에서 주가가 시작하게 되면 장기선의 하단선이 지지가 아닌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월 19일자 주봉이 만들어진 이후로 3주간 고가는 장기선의 하단선 부근이었다. 계속 손절을 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4주째가 되던 2월 16일자 주봉을 보면 시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장기선의 하단선에서 매수자들은 손절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즉 손실 상태가 아닌 수익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선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과 실제 거래자들이 본절이 되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기선의 하단선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 상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조 지표가 모두 비슷하듯이 장기선은 평균의 로직을 갖고 있다. 즉 개개인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는 것이다. 결국 거래에서는 대규모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의 사소한 거래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 개인의 포지션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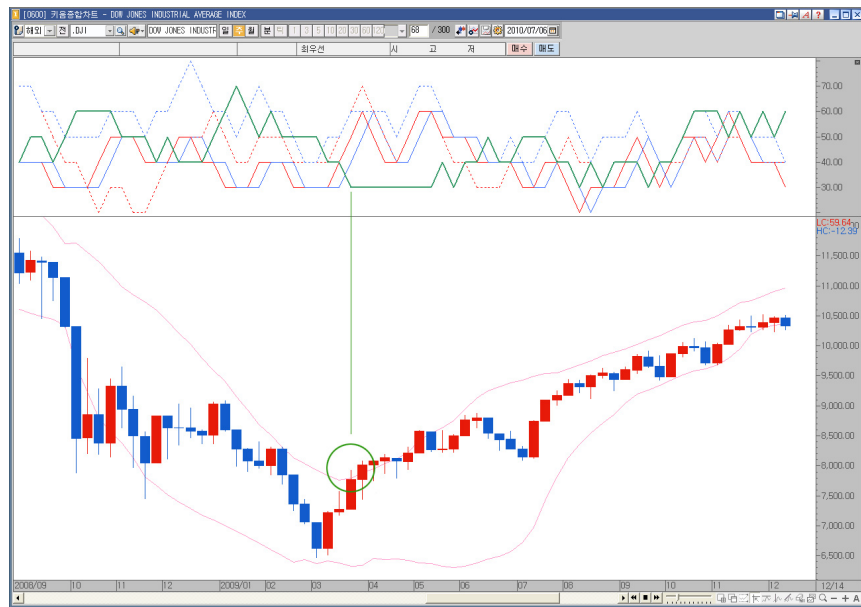
에서 보면 메이저라고 불리우는 주체가 한쪽 방향으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쏟아 붓는다면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호재가 있다면 주가가 왜 안오르고 있느냐고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1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개별적인 주가는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기업이란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소규모의 작전 세력이 붙어 있는 경우 정도이다. 대기업들은 선물거래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선물이 매도 우세냐 매수 우세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수 주문을 넣기도 하고 매도 주문을 넣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주가 역시도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과 정보를 쥐고 있는 주체가 바로 시장이다. 선물 지수가 226을 찍던 어느 날 2조 원이나 되는 선물 매도는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 후 주가는 200대까지 주저앉았다.

주식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코스피지수와 선물지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을 아는 것이고 또한 주식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재와 호재는 단지 시장에서 주가의 방향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3% 가까이 폭락하는 주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미리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분석을 통해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잡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P차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매수일 때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례 6. 수급이 매수이면 장기선의 상단선은 지지가 되지 못한다.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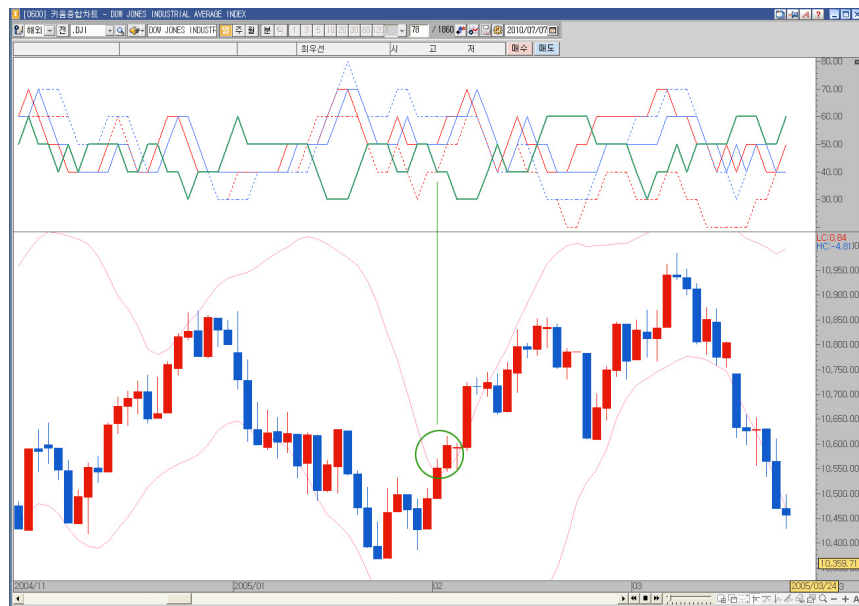


[그림 63. 2009년 3월 23일자 다우지수 주봉 차트]

그림 63은 2009년 3월 23일자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이다. 그리고 표시된 원 안의 봉을 보면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그럴 땐 수급을 보면 된다. 수급 상태가 매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수급이 매수 상태이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가는 상단 기간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하

면서 움직였다. 수급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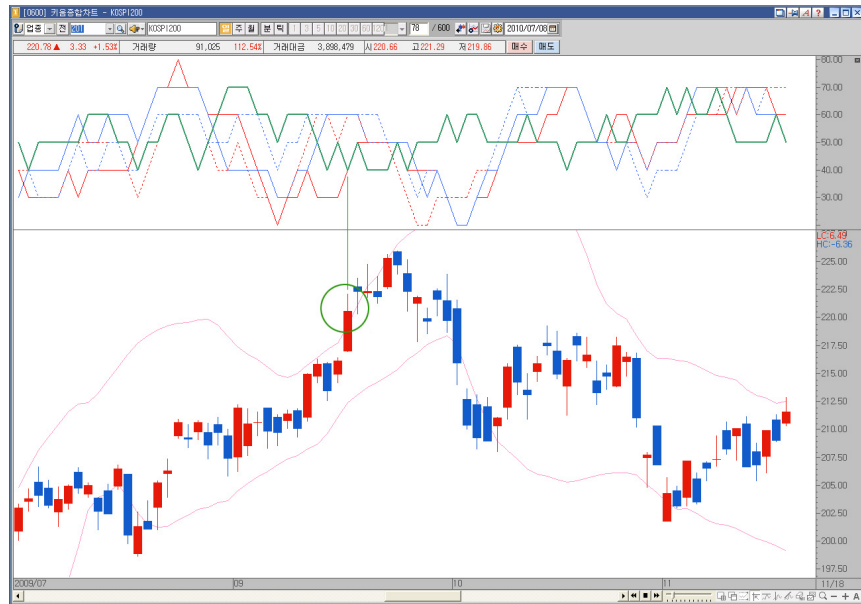


[그림 64. 2005년 2월 1일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

그림 64는 2005년 2월 1일자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하고 있다.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2월 1일 이후의 주가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손절을 할 수 있는 제대로된 위치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켰을 것이다.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지지의 효과 [저항 돌파]



[그림 65. 2009년 9월 16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65는 2009년 9월 16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9월 16일 주가를 보면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은 역시 매수이다.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차트는 약간 독특하다. 완전 매수 상태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의 위치가 약간 오묘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증가했다. 수급이 완전히

매수로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매수세가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의 위치는 맨 아래에 있지만 완전한 매수 상태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봉의 형태는 거래량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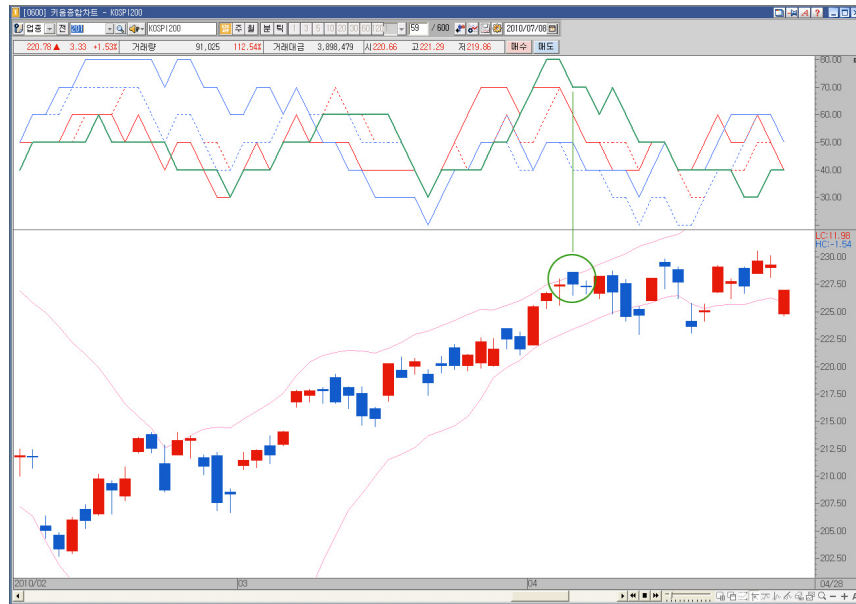
그러나 9월 18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량 때문에 수급은 완전한 매수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는 양봉을 보이고 있다.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봉이 굳이 뒤로 밀려 가면서 버텨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9월 23일자로 수급은 매수 상태에서 매도 상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보였다. 그때의 주가를 잘 보면 수급이 매도로 전환된다는 것이 얼마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가는 음봉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장기선의 상단선으로부터 아래에 위치하려는 고가의 의지가 보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례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가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사실만을 이용해 분석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이론처럼 습득할 수 있도록 규칙성 있는 화면만을 골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야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세부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사례 7. 수급이 매도이면 장기선의 상단선은 저항이 된다.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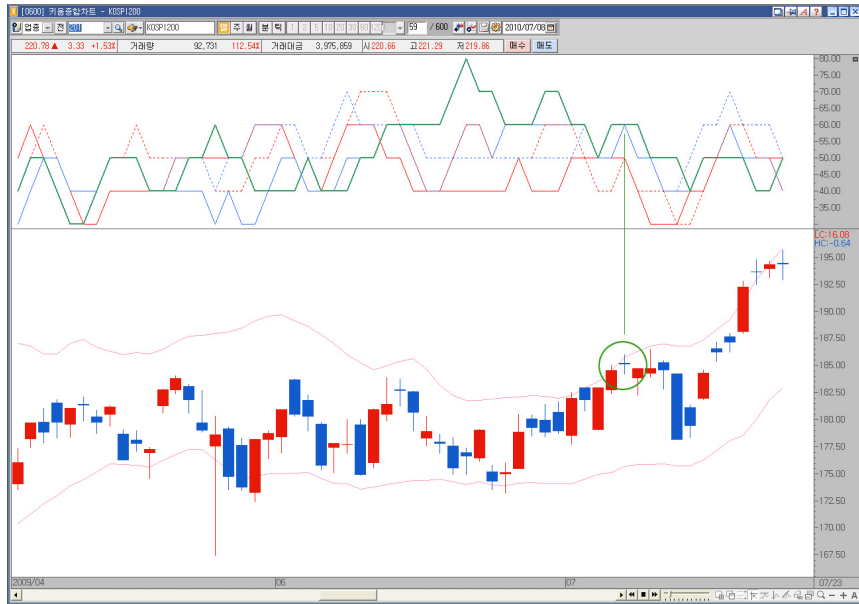
[그림 66. 2010년 4월 6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66은 2010년 4월 6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달려 왔다. 그런데 4월 6일이 되기 전 수급은 이미 매도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왜 주가는 그런 상태에서 더 상승한 것일까? 수급이 매도이면 주가는 하락해야 하는 게 아닐까? 수급이 매도이더라도 주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단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매도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 자금을 지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이 완전 매도로 전환된 것은 4월 2일이다. 그러나 4월 2일에는 고가의 위치가 장기선의 상단선보다 낮다. 즉 매도를 할 수는 있으나 기준이 되는 가격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4월 6일이 되어서야 수급 매도에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여가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 후 주가의 추이를 보면 매도를 한 자리가 상당히 좋은 위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주봉이나 월봉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였을 것이다. 다만 일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고, 수급 매도에 장기선의 상단선을 건드린 주가의 현상만을 두고 분석할 뿐이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수급이 매도라는 것이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그림 67. 2009년 7월 7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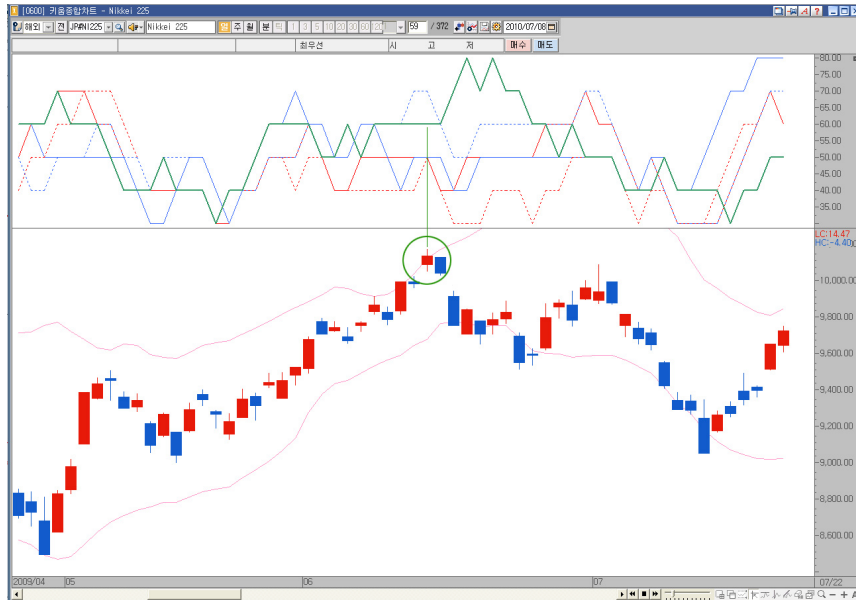
그림 67은 2009년 7월 7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7월 7일의 수급 상태를 보면 거래량의 위치가 맨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가는 장기선의 상단선을 넘지 못했다. 수급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7월 7일의 거래량은 116.83%에 해당한다. 만약 거래량이 늘지 않고 감소했다면 거래량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승을 도모했던 주

체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물리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음봉을 만들어 낸 이유는 아니다. 거래량의 증가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60이 되었고,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50이 되었다. 그 다음 날에 영향을 미치는 매트릭스의 값은 무엇이이었을까? 종가는 1의 영향을 받고 거래량은 0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감소하면 횡보하고 증가하면 상승한다.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주가가 상승하면 횡보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다. 그럼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종가의 투자 심리도는 50까지 상승할 수 있고,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는 60까지 내려갈 수 있다. 결국 수급은 매수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완전 매도라고 한다. 주가와 거래량의 추이에 무관하게 이미 수급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7월 9일날 또 장기선의 상단선을 공략하려 했다. 그러나 수급은 여전히 매수로 돌아서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장기선의 상단선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좋은 자리였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물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물려서 손절해야 하는 폭과 매도 포지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눈을 돌려 해외지수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이번에는 일본 니케이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일본 시장에도 이러한 수급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니케이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저항 사수]



[그림 68. 2009년 6월 12일자 니케이지수 일봉 차트]

그림 68은 2009년 6월 12일자 니케이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보는 바와 같이 6월 12일에서 종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시가를 제외한 모든 가격들이 이미 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시가마저도 매도 상태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제 수급은 매도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장기선의 상단선을 공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6월 12일이 최적의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6일이 되자 수급은 완전히 매도로 돌아서 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장기

선의 상단선이 아닌 하단선에 도달했다. 수급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수급에 힘에 의해 어떤 자리는 허용이 되고 어떤 자리는 허용이 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수급론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아닌 코스피지수를 비롯하여 전 세계 지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매매 기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힘을 분석하게 해주는 원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시장은 각각 다른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장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의 힘을 어떤 보조 지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단 말인가? 스토캐스틱이나 MACD 또는 RSI를 이용해 분석할 것인가? 해외지수의 차트 샘플을 보면 스토캐스틱에 5-3-3이라는 수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스토캐스틱 5-3-3이 무엇인가 특별한 분석의 원리를 담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단지 그것이 시장에 잘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통용되었던 것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식 강의라는 책을 통해 스토캐스틱을 처음 접한 나는 한동안 스토캐스틱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봉 차트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토캐스틱이 봉 차트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스토캐스틱은 봉 차트를 그리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스토캐스틱의 봉 차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토캐스틱 봉의 이동 평균선만을 사용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K선과 %D선이다.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와 똑같은 원리를 봉 차트에 적용해 보자. 봉 차트를 연다. 그리

고 봉 차트에 이동 평균선을 추가한다. 추가한 이동 평균선에 다시 이동 평균을 적용해 선을 생성해 낸다. 이제 봉 차트에 %K선과 %D선이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는 패스트 이동 평균선이고 또 하나는 슬로우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것이다.

스토캐스틱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 보니 이 지표가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스토캐스틱은 그 공식의 특성상 고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값 중 하나라도 변화가 발생하면 스토캐스틱 값은 변하게 된다. 결국 스토캐스틱은 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지표인 셈이다.

내가 스토캐스틱을 어렵게 느낀 이유는 변수의 가짓수 때문이다. 만약 변수의 가짓수가 하나라면 스토캐스틱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강의 중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냥 현상을 설명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수급 내용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수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 준다. 보조 지표의 수치가 얼마이어야 된다는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장이 매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지 매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수급의 상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왜 수급이 매수인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수급이 매도인데 주가가 상승을 할까? 수급이 매도이면 매수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하고 수급이 매수이면 매도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매도를 하기 제일 좋은 지점은 수급이 매수일 경

우이고, 매수를 하기 제일 좋은 지점은 수급이 매도일 경우이다.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수급이 매수이면 주가가 오르기 쉽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 자체가 주가를 비싸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가가 비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주가는 하락한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주기론이다. 즉 매도 단가와 손절 기준점을 통해 수급이 매수인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반대로 수급이 매도일 경우에는 매수 단가와 손절 기준점을 통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한다. 결국 수급을 이용한 전략과 주기를 이용한 전략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에 대해 포지션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지 하나의 룰이 시장에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다가 낭패를 볼 것이다.

시장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해 통찰 방식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분석 방법을 쉽게 만들어야 가치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과 마주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주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분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인 것이다. 사법고시를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낮출 경우 법조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견을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을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만 단지 관련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과 관련 내용들이 쉬워야 한다고 한다. 주가를 분석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어렵다. 수많은 주체들의 이권이 걸려 있고,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의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시장을 분석하는 데 단순히 보조 지표의 수치를 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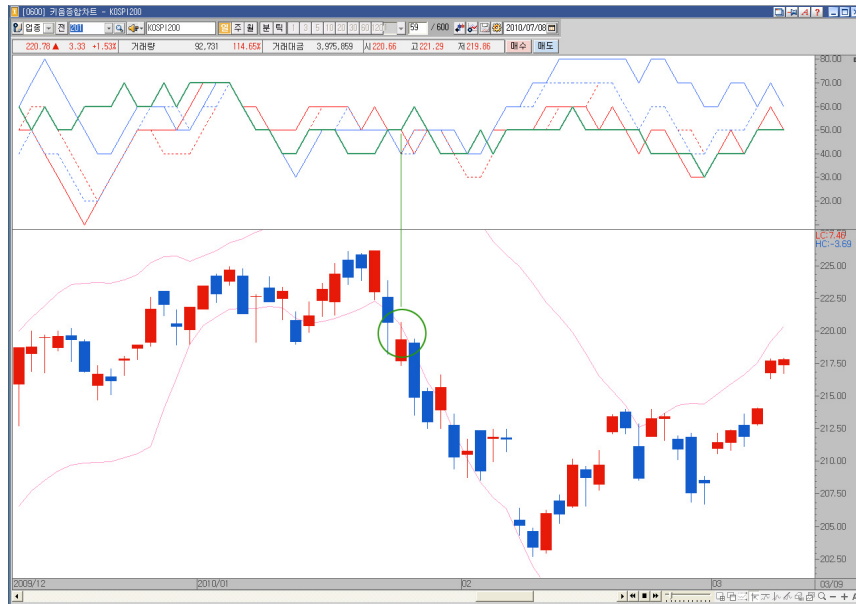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주가는 그런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구조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른바 패턴 매매를 말하는 것이다.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용어처럼 생각된다. 여러분은 아직 체계화된 지식의 힘을 느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고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분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힘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물론 언제나 휩소는 존재한다. 그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평범한 보조 지표 하나에 대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라는 보조 지표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으로 8번째 사례를 검토해보자.

사례 8. 수급이 매도이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가 되지 못한다.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지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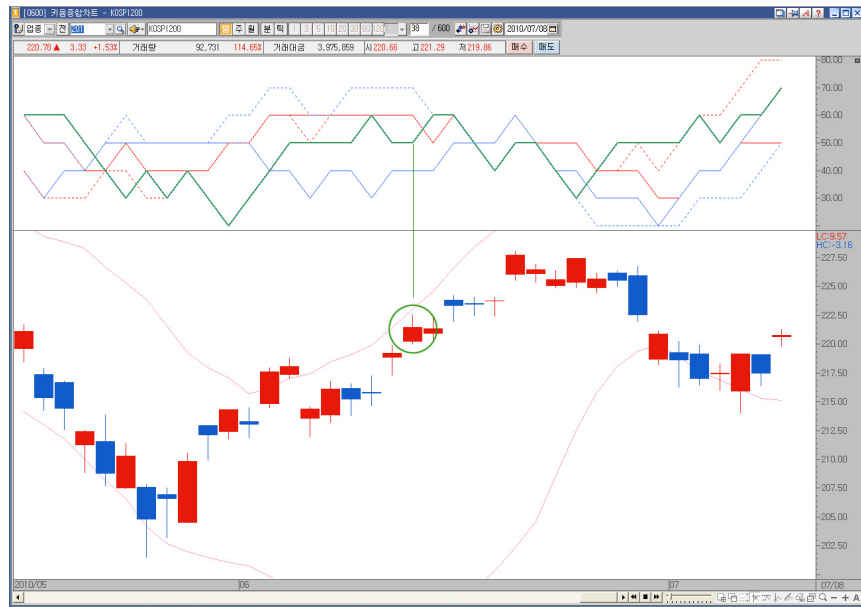


[그림 69. 2010년 1월 25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69는 2010년 1월 25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의 내용은 실제 이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수급이 매도이기 때문에 지지가 붕괴된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1월 28일의 이후의 상황을 보면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급은 매수인데 주가는 추가적인 폭락을 거듭했다. 과연 이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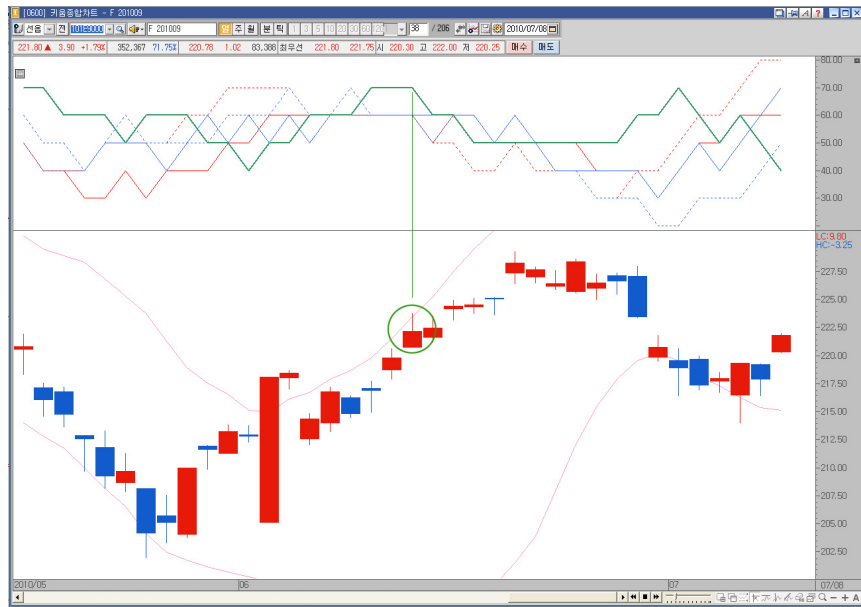
에서 수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 대상이 존재한다. 하나는 코스피 200지수가 독립 개체가 아니라 선물지수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스피 200지수의 수급이 매수이더라도 선물지수의 수급이 매도일 경우 선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코스피 200지수로 보면 터무니없는 것들이 선물지수를 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코스피 200지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선물지수와 늘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고려 대상 중 또 하나는 상위 봉의 역할이다. 하위 봉이 어떤 힘을 갖고 있더라도 상위 봉이 더 큰 힘으로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 하위 봉은 방어적 기재만을 발휘할 뿐 힘 자체를 잃어 버리고 만다. 만약 일봉이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분봉이 반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분봉이 하방을 강하게 보고 있고, 일봉이 상방을 강하게 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봉은 갭상을 할 것이고 분봉은 그 갭상한 봉을 음봉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큰 힘과 작은 힘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2개의 샘플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림 70. 2010년 6월 14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70은 2010년 6월 14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수급 상태를 확인하기 바란다. 매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주가는 저렇게 움직였을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수급이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선의 상단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봉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선물 차트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선물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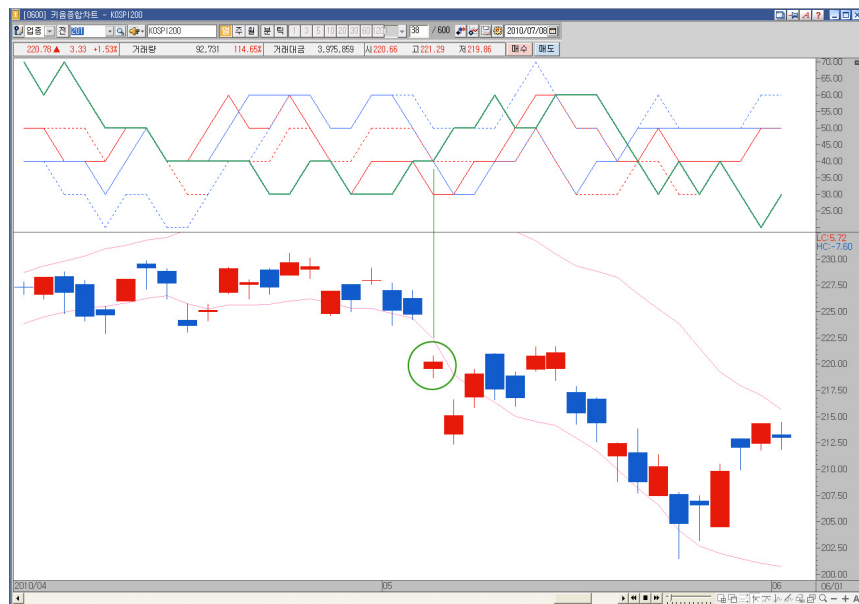


[그림 71. 2010년 6월 14일자 선물지수 일봉 차트]

그림 71은 2010년 6월 14일자 선물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자. 수급이 매도이다. 분명히 코스피 200지수 일봉의 경우 수급은 매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선물지수의 일봉의 경우 매도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장기선의 상단선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로 고가의 위치를 보면 장기선의 상단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선물은 위로 갈 수 없었고, 이러한 힘이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에 전달이 되면서 일봉 차트가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해 준 셈이다. 선물지수의 영향력이 시장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편적인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동일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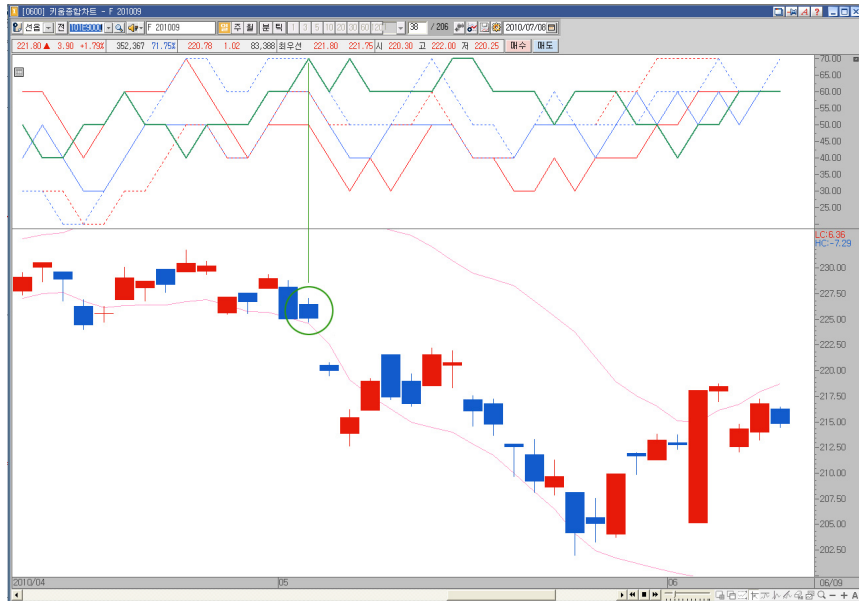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를 통해 보는 저항의 효과 [지지 돌파]



[그림 72. 2010년 5월 6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72는 2010년 5월 6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5월 4일 유럽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한동안 폭락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5월 6일자의 수급은 완전한 매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시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매도세로 전환되었지만 이렇게 강한 하락을 받아들일만큼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어떤 영향들이 더 존재하는 것

일까? 이제 동일한 날짜에서의 선물지수 일봉 차트를 살펴보자.



[그림 73. 2010년 5월 6일자 선물지수 일봉 차트]

그림 73은 2010년 5월 6일자 선물지수 일봉 차트이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물지수는 이미 5월 4일에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선물의 거래 주체들은 초대형 악재가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5월 4일 막판에 거래량을 쏟아부은 것이다. 거래량 128%대가 그것을 말해 준다. 결국 수급은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고, 5월 6일 유럽 악재에 대해 주가가 주저앉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코스피 200지수가 양봉의 형태를 보인 반면

선물지수가 음봉의 형태를 보이는 것도 양쪽의 수급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급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 수급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다. 분봉에서 수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수급에서 어떻게 휩소가 발생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수급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풀어 놓기에는 설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주식은 어차피 어려운 것이기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려 한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씩 터득해 가길 바란다.

이것으로 제1장 미래의 나침반 편을 마무리하려 한다. 여러분은 투자 심리도라는 단순한 보조 지표 하나로 이 정도 분량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표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보조 지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단지 여러분이 보조 지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일 뿐 결코 보조 지표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제2장 판도라의 상자 편이 이어지게 된다. 투자 심리도를 이용해 분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2장 판도라의 상자

데자뷰 차트의 세계

차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차트가 그려 주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차트 속에 담겨 있는 메이저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야 한다.

여러분은 제1장을 통해 투자 심리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였다. 하나의 보조 지표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이상의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조 지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조 지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린다. 또한 대부분의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 파생 시장을 경험해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도깨비 시장인지 금세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금융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박을 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가 만들어진다. 때론 그런 대박을 치기 위해 집을 팔아먹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기도 한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재산을 날리고 나서야 파생 시장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다. 파생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거쳐야 할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나와 공유하자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거절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

공한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한다. 성공한 사람의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길 원한다. 그런데 파생 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하나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상에 어떤 고수도 시장을 지배하는 자 앞에서는 그저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고수가 일반인들에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겠는가?

결국 고수라는 사람들은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자가 시장을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 깨달았을 뿐이다. 그들이 그런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벌떼 같이 몰려든다.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대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여든다. 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한다. 어떤 한 개인의 입장이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엔 거의 없다고 본다. 그의 생각이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들과 우연의 일치로 그 입장이 동일해 졌을 뿐이다.

2007년 어느 날 주가가 2천 대를 구경한 후에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지나 2008년이 도래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 모 증권사 센터장이었던 한 분과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의사 출신의 고수 한 분이 시장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1,500선이 바닥이라고 제시했다. 시장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선이 바닥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500선을 가뿐히 무너뜨리고 900선마저 무너뜨리는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을 이끌어냈다. 현재 위의 두 분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는 위의 두 분이 하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식 시장에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식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단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뿐, 그 외의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가는 단지 시장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뿐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시장을 예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만약 위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아마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악몽의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이 위의 두 분을 향해 보일 태도는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분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 왔을 것이다. 반면 그들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거니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위의 두 분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려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대박을 좇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투자에 대

한 기초 지식조차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타인의 능력을 빌어 고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한다. 공부를 해야만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을 이해해야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진입, 보유, 청산의 과정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학습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부를 하려는 의욕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0년도 초반에 불어닥친 펀드 열풍이 2007년까지 활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펀드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펀드를 통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위험 고지를 가볍게 여겨, 결국 2008년도에 초대형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펀드가 위험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손실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경우 어떻게 펀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다시 펀드 투자를 감행한다고 해도 운이 좋으면 돈을 벌겠지만 운이 나쁘면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란 알고 하는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 정선 카지노에 가면 블랙잭 등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도박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분명히 블랙잭의 규칙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걸면 잃는다. 기초적인 룰을 알아도 도박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식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주식 시장만큼 체계화되지 않는 곳도 없다. 그야말로 합법화된 도박판처럼 느껴진다. 주식 시장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유형들을 패턴화시켜 그것이 대단한 투자 방법인 것처럼 홍보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 방법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나는 주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주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하나 정리를 해 왔다. 무엇보다도 주식을 패턴화시키려는 노력을 피하고 논리적인 분석 기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분석 방법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데자뷰 분석 이론이다. 그러나 데자뷰 분석 이론은 주가를 분석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갖지는 못한다. 데자뷰 분석 이론을 안다고 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데자뷰 분석 이론을 이용해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차트를 만들었다. 데자뷰 분석 이론에 들어 있는 이론을 공식화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트를 HTS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데자뷰 차트(Dejavu chart)라 부르기로 했다. 데자뷰

차트는 투자자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발되었다. 데자뷰 차트에는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봉의 형태, 연속된 봉의 나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원칙 같은 것들은 데자뷰 차트에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처음 데자뷰 분석 이론의 가설을 설정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미래를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데자뷰 차트에 미래를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시켰다.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트릭스이다. 제1장에서 배웠듯이 매트릭스는 매우 강력한 미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매트릭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미래 공식이다. 매트릭스가 시간에 대한 미래 정보를 갖고 있다면, 미래 공식은 가격에 대한 미래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도 다음 봉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 다음 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상당히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렇듯 데자뷰 차트는 미래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공식이 포함된 데자뷰 차트의 내용과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한다.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공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주가는 메이저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지 미래를 보는 권리밖에 얻을 수 없다.

잠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데자뷰 차트에서 소개되는 P차트와 T차트에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로직이 들어 있다. 바로 미래를 보여 주는 공식이다. 미래를 보여 주는 공식이 존재할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런 공식을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며, 그것이 무엇을 보여 주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원래 T차트와 P차트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공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단기선과 장기선으로 구성되어, T차트는 추세를, P차트는 가격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금의 붐이 아닌 다음 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상태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힘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공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한 상태로 개발을 마쳤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식의 특성상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에 없었다. 그 덕에 그래프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선이 정교하지 못하고 약간 두루뭉술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불완전한 공식의 결함을 찾게 되어 공식의 결함을 수정할 수 있었다. 공식의 결함을 수정함과 동시에 좀 더 멀리 있는 미래의 정보까지 볼 수 있는 변형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데자뷰 차트에는 이렇게 탄생한 미래를 보는 공식이 들어 있다. 따라서 현재 봉이 아닌 다음 봉의 지지의 위치와 저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것이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말에 정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수치를 조정한 것이 아니다. 2.0이라는 숫자를 1.8로 바꾸거나 2.2로 바꿔서 만들어 낸 조잡한 공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단지 여러분은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 유사성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래프 간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만들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을 보기 위해 공식을 만든 것인지 말이다.

데자뷰 차트에 적용한 미래의 공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관점에서 다음 봉의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점에서 다다음 봉의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지지와 저항의 매커니즘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데자뷰 차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데자뷰 라는 말은 Already seen의 의미이다. 그래서

데자뷰 차트에서는 다음 봉의 지지의 위치와 저항의 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속 많은 것들이 단지 그런 시도를 해 보지 않았고 그런 시도를 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마음을 열고 차트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데자뷰 차트를 이해하려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데자뷰 차트에는 여러분이 경험으로 터득했던 것들을 거의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루고 있는 봉의 형태나 패턴 같은 것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인 눌림목의 개념도 없거니와 골드크로스나 데드크로스와 같은 사항도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 MACD나 RSI 같은 지표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지표들은 여러분에게는 정말 생소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던 지표일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보조 지표에 대한 지식은 한계를 갖고 있다. 과일과 침체처럼 일정한 수치에 대한 정의와 그런 정의를 통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차트는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패턴 같은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패턴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1장을 통해 보조 지표가 갖고 있는 심오한 내용들을 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보조 지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넓은 시각을 제공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보조 지표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협소했었는가를 실감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보조 지표는 고작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를 연구해 보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여 연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단지 보조 지표가 갖고 있는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식을 응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여지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보조 지표를 추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도 많은 보조 지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보조 지표에 대해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한다. 제대로 연구해 보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식을 폭넓게 보유하는 것보다 한 가지 지식을 깊이 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정말 미래를 여는 공식이 있을까?

이제 P차트와 T차트의 세계를 한번 구경해 보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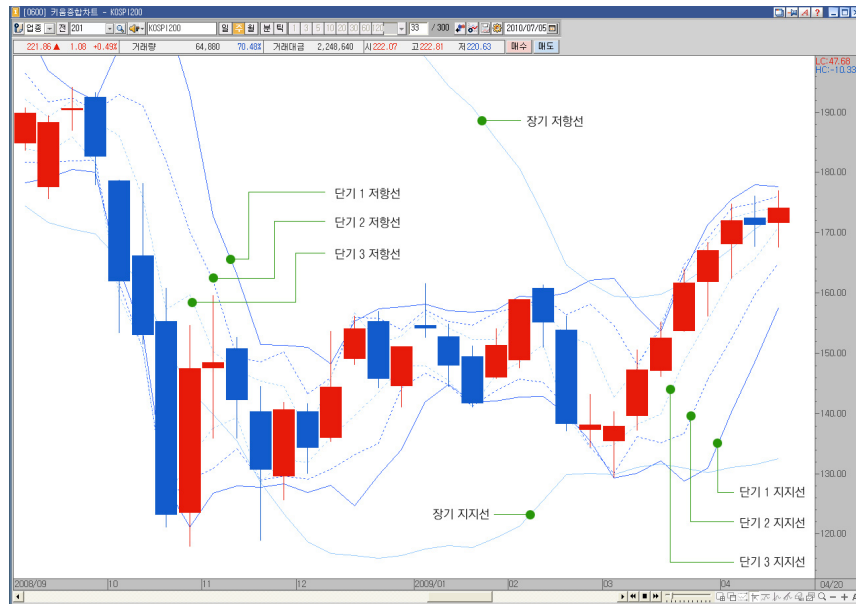
가격의 진실 P차트

주가에는 지지가 되는 위치와 저항이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메이저들은 그 위치를 잘 이용해 가면서 주가를 조작한다. 가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P차트를 통해 보려는 세상의 모습이다. 가격의 진실을 P차트를 통해 이해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 주가가 싸다고 판단되면 오르고, 충분히 올라서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내리는 것이다. 이렇듯 주가가 일정한 힘에 의해 균형을 맞추려는 속성을 이용해 만든 그래프가 바로 가격 차트(Price chart)이다. 가격 차트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 Price의 이니셜을 이용해서 P차트라 부른다. P차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와 동일하다. 그러나 P차트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4개의 선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P차트를 볼린저 밴드라고 부르지 않고, 별도의 용어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P차트를 사용하다 보면 볼린저 밴드와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P차트를 볼린저 밴드처럼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볼린저 밴드의 이용법을 적용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럼 P차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P차트에는 단기선이 6개, 장기선이 2개 존재한다.



[그림 74. P차트의 구성 요소]

장기선의 경우, 수급론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다.

단기선 중 3개는 상단선이고 3개는 하단선이다. 일반적으로 상단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하단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선은 선의 각도에 의해 주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단기선 각각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단기선의 상단선 3개

단기1 저항선

- 단기1 저항선은 현재 봉의 저항의 위치와 각도를 보여 주는 선이다.

단기2 저항선

- 단기2 저항선은 현재 봉 기준으로 다음 봉의 저항의 위치를 보여 준다.

단기3 저항선

- 단기3 저항선은 현재 봉 기준으로 다다음 봉의 저항의 위치를 보여 준다.

저항선의 경우, 각도가 하향일 때 누르는 힘이 강하고, 상향일 때는 누르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항선이 하향일 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고, 저항선이 상향으로 변경될 때에는 매도 포지션을 포기해야 한다.

단기선의 하단선 3개

단기1 지지선

- 단기1 지지선은 현재 봉의 지지 위치와 각도를 보여 주는 선이다.

단기2 지지선

- 단기2 지지선은 현재 봉 기준으로 다음 봉의 지지의 위치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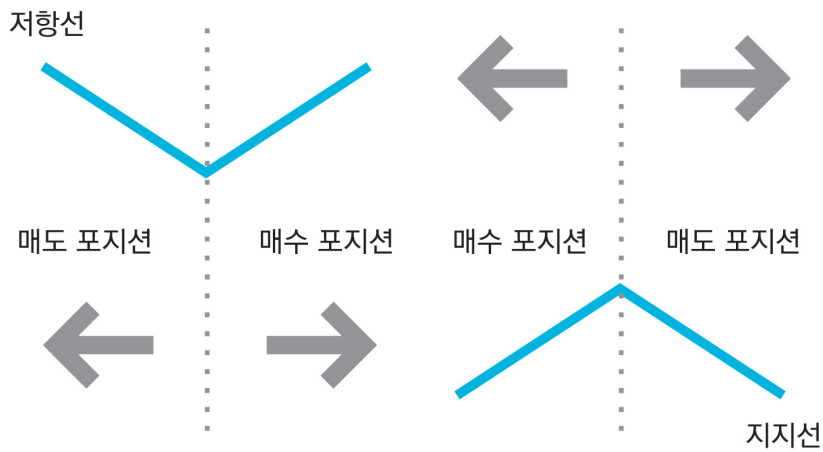
단기3 지지선

- 단기3 지지선은 현재 봉 기준으로 다다음 봉의 지지의 위치를 보여 준다.

지지선의 경우 각도가 상향일 때 올리는 힘이 강하고, 하향일 때는 상대적으로 그 힘이 약화된다.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지선이 상향일

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고, 지지선이 하향으로 변경될 때 매수 포지션을 포기해야 한다.

그럼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75. P차트의 지지/저항의 형태]

그림 75는 저항선의 형태와 지지선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저항선이 하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도 포지션의 관점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변곡이라는 지점을 거치면서 하향화되어 있던 저항선이 상향으로 전환하면 종전에 유지했던 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 매도 포지션의 경우 저항선의 위치가 매도의 진입 가격이 되지만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되면 저항선의 위치는 매도 진입 가격의 기준으로 매수 진입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로 지지선 역시 지지선이 상향을 하고 있는 경우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하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매수 포지션을 철회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의 전환은 아무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P차트의 단기선들이 방향을 선회하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단기선이 3개씩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태 변화는 최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가장 빠르게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단기3에 해당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다. 왜냐하면 이 선은 현재 봉의 다다음 봉에 해당하는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면 순차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방향이 선회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는 방향이 선회하는 시점에서 P차트를 활용하게 된다.

P차트를 사용하게 되는 사례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추세가 하방인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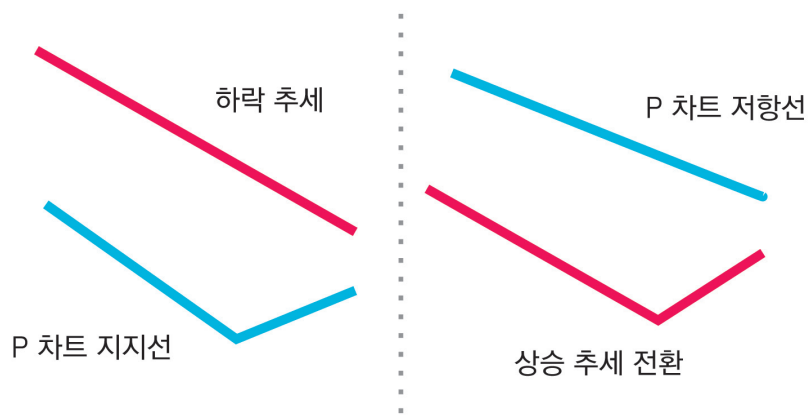
두 번째.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 추세가 상방인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해야 하는 경우

네 번째.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가가 반등해야 하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P차트는 활용하지 않는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림 76. P차트의 활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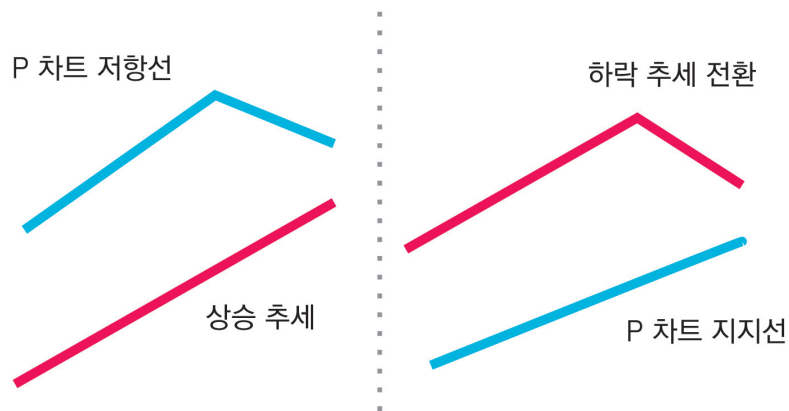
첫 번째. 추세가 하방인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해야 하는 경우

추세가 하방인 경우, P차트의 지지선의 방향 또한 하방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되면 P차트의 지지선은 하방인 아닌 상방으로 전환한다. 이때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P차트의 지지선이 매수의 포인트가 된다.

두 번째.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그런데 이미 주가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에 대한 기회를 놓쳤고,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 매수하기에 부담인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P차트의 저항을 이용한다.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추세만 변경될 뿐 P차트의 방향이 상방으로 전

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매도에 관심이 있다면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P차트의 저항선의 위치가 매도 포인트가 된다.



[그림 77. P차트의 활용법 2]

세 번째. 추세가 상방인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해야 하는 경우

역시 추세가 상방인 경우에는 P차트의 저항선의 방향도 추세와 함께 움직인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P차트의 저항선이 먼저 하향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이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좋은 매도 포인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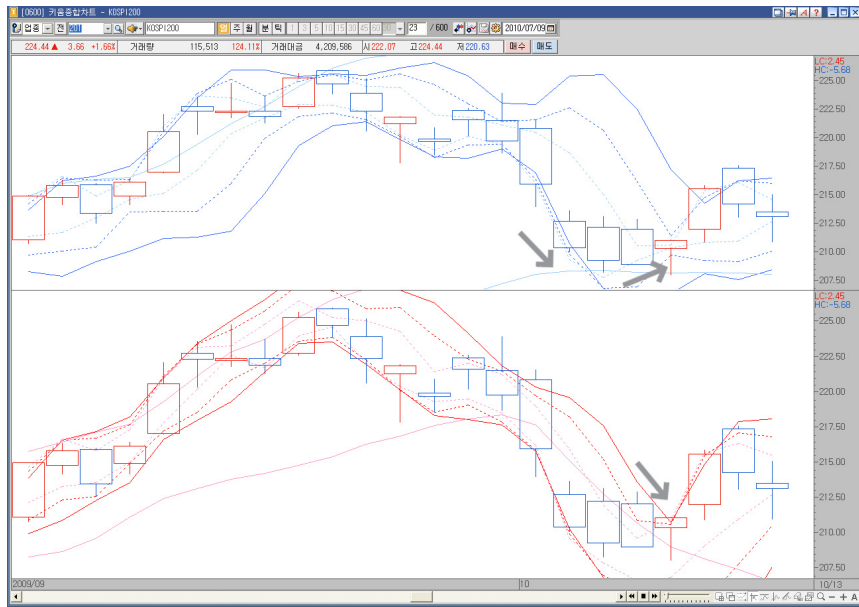
네 번째.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가가 반등해야 하는 경우

추세가 하락 전환을 시도하는 와중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P차트의 지지선을 이용하면 된다.

위의 4가지 경우를 이용하는 데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

우선 추세란 상당히 강한 시장의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의 힘에 역행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P차트를 이용한 거래 방법이다. P차트를 이용한 거래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수익성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높다. 왜냐하면 P차트는 추세의 힘과 반대 방향에서 있어 P차트의 지지나 저항이 추세를 무너뜨리는 경우, 막대한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P차트 이용의 편리한 점은 P차트가 알아서 그래프를 그려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P차트를 아무 고민 없이 그려 주는 신호에 따라 반응만 하면 된다.

이제 위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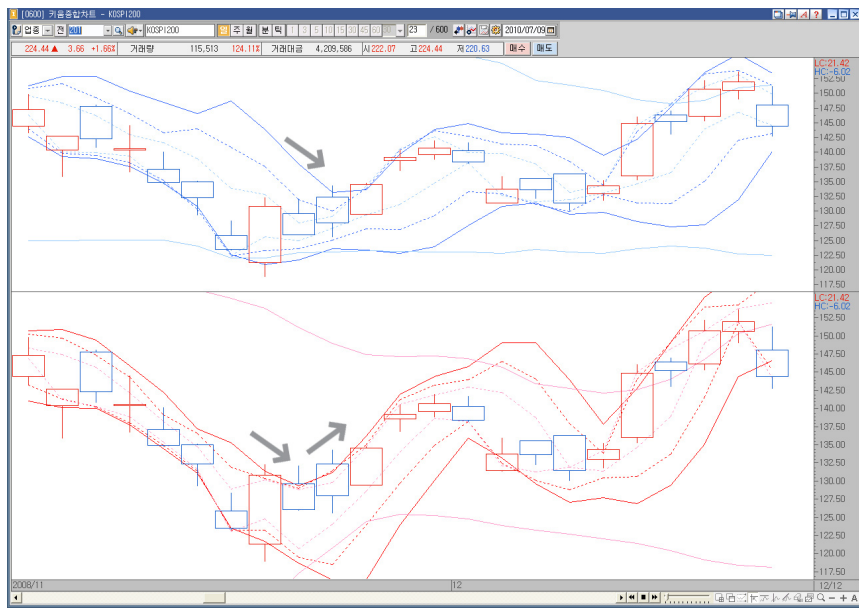


[그림 78. P차트 지지선의 상승 전환]

그림 78은 2009년 10월의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P차트의 그래프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다음에 배우게 될 추세를 나타내 주는 T차트이다.

추세를 보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P차트의 지지선의 방향도 추세의 방향과 같다. 이런 경우 매수세가 살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009년 10월 7일 P차트의 지지선을 보면 무엇인가 강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차트의 단기3 지지선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러나 추세를 보면 10월 8일까지 하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차트의 상승은 10월 7일부터이고 T차트의 상승 추세 전환

은 10월 9일이다.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세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지점을 P차트가 자동으로 알려 준다. 물론 매수세가 매도세와 싸우다가 대패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된다.



[그림 79. P차트 저항선의 하락 유지]

그림 79는 2008년 11월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P차트의 속성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P차트의 경우 T차트의 지지/저항에 대비해서 같은 속성의 경우 느리게 움직이고 다른 속성의 경우 빠르게 움직인다. 좀 더 풀어 쓰면, T차트의 저항

선이 기준이면 T차트의 저항선이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P차트의 지지선이 먼저 상방으로 전환하고, P차트의 저항선은 T차트의 저항선이 상방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상방으로 전환된다. 이런 시차 또는 속도 차이에 의해 P차트를 이용해 매매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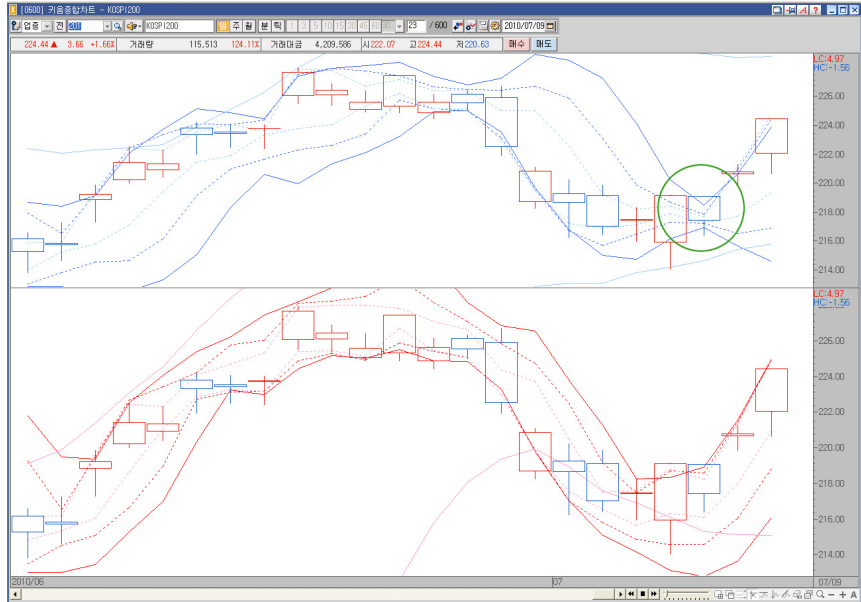
그림 79의 내용은 P차트의 저항선이 T차트의 저항선보다 늦게 변곡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항의 힘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시점이 11월 24일이므로 11월 23일까지는 추세가 상방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P차트의 저항선의 방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1월 25일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차트의 저항은 아직도 하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 지점에 충돌하면서 강한 하락이 온 것이다. 이런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P차트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2010년 7월 7일 만기일을 하루 앞둔 수요일의 상황을 보면 2008년 11월 25일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게 되어 있다. 주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단계를 거쳐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010년 7월 7일의 상황은 화면을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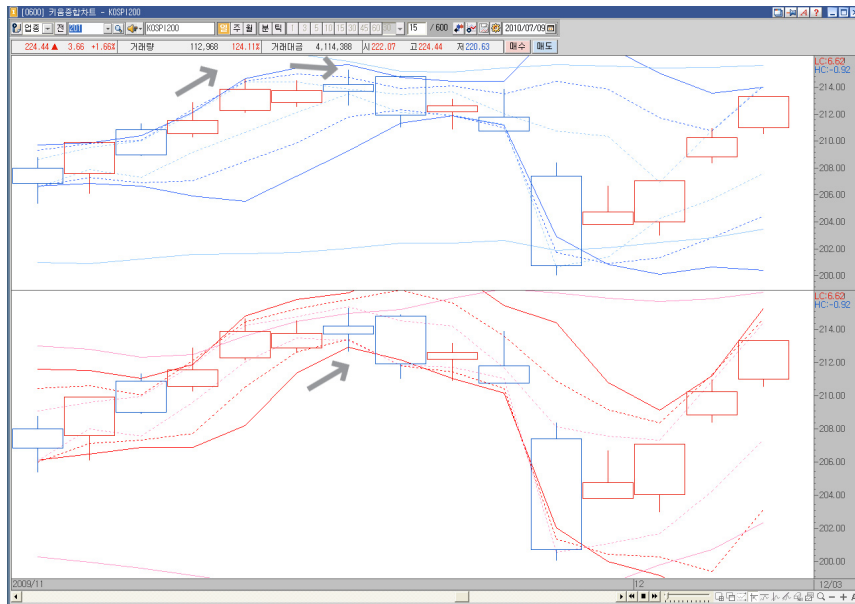


[그림 80. 2010년 7월 10일자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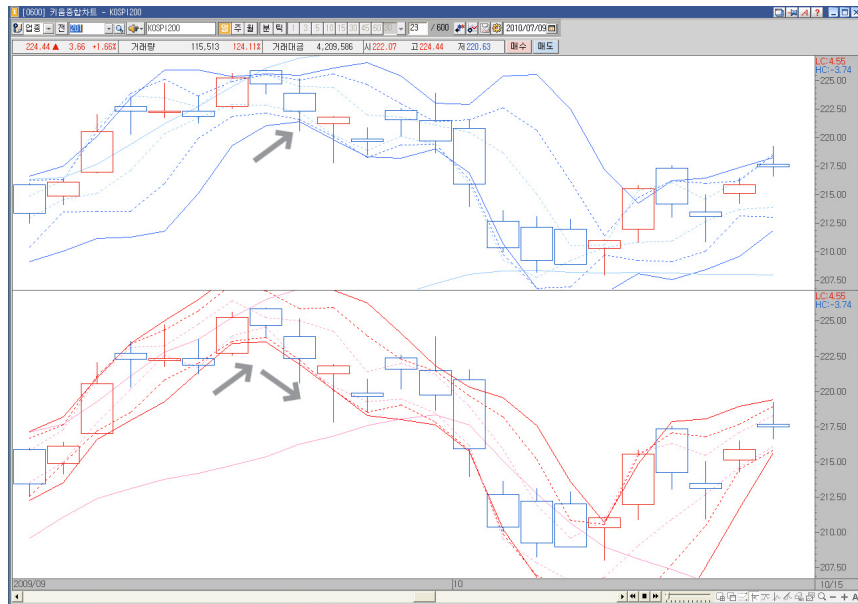
첫 번째 방법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세 전환보다 미리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세 전환보다 미리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더라도 P차트의 저항선이 하방을 보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림 81은 2009년 11월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1. P차트 저항선의 하락 전환]

T차트의 지지선이 11월 23일까지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P차트의 저항선은 11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방을 보기 시작했다. 따라서 매도 포지션의 구축은 하방을 보기 시작한 11월 20일 이후이다. 11월 20일 이후의 주가가 P차트의 저항선과 충돌하게 되면 투자자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11월 20일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11월 24일의 음봉으로 인해 추세마저 하방으로 꺾여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11월 20일 이후에 P차트의 저항선에 매도 진입을 시도했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82. P차트 지지선의 상승 유지]

그림 82는 2009년 9월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추세는 9월 23일 기점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P차트의 지지선은 상방을 유지한 채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P차트의 지지선은 T차트의 지지선보다 변화가 늦다. 따라서 이 경우 T차트로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은 투자자는 P차트의 지지선을 이용해 포지션을 구축한다.

지금까지 P차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P차트를 이용하는 데 가격의 위치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다. 또한 P차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T차트와 연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P차트만을 대상으로 학습해서는 곤란하다. T차트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T차트와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차트에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두 개의 선이 존재한다. 단기3에 해당하는 지지선/저항선과 단기2에 해당하는 지지선/저항선이다. 여러분은 이 선들의 방향을 통해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주가에 변화가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럼 P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추세를 다루는 T차트를 배워 보자.

11

추세 대응 T차트

사람들은 추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일 뿐 추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T차트는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세 분석 차트이다. 이제 T차트를 통해 추세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 바로 추세 추종 투자이다. 추세를 추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추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추세를 추종할 수가 있다.

우선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추세 [trend, 趨勢]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정체·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

추세의 정의에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장기간'이라는 단어이다. 추세는 단순히 국지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시간 동안 누적된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는 항상 오랜 기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추세는 영어로 Trend이다.

Trend는 ‘추세’라는 뜻 외에 ‘동향, 유행’ 같은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패션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나는 패션에 대해 그리 좋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 해의 유행을 따라 코디하기에 바쁘다. 그럼 그런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옷을 입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유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유행에는 이유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추종하는 것이 바로 유행이다. 이렇듯 유행의 의미를 공유하는 추세 또한 동일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주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그쪽으로 간다. 이유는 없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행이고 대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추세 추종 투자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럼 추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대다수는 추세를 분석하는 데 이동 평균선을 사용한다. 이동 평균선이 추세와 관련이 깊은 이유는 바로 추세의 정의에 근거한다. 장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평균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동 평균선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을 알고 있다. 이동 평균선이 추세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단지 한 종류의 이동 평균선이 추세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동 평균선은 증가에도 존재하지만 시가에도 존재하며 고가에도 존재하고 저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증가의 이동 평균선만을 두고 추세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물론 이동 평균선에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동 평

균선이 보여 주는 현상만을 보면서 추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추세를 보여 줄 수 있는 별도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설에서 시작하여 수개월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를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래프를 고안해 냈다.

이 그래프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Trend의 이니셜을 붙여서 T차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T차트는 추세를 보여 주는 차트이다. 그러나 다른 차트와 달리 T차트는 추세의 방향과 추세의 강도 그리고 추세의 정확한 위치까지 표시해 준다. 또한 추세가 바뀌는 상황도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 준다.

추세를 이해하는 데 두 가지 키워드가 존재한다.

첫째는 관성이 없는 추세 전환이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추세란 어느 한 지점에서 강한 힘을 받아 그 힘이 소실되는 지점까지 미치는 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만약 여러분이 야구공을 힘차게 던진다면 이미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순간 에너지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에 남아 있는 운동 에너지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마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되는 순간 공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관성이 없는 추세 전환이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모두 소모되어 버린 시점을 의미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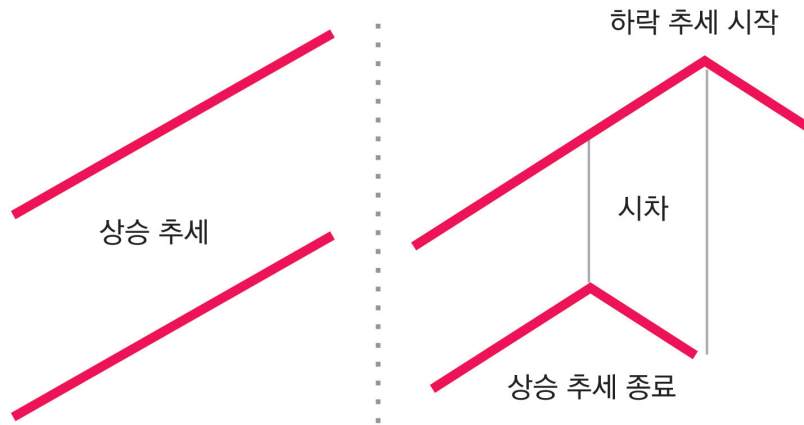
만약 현재의 추세가 하방이고 이를 하락 추세라고 부른다면, 상승 추세가 생기기 전에 하락 추세가 끝나야 한다. 즉 상승 추세를 추종하는 것보다 하락 추세가 끝나는 순간이 훨씬 더 추세 추종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단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의 한복판에서 올라타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를 추종한다는 의미는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전략 또한 추세를 추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관성이 있는 추세의 지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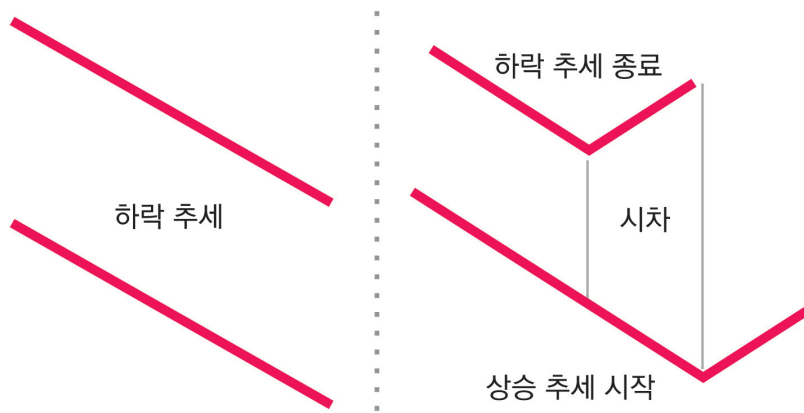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추세라고 하는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의 방향이 소실되기 전까지 추세는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그 추세의 형태가 지속되는 한 추세선을 이용한 전략을 펼 수가 있다.

단, 추세의 지속이 끝나는 지점이 오면, 더 이상 추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추세의 끝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위의 두 가지 경우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림 83. T차트 추세에 대한 이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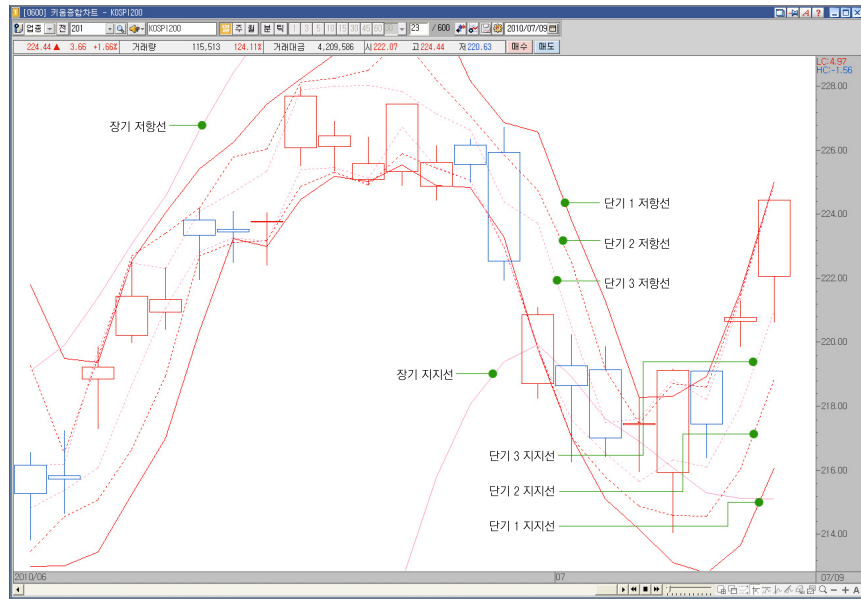
[그림 84. T차트 추세에 대한 이해 2]

상승 추세의 경우, 상승 추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또한 하락 추세의 경우에도 하락 추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시간으로 보면 추세 종료가 먼저 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앞서 잡을 수 있다. 반면 추세선의 위치로 볼 때 가격은 추세 종료가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으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는다. 따라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주가와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가야 사람들이 추세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지 눈으로 보이는 시차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시차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실제 추세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T차트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T차트는 장기선 2개와 단기선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선의 경우 수급론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다. 단기선 6개는 다시 저항선 3개와 지지선 3개로 나뉜다. 그리고 저항선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 지지선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P차트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다. T차트 또한 방향과 각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각도에 따라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저항선이 상방을 보는 순간 매도 포지션을 철회한다. 또한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지지선이 하방을 보는 순간 매수 포지션을 철회한다.



[그림 85. T차트의 구성 요소]

그림 85는 T차트의 실제 화면이다.

T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자.

단기선의 상단선 3개

단기1 저항선

- 단기1 저항선은 현재 봉의 저항의 위치와 각도를 보여 주는 선이다.

단기2 저항선

- 단기2 저항선은 현재 봉을 기준으로 다음 봉의 저항 위치를 보여 준다.

단기3 저항선

- 단기3 저항선은 현재 봉을 기준으로 다다음 봉의 저항 위치를 보여 준다.

단기선의 하단선 3개

단기1 지지선

- 단기1 지지선은 현재 봉의 지지 위치와 각도를 보여 주는 선이다.

단기2 지지선

- 단기2 지지선은 현재 봉을 기준으로 다음 봉의 지지 위치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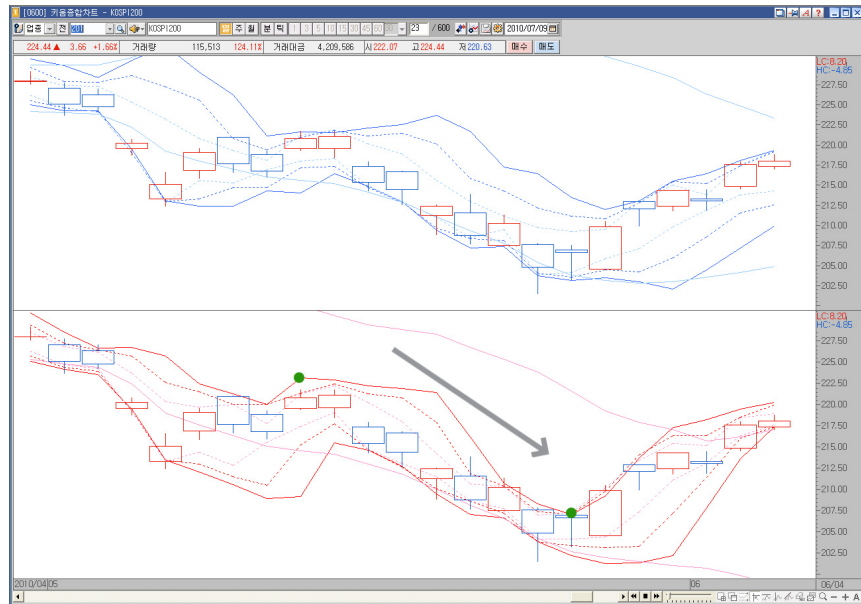
단기3 지지선

- 단기3 지지선은 현재 봉을 기준으로 다다음 봉의 지지 위치를 보여 준다.

T차트와 P차트는 서로 다른 그래프일뿐이지 구성 요소와 특징은 동일하다.

그럼 T차트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사례 1. 저항이 시장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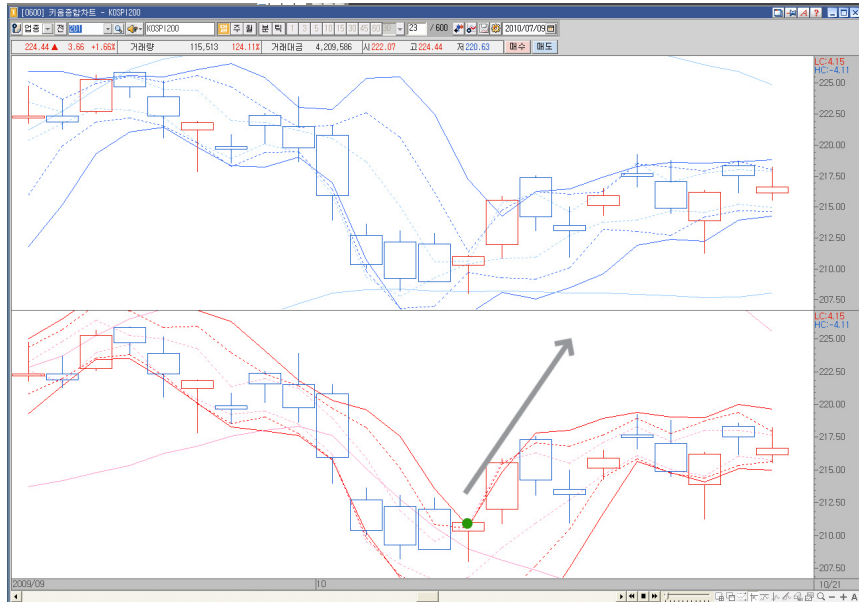


[그림 86. T차트의 저항 강세]

그림 86은 2010년 5월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5월 12일에 잠시 하락 추세가 멈췄다가 다시 5월 13일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시작하고 있다. 이후 저항선의 방향을 보면 모두 하방이다. 그리고 이 저항이 끝나는 지점은 5월 26일이다. 그림 8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락 추세는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다. 이 경우 주가가 저항선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시도한다. 저항선이 살아 있다는 의미는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항선과 충돌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저항선이 하향이 되었다고 지지선에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지 못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추세가 하방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 서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5월 24일 시가에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하루 종일 손절의 유혹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시가가 207.5이고 고가가 211.35였다는 것만 봐도 손실은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과연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만큼 투자자가 용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저항선의 위치를 이용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사례 2. 저항이 끝나면 매도는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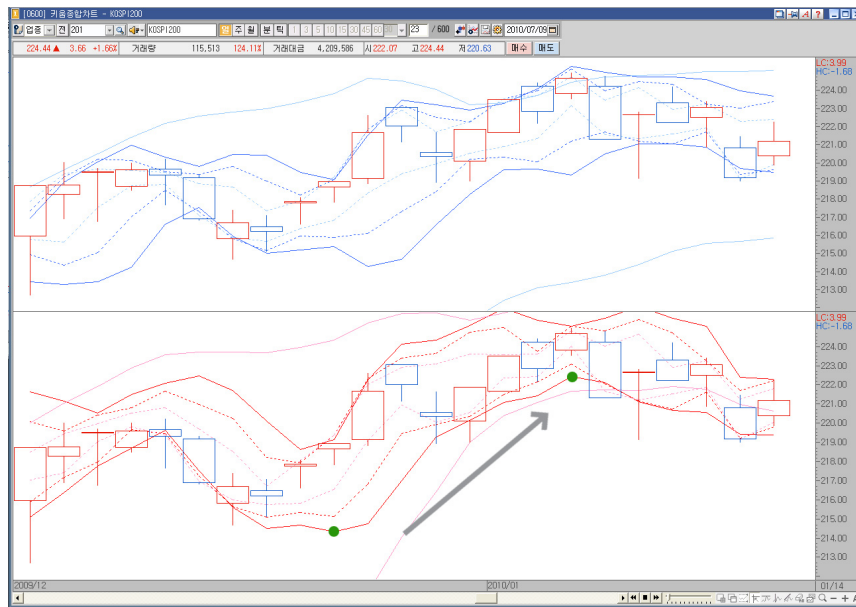


[그림 87. T차트의 저항 소멸]

그림 87은 2009년 10월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T차트의 저항선을 보면 2009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상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갈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다. 결국 매도가 가능한 날짜는 10월 8일이 마지막이며, 만약 10월 8일에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종가에 손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10월 8일 이후부터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 저항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위로 갈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지지

선의 위치를 찾아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사례 3. 지지가 시장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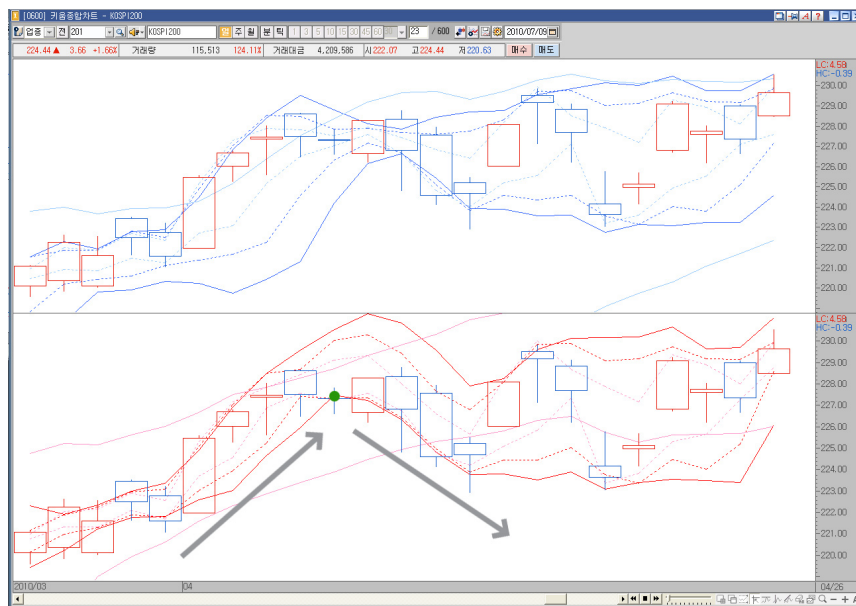


[그림 88. T차트의 지지 강세]

그림 88은 2009년 12월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지지선을 보면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상방으로 선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지지선은 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지지선이 상방인 상황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주가가 지지선과 충돌하는 시점은 12월 29일부터이다. 그리고 지지선이 하방으로 방향을 바꾼 날은 2010

년 1월 7일이다. 따라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6일까지는 지지선을 활용한 매수 포지션 구축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차트를 보고 있는 순간에는 과거나 아닌 현재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사례 4. 지지가 끝나면 매수는 죽는다.



[그림 89. T차트의 지지 소멸]

그림 89는 2010년 4월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

다. 4월 이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는 4월 7일을 기점으로 지지선이 하방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지지선이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매수 포지션은 모두 정리해야 한다. 4월 8일과 4월 9일에 발생하는 주가의 움직임은 T차트가 아닌 P차트의 지지선이 아직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지지선이 하방을 보는 순간 투자자는 매수 포지션을 접어야 한다. 다만 낙폭과대로 인해 P차트의 지지선까지 주가가 회귀하는 경우에는 T차트가 아닌 P차트의 활용 전략에 의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제 T차트에 대한 내용도 모두 설명했다.

T차트는 추세라는 개념 때문에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T차트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P차트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T차트의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다면 주가는 T차트의 저항선까지 움직이려 하고 P차트의 저항선이 있는 위치까지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한다. 또한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는 P차트의 지지선이 있는 곳까지 가려 하지 않는다. T차트의 지지선을 두고 P차트의 지지선까지 주가가 이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지선이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T차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12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보조 지표를 통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과매도와 과매수의 값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가는 보조 지표의 과매수와 과매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실제 주가의 파동을 이해하려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의미 및 활용법을 이해해야 한다.

주가가 움직일 때 이것이 과한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 근거해서 과한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조 지표의 일정 수치를 벗어났을 경우 과매수 또는 과매도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보조 지표들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보조 지표가 보여 주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의 정보는 보조 지표에 해당하는 정보일뿐이지 주가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격도의 경우, 과열을 105정도로 정의하고 침체를 98 또는 95로 정의해 놓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격도의 과열 105가 실제로 과열에 해당하는 값이 맞는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다. 단지 보조 지표의 통계 특성을 이용해 수치를 정한 것뿐이지 그로 인해 실제 주가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다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RSI와 MACD의 경우 모두 이와 동일하다. 주가가 그런 환경에 있

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조 지표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 지표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실제 주가와 동일하게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P차트와 T차트는 보조 지표의 공식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봉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 지표의 수치가 아닌 봉 차트의 수치를 이용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과매도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과매수가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를 과매수라 정의하고 주가가 과매도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를 과매도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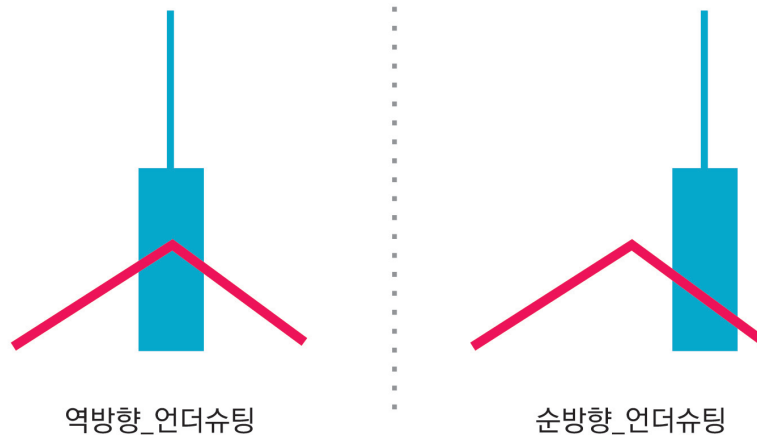
이것을 데자뷰 차트에서는 별도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다.

오버슈팅은 과매수 상태를, 언더슈팅은 과매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구조에 따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구분한다. 순방향과 역방향은 투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만 한다.

또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단일 봉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것이지 연속된 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단일 봉에서 청산의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한다.

그럼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언더슈팅[Under Shooting]



[그림 90. 언더슈팅의 종류]

그림 90은 언더슈팅의 종류를 나타낸다. 역방향 언더슈팅은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순방향 언더슈팅은 지지선이 이미 하방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에서 주가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언더슈팅의 특징은 지지선보다 주가의 위치가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보조 지표에서 다루는 과매도의 기준은 일정한 수치이지만 데자뷰 차트에서 다루는 과매도 즉 침체의 기준은 주가의 위치가 지지선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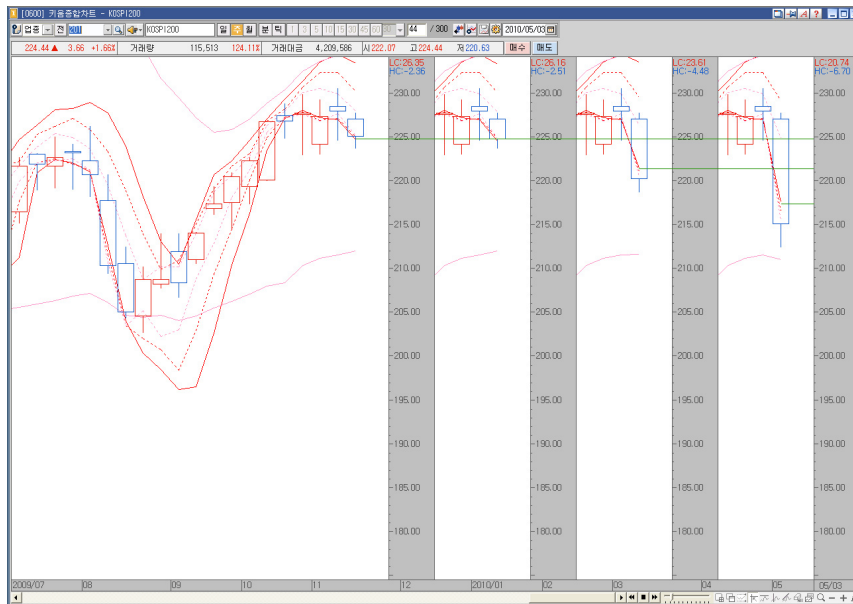
따라서 언더슈팅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내릴 수 있다.

주가의 위치 < 지지선의 위치

여기에서 지지선은 P차트의 지지선일 수도 있고, T차트의 지지선일 수도 있다. 또한 단기1 지지선일 수도 있고, 단기2 지지선일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단기3 지지선일 수도 있다. 이것은 차트에서 처한 현실이 어떤 지지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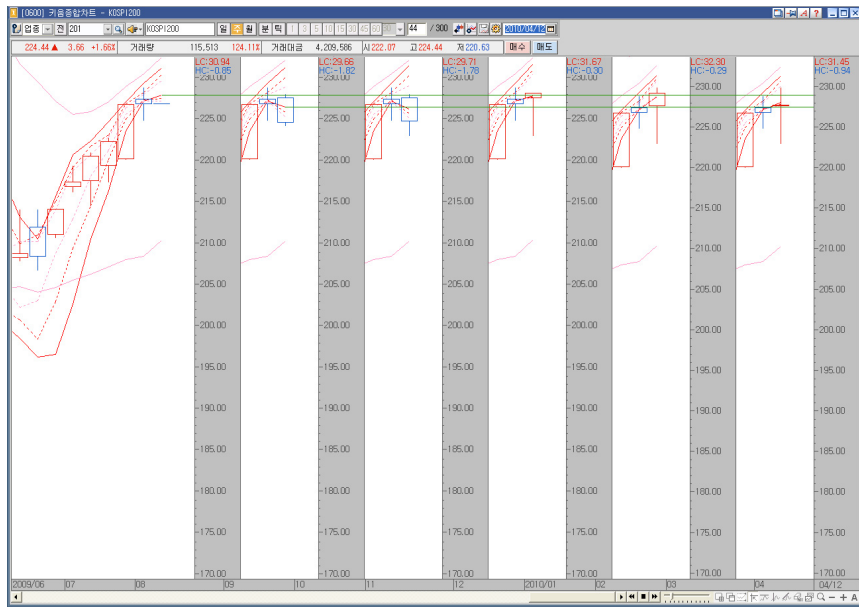
역방향 언더슈팅의 경우, 주가의 회귀율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누르는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지지의 힘 또한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를 만들게 되면 강한 반등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이다. 반면 순방향 언더슈팅의 경우에는 주가가 가려는 방향과 지지선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언더슈팅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럼 순방향 언더슈팅과 역방향 언더슈팅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림 91. 순방향 언더슈팅]

그림 91은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의 날짜별 주봉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4개의 화면이 존재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언더슈팅의 위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림 이쯤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일까? 목요일 상황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가는 더 하락했고, 언더슈팅의 위치 또한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가 있다. 그럼 목요일 기준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러나 결국 금요일에 주가는 더 내려갔고, 언더슈팅의 위치 역시 더 내려갔다. 그리고 종가는 언더슈팅 상태에서 마무리되었다. 순방향 언더슈팅은 매수 진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림 92. 역방향 언더슈팅]

그림 92는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날짜별 주봉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총 5일이지만 추가 설명을 위해 4월 9일에 본 월요일 지지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두었다. 4월 12일에 생성된 언더슈팅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다소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요일의 증가가 언더슈팅의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어떨까? 화요일이 되자 주가가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언더슈팅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상황만을 보면 5월 3일과 5월 4일의 경우와 그렇게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4월 14일이 되자 전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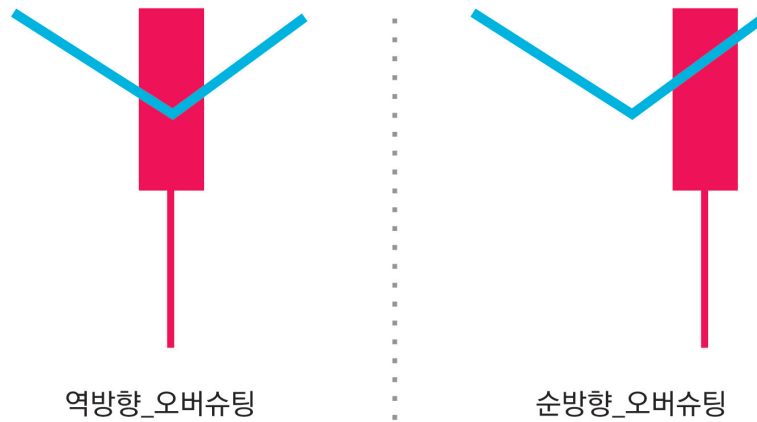
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가 언더슈팅의 상태를 벗어나 버렸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더욱더 높은 곳까지 상승을 했다. 4월 16일 금요일 종가를 보면 아쉽게도 완벽하게 언더슈팅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언더슈팅의 상태가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순방향 언더슈팅과 역방향 언더슈팅의 차이점을 찾았는가?

순방향 언더슈팅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언더슈팅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은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될 뿐이지 결과적으로 어느 위치가 언더슈팅의 자리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반면 역방향 언더슈팅의 경우 언더슈팅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순방향 언더슈팅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 반면 역방향 언더슈팅은 충분한 언더슈팅의 상태에 주가가 진입하게 되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여 언더슈팅이 해소되는 지점까지를 청산 목표로 삼는다. 특히 순방향 언더슈팅의 경우 진행 방향으로 더욱 강하게 나아가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취한 뒤에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쉽게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오버슈팅에 대해서 알아 보자.

오버슈팅[Over Shooting]



[그림 93. 오버슈팅의 종류]

그림 93은 오버슈팅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역방향 오버슈팅은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순방향 오버슈팅은 저항선이 이미 상방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에서 주가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오버슈팅의 특징은 저항선보다 주가가 더 높게 위치한다는 것이다. 보조 지표에서 다루는 과매수의 기준은 일정한 수치이지만 데자뷰 차트에서 다루는 과매수 즉 과열의 기준은 주가의 위치가 지지선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릴 수 있다.

주가의 위치 > 저항선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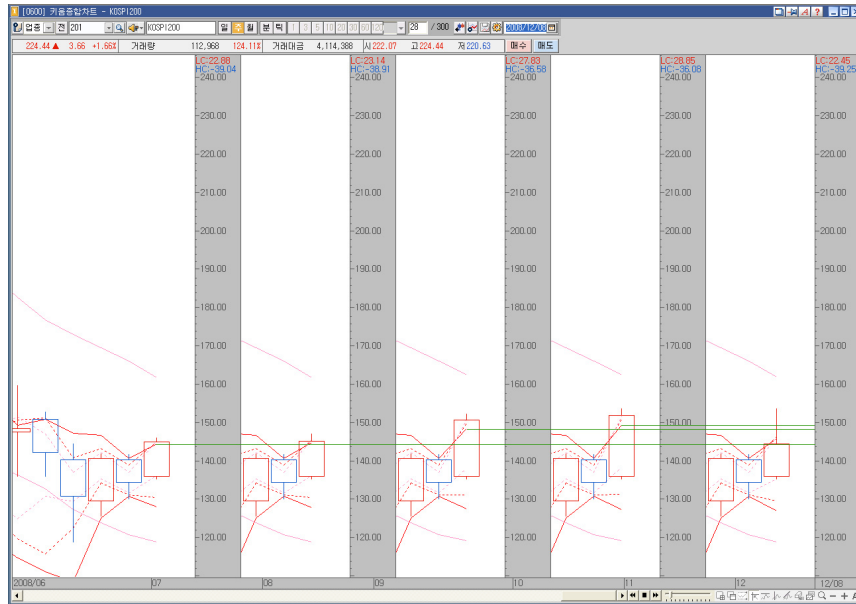
여기에서 저항선은 T차트의 저항선일 수도 있고, P차트의 저항선일 수도 있다. 또한 단기1 저항선일 수도 있고, 단기2 저항선일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단기3 저항선일 수도 있다. 차트에서 처한 현실이 어떤 저항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역방향 오버슈팅의 경우, 주가의 회귀율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저항선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올리는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저항의 힘도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를 만들게 되면 강한 조정이 나오기 쉽다. 반면 순방향 오버슈팅의 경우 주가가 가려는 방향과 저항선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역방향 오버슈팅의 경우, 매집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변화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역방향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되돌림 현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가장 좋은 매도 기회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끔은 오버슈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항선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보통 '변곡'이라고 부른다. 변곡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버슈팅에 의해 생성된다.

그럼 순방향 오버슈팅과 역방향 오버슈팅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

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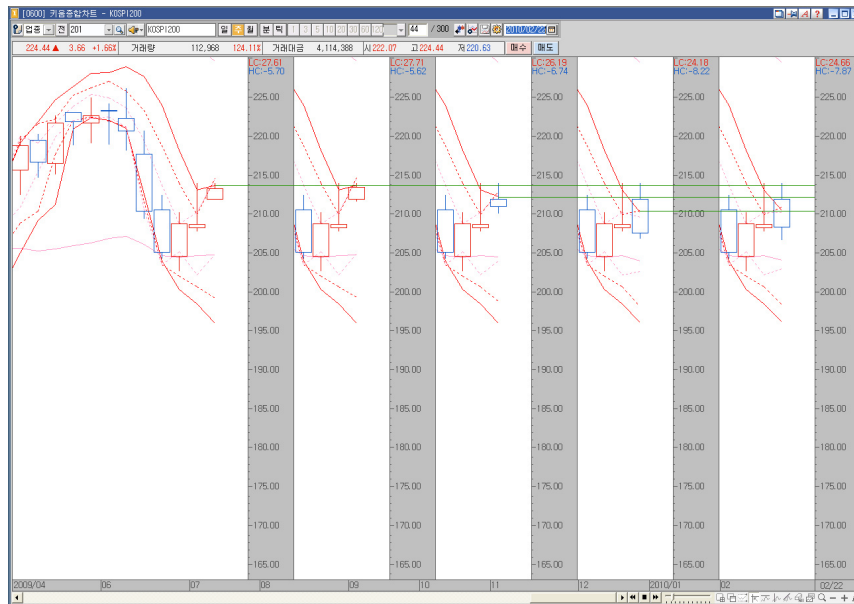
[그림 94. 순방향 오버슈팅]

그림 94는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날짜별 주봉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순방향 언더슈팅과 달리 결과적으로 보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다고 해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주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버슈팅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 순방향 오버슈팅이 갖는 힘의 세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오버슈팅의 위치는 144.36이다.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가정해 보자. 12월 2일 종가는 144.38이다. 실제로 주간 손실은 0.02 정도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고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가의 위치는 153.63이다. 거의 9포인트가 넘는 손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것도 개당 손실이 그 정도였으니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건당 450만원의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결국 종가는 회복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나 저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던 투자자는 급등에 놀라 손절을 감행했을 것이고, 손절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해 했을지도 모른다. 순방향 오버슈팅의 경우 순방향이라는 용어처럼 다루기 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순방향 오버슈팅이 나올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자.

그럼 역방향 오버슈팅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95는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2월 22일 월요일 주가는 갭상승 후에 양봉을 시도하고 있다. 오버슈팅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자. 그리고 2월 23일 화요일까지는 이 오버슈팅의 값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서 오버슈팅의 위치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림 95. 역방향 오버슈팅]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서 2월 22일에 만들어진 오버슈팅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매도 포인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가는 213.97인데 반해 종가는 208.36이다. 그리고 저가는 206.69에 해당한다. 대략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 셈이다.

순방향이나 역방향이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순방향 오버슈팅에서의 매도 포지션이나 순방향 언더슈팅에서 매수 포지션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순방향은 이미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졌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더 나아가려는 힘이 우선적으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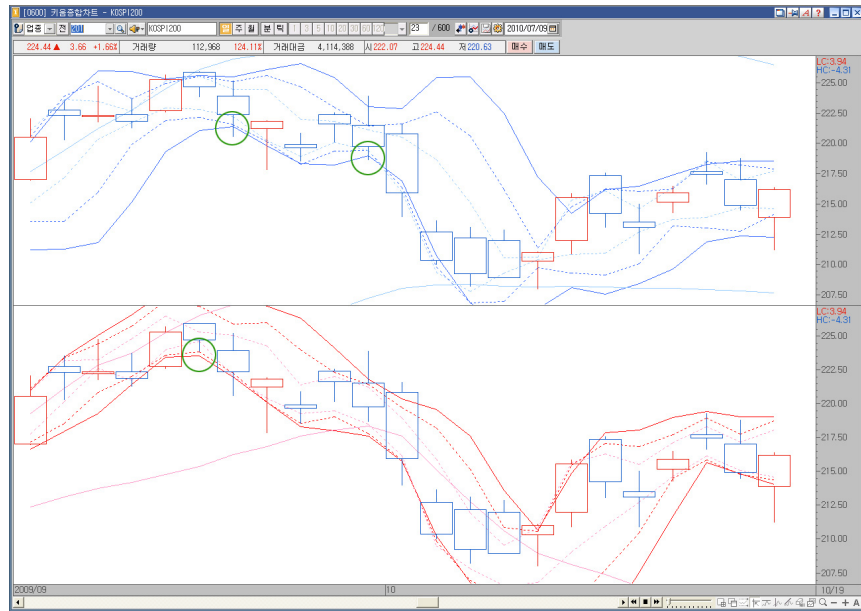
용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순방향에 역행하는 매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순방향 오버슈팅이나 순방향 언더슈팅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단순히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기론과 수급론 같이 시장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용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된다.

순방향 언더슈팅이나 순방향 오버슈팅의 경우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곧 수익을 내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역방향 오버슈팅이나 역방향 언더슈팅의 경우 거래를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역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추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역방향 언더슈팅이 나오려면 주가가 추세선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럼 추세선을 이용한 매수 포지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역방향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주가가 추세선의 저항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세선을 이용한 매도 포지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매매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에서 주가가 손절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가 변곡이기 때문에 손절 후에 포지션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 보자.

순방향 언더슈팅과 순방향 오버슈팅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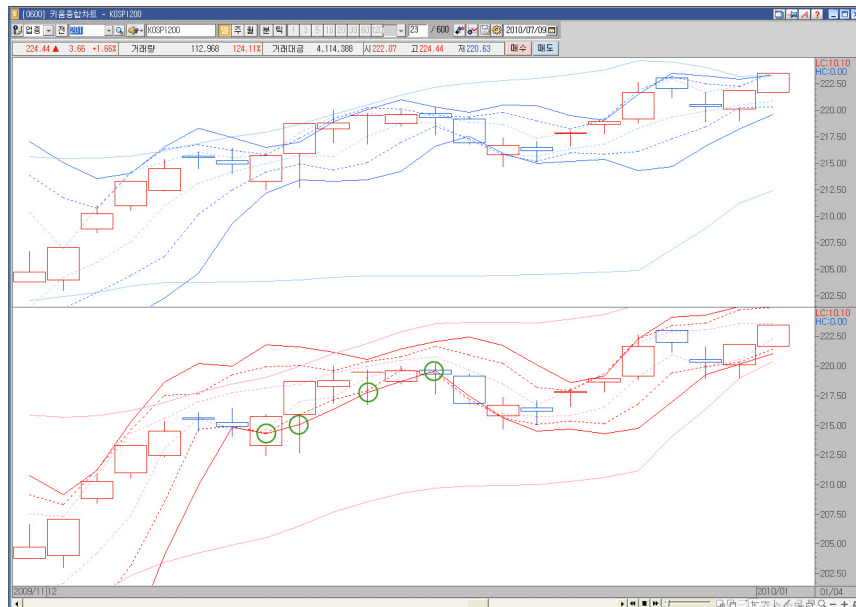
[그림 96. 순방향 언더슈팅의 발생조건]

그림 96은 2009년 10월 1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9월 25일과 10월 1일에 강한 하락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가를 기준으로 보면 P차트도 언더슈팅 상태에 들어갔고, T차트도 언더슈팅 상태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더슈팅이 발생하는 것과 지지선의 형태는 일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 우선 T차트의 지지선을 살펴보자. T차트의 지지선은 9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즉 T차트는 이제 주가가 아래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

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P차트는 9월 24일을 기준으로 지지선이 하방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첫 번째 언더슈팅이 발생한 날짜가 9월 25일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P차트와 T차트의 지지선이 모두 하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순방향 언더슈팅은 T차트와 P차트가 아래의 공간을 열어 줘야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순방향 언더슈팅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징후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9월 30일 P차트가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상방으로 돌려 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1일에 두 번째 순방향 언더슈팅이 발생했다. T차트와 P차트의 지지선 방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후 주가는 4일 정도 더 하락하면서 조정을 거쳤다.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역방향 언더슈팅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발생한다. 역방향 언더슈팅은 지지선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역방향 언더슈팅은 그 특성상 P차트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추세가 살아 있는 한 주가는 P차트의 지지선으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역방향 언더슈팅의 경우 순방향 언더슈팅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언더슈팅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가는 언더슈팅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만약 주가가 언더슈팅 상태로 마무리되어 버린다면 그 자리가 추세의 끝이 된다. 추세를 이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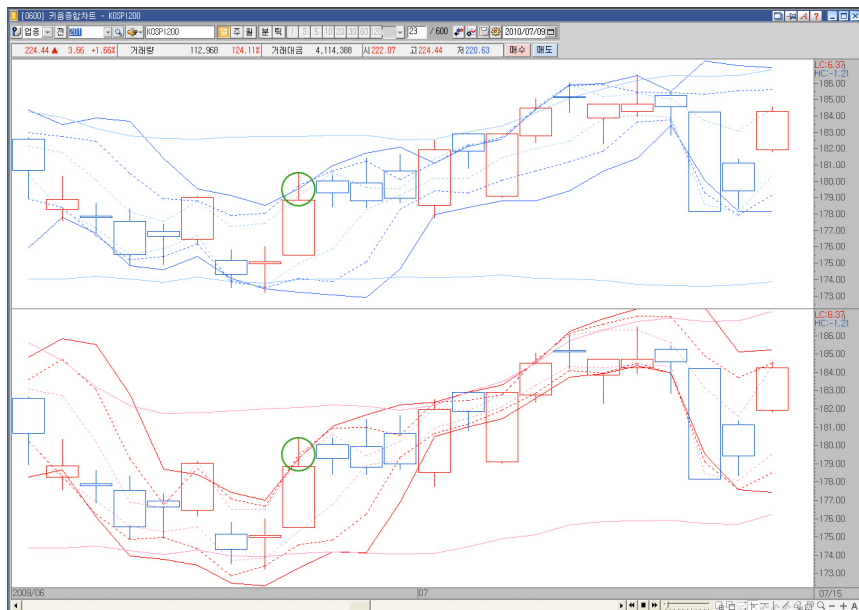
어가는 주체가 그렇게 쉽게 추세 전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언더슈팅을 도모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만약 언더슈팅 상태에 주가가 진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선물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옵션의 입장에서 보면 콜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풋은 아주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풋을 매도할 수 있고, 낮은 가격에 콜을 매집할 수 있다.



[그림 97. 역방향 언더슈팅의 발생조건]

그림 97은 2009년 12월 9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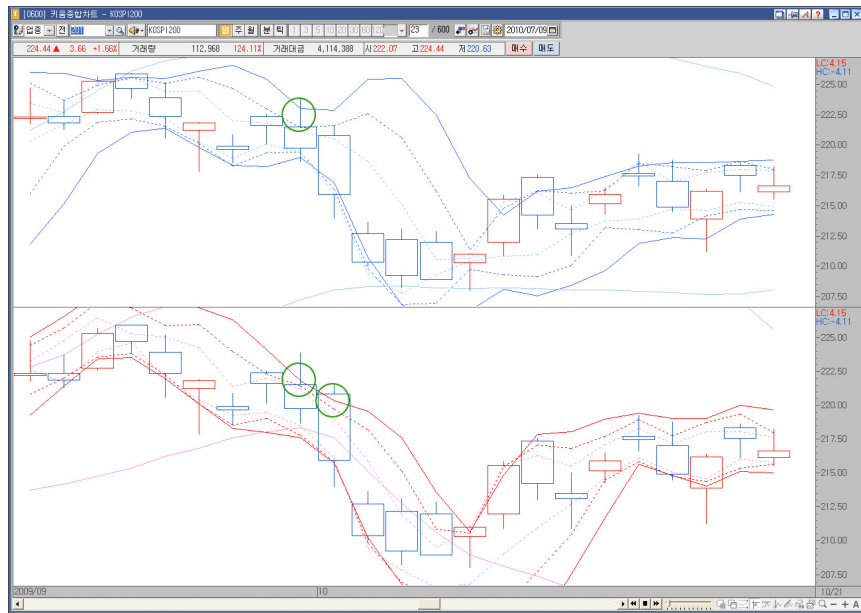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회의 역방향 언더슈팅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12월 9일의 경우 역방향 언더슈팅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매수 포지션은 P차트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3일은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 언더슈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월 16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서 매수 진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아직 지지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월 16일에 역방향 언더슈팅이 성공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폭락이 왔다. 왜냐하면 12월 16일이 변곡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역방향 언더슈팅이 성공하게 되면 시장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림 98. 순방향 오버슈팅의 발생 조건]

이와 동일하게 순방향 오버슈팅과 역방향 오버슈팅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98은 2009년 6월 25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6월 25일에 강한 상승을 동반한 순방향 오버슈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6월 24일을 보면 뭔가 신호가 보인다. 즉 6월 24일은 P차트나 T차트 모두 변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6월 25일의 상승은 6월 24일을 변곡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6월 25일의 상승으로 저항선은 모두 상방으로 선회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를 아무리 올려도 저항선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메이저들은 대부분 그런 날들을 피하려고 한다. 물론 주가가 올라 P차트와 T차트의 저항선이 상방으로 선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과 더불어 P차트나 T차트의 저항선이 쉽게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저항선의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로 보면 하락의 끝이고 상승의 시작이다. 그런데 단지 주가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거래할 수 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매도 포지션을 유리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매수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9. 역방향 오버슈팅의 발생 조건]

그림 99는 2009년 9월 30일과 10월 1일의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역방향 오버슈팅은 늘 발생한다. 저항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다.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꾸고 싶은 주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역방향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해 풋을 저렴하게 매집하거나 콜을 비싸게 청산하려는 주체들은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게 될 것이다. 9월 30일의 상황을 보면 주가가 위로 강하게 쳐올리다가 결국 아래로 주저 앉았다. 물론 이날 종가가 고가였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9월 30일이 변곡이 되고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와 달랐다. 주가는 하락했고, 그 자리는 변곡이 되지 못했다. 단

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종가의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 주게 된다. 그리고 10월 1일 또 한 번 상방을 시도한 후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주체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덕분에 풋은 아주 저렴하게 매집되었을 것이고 콜은 아주 비싼 값에 매도가 되었을 것이다. 단지 주가의 결과나 현상만을 두고 분석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또 주가의 위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풀어 나가야 한다.

싸다 비싸다의 개념조차도 지지와 저항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했다.

여러분은 저런 정보를 봉 차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보조 지표의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과연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저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주식 바닥에서는 참 어려운 일임을 실감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체계적인 지식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도 분석되지 않는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추세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힘을 볼 수 있는 랠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랠리는 왜 발생하며 랠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자.

13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

주가에는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나아가려는 힘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랠리는 주가의 방향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랠리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 배워 보자.

랠리는 얼핏 자동차 경주를 연상하게 한다. 왜 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우선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랠리 [rally]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간을 달리는 경기.

주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보통은 그 상황에서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주가는 오히려 예측된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고 그 힘 또한 감당해 낼 수 없는 정도로 강하다. 그리고 그 힘이 소진되기 전까지 그러한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주가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수개월의 관찰 결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그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한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한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이 구역을 랠리라 부르기로 했다. 랠리라는 말 자체가 정해진 구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랠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P차트와 T차트에 장기선과 단기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선의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 단기선이 위치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들의 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려면 단기선은 장기선이 제공해 준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 장기선이 제공해 준 공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폭발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주가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두 가지 사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는 단기선과 장기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보통 단기선의 저항선은 장기선의 저항선보다 낮게 위치한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하기 위해서는 단기선의 저항선이 장기선의 저항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힘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힘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반대로 폭락하기 위해서는 단기선의 지지선이 장기선의 지지선보다 낮게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단기선과 장기선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현상을 ‘랄리 구조’라고 부른다.

랄리는 경우에 따라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상승 랠리는 단기선의 저항선이 장기선의 저항선 위로 자리잡는 경우를 말

한다. 반대로 하락 랠리는 단기선의 지지선이 장기선의 지지선 아래로 자리잡는 경우를 말한다.

그럼 두 번째 사전 작업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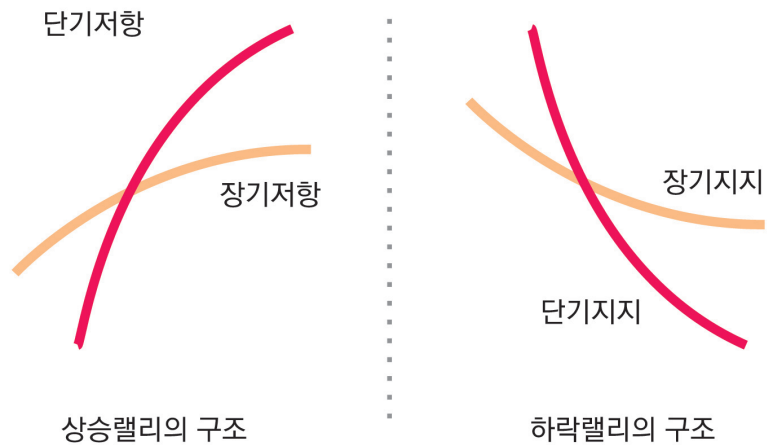
두번째는 수급의 변화이다. 투자 심리도 고급편에서 여러분은 수급론을 배웠다. 수급론의 핵심은 장기선의 상단선과 장기선의 하단선을 돌파하기 위해 수급이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락 랠리를 만들었는데 수급 상태가 매수라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강하게 위로 치솟게 된다. 만약 랠리를 이용해 폭락을 유도하고자 했던 주체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래의 주체들은 하락 랠리가 오기 전에 수급을 매도로 돌려놓으며 상승 랠리가 오기 전에 수급을 매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단기선과 장기선의 위치 변화와 수급 상태의 조절을 통해 메이저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주가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주가는 그 공간 안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든다.

또한 랠리는 그것이 T차트에서 발생하느냐 P차트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T랠리와 P랠리로 구분된다. P차트는 랠리와 무관한 상태이지만 T차트 혼자 랠리를 실행할 수 있고, T차트와 P차트가 동시에 랠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랠리는 T차트와 P차트의 상황을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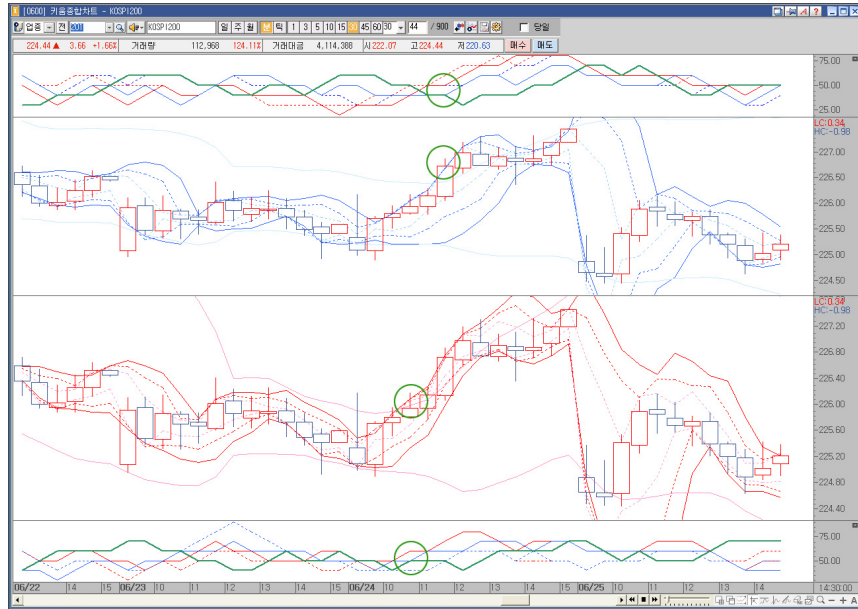
[그림 100. 랠리의 구조]

그럼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승 랠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상승 랠리는 단기선의 저항선이 장기선의 저항선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면 주가가 랠리구조를 빠져나올 때까지 주가는 상승만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하락에 대비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것인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쉽게 랠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면서 랠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투자자는 그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펼쳐가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림 101. 2010년 6월 24일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그림 101은 2010년 6월 24일 코스피 200지수의 30분봉 차트이다. 녹색 원으로 표시된 공간을 보면 단기 저항선의 위치가 장기 저항선의 위치보다 높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주가를 보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랠리 구조가 만들어진 후에 무려 9개의 봉이 모두 상승 쪽으로 움직였다. 상승 랠리 구조가 만들어진 후에 주가는 226.14에서 227.45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P차트에서의 랠리의 시작과 T차트에서의 랠리의 시작은 다소 차이가 있다. 바로 수급의 차이이다. T차트의 경우 수급을 매수 쪽으로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랠리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P차트의 경우 수급을 매수로 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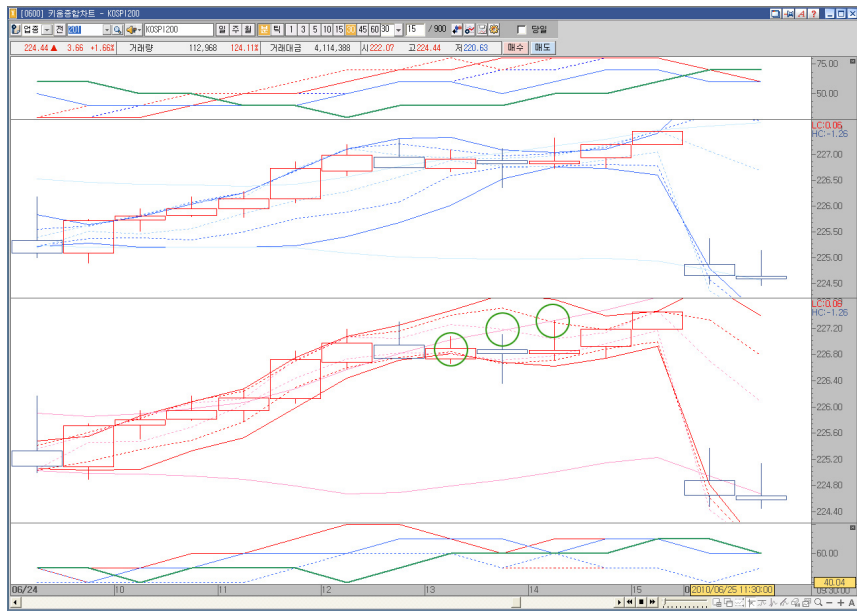
시간이 좀 더 길었기 때문에 T차트보다 늦게 상승 랠리를 시작한 것이다.

그럼 랠리를 지속하게 해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랄리를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주가가 랠리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랠리 구조란 장기선의 저항선과 단기선의 저항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가는 이 사이에 존재해야만 랠리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물론 고가와 저가는 이 공간을 벗어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가와 종가는 이 공간에서 머물러야 한다. 주가가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랠리의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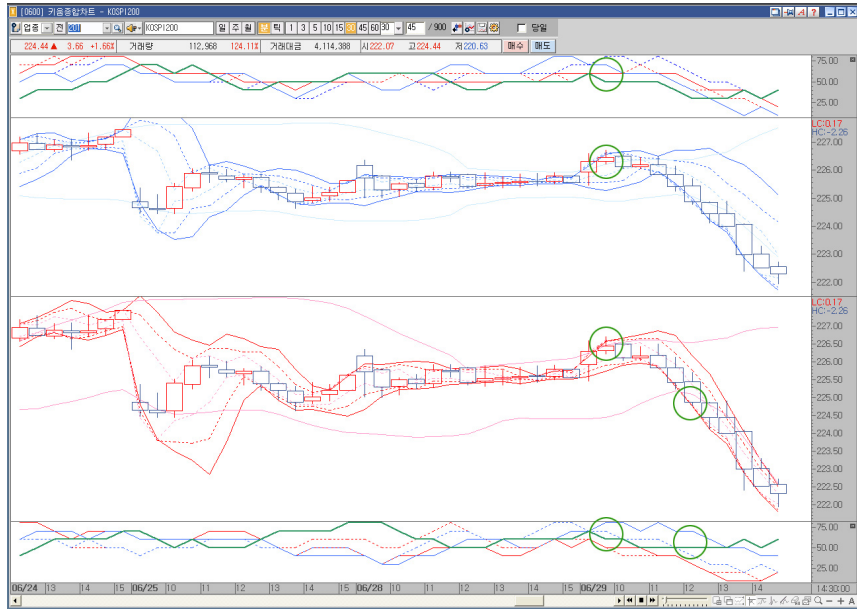
두 번째는 수급의 유지이다. 수급은 랠리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싶다면 수급 상태는 계속 매수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수급 상태가 매수 상태가 아닌 매도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면 장기선의 저항선은 매수 포지션이 아닌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하락 힘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엄청난 폭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들이 실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림 102. 2010년 6월 24일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앞의 그림 101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 상승 랠리 구조를 만든 이후에 시가와 종가 모두 랠리 구조에서 벗어난 봉을 찾아보면, 녹색 원과 같다. 이 봉을 자세히 보면 시가와 종가가 모두 장기선의 저항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선의 저항선이 장기선의 저항선 위에 있다고 해도 단기선의 저항선보다 장기선의 저항선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랠리 구조가 깨졌다고 표현한다. 결국 이 봉 이후의 주가는 장기선의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장기선의 저항선 아래에 고가를 두면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발생하면 상승 랠리 중에도 매도 포지션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

는 것이다.



[그림 103. 2010년 6월 29일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그림 103은 2010년 6월 29일자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차트이다. 6월 24일의 상황처럼 상승 랠리 구조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일까? 상승 랠리라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날 주가는 폭락했다. 그럼 상승 랠리 구조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한다.

수급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자. T차트에서 상승 랠리가 발생한 시점의 수급은 완전한 매수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도 상태에 더 가깝다고 봐

야 한다. 그런데 왜 매도 상태에서 상승 랠리 구조가 만들어진 것일까? 그 답은 T차트가 아닌 P차트에 있다. 즉 P차트는 수급이 완전한 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상승 랠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P차트의 힘에 의해 주가가 따라가다 보니 T차트의 경우 상승 랠리 구조가 만들어진 것뿐이다. 그런데 T차트는 상승 랠리를 감당하기에는 수급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국 상승 랠리 구조를 만든 바로 다음 봉에서 시가와 종가가 장기선의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다. 따라서 상승 랠리는 일단 끝이 났다. 이제부터 장기선의 상단선은 저항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상승 랠리가 처음 만들어진 봉 이후의 고가를 잘 보면 왜 장기선의 상단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오가 되자 상승 랠리는 하락 랠리로 변경되었다. 하락 랠리로 진입한 주가는 저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저가가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올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신호를 찾아야 한다. 상승 랠리가 깨지는 기본 구조는 시가와 종가 모두 장기선의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이다. 그럼 하락 랠리 또한 시가와 종가가 모두 장기선의 하단선 위로 올라오는 봉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결국 종가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이 부분 매수 상태에서 완전 매도 상태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그림 103을 통해 수급이 랠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급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런 상태를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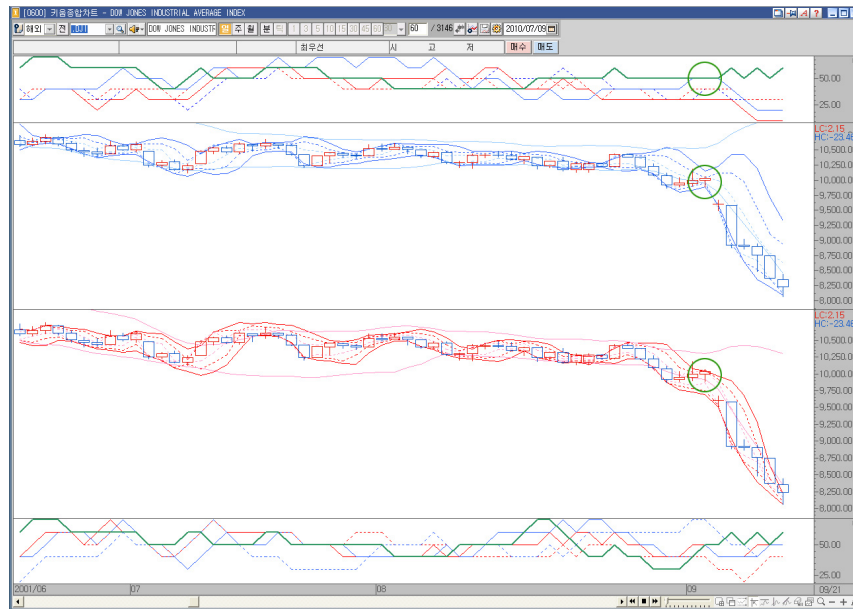
리적으로 풀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내고 검증하는 일 또한 상당히 고된 노동력을 요구한다.

이것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저런 상태에서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낸 것이 없다. 단지 저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런 관계를 보기 위해 몇 개의 그래프를 혼합해 봐야 한다는 정도가 내가 이루어 낸 연구 결과의 수준이다.

주가는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 수많은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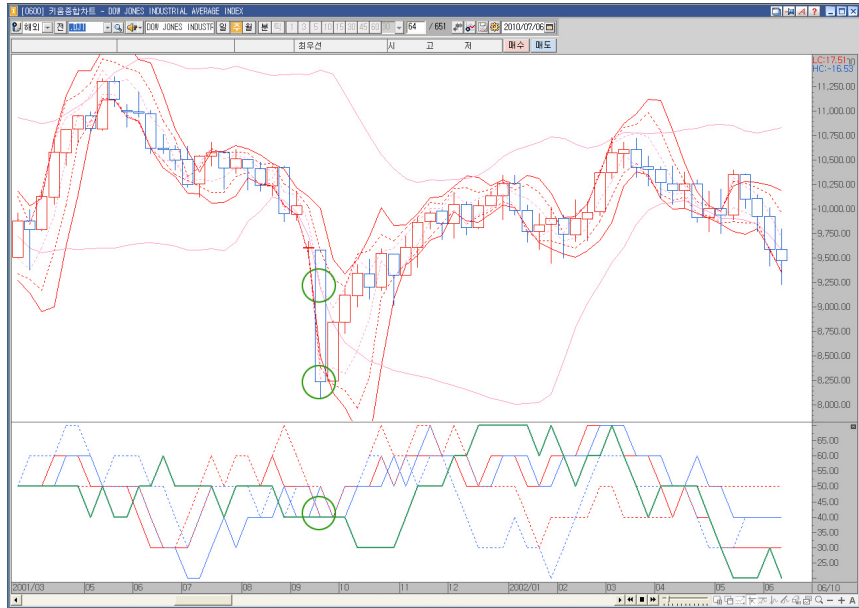
주가 분석을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주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다양한 원인을 모두 이해하기 전에는 분석 방법에 항상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오류 하나가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정말로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자. 그러나 하필 그 다음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것도 콜을 매수한 게 아니라 풋을 매도했다면 말이다.

분석이란 매우 어려운 영역의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각에 의해 분석 방법을 정의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손절이라는 무기로 시장과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무서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정말 우리가 메이저라고 부르는 세력들은 911 테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했을까? 2001년 911테러의 상황과 2010년 5월 4일 유럽발 악재에 대한 메이저들의 대응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



[그림 104. 2001년 9월 11일 다우지수 일봉 차트]

그림 104는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를 전후로 한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9월 5일의 상황을 살펴보자. 왜 거래량을 늘렸을까?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수급을 매수로 바꿔야 했을 텐데 어째서 수급을 매도 상태로 두었을까? P차트의 경우 수급은 완전 매도 상태이고 T차트의 경우 시가를 제외한 모든 수급이 매도 상태이다. 다우지수가 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미 911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급이 하방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하방으로 갈 것이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때 마침 911테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할까?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다.



[그림 105. 2001년 9월 11일 다우지수 일봉 차트]

당시의 주봉은 911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가는 아래가 아닌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T차트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 매도 상태가 아니라 매수 상태이다. 800%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저린 상태였다는 것은 원래 수급이 완전한 매수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리수를 뒤서 거래량을 증가시켰을까?

결국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다.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9월 5일은 전날의 고가도 갱신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거래량만 증가했으니 위로 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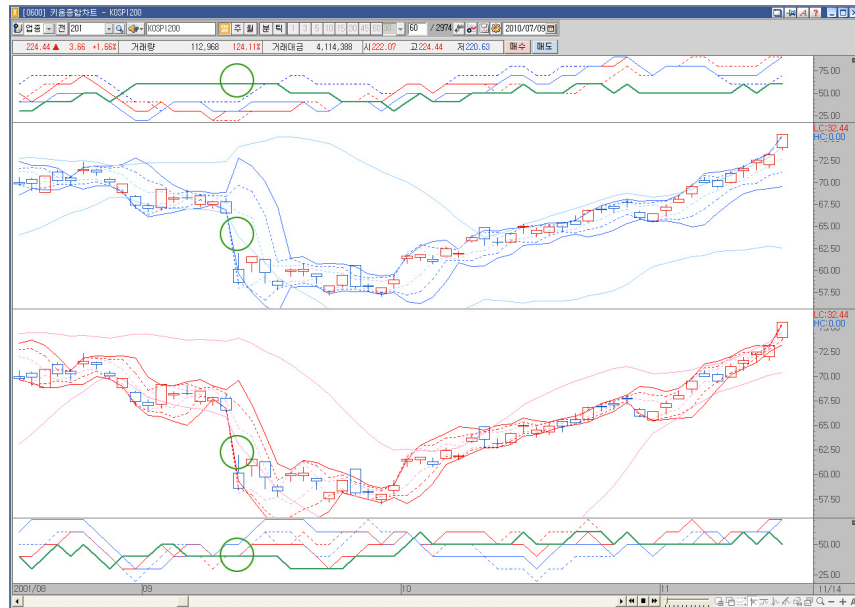
버린 것이다. 그리고 9월 10일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왜 하필 엄청난 폭락이 거래량의 매트릭스 값 중 0의 영향을 받는 날 찾아 왔을까? 단순히 거래량만 늘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하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 그 하락은 단순히 하루가 아닌 수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봉의 생각은 달랐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며 만들어진다.

설마 빈라덴이 꽃을 사고 선물 매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정말 모르는 상태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태평양 건너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림 106은 911테러 당시의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P차트의 경우 수급이 매도 상태인 반면 T차트의 경우 수급이 매수 상태이다. 즉 단기적으로 하락을 유도하는 주체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911테러 이후의 다우지수는 하락을 거듭했지만 코스피 200지수는 일부 조정을 거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 200지수는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지만 911테러 같은 악재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냐를 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거래

량의 증감에 무관하게 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이다.



[그림 106. 2001년 9월 11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다우지수는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거래량의 투자 심리테가 위를 향해 움직였는데 코스피 200지수는 다우지수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다우지수와 코스피 200지수는 수렴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차이점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단지 현상일뿐이고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석은 그 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결과를 맞히는 것이 원인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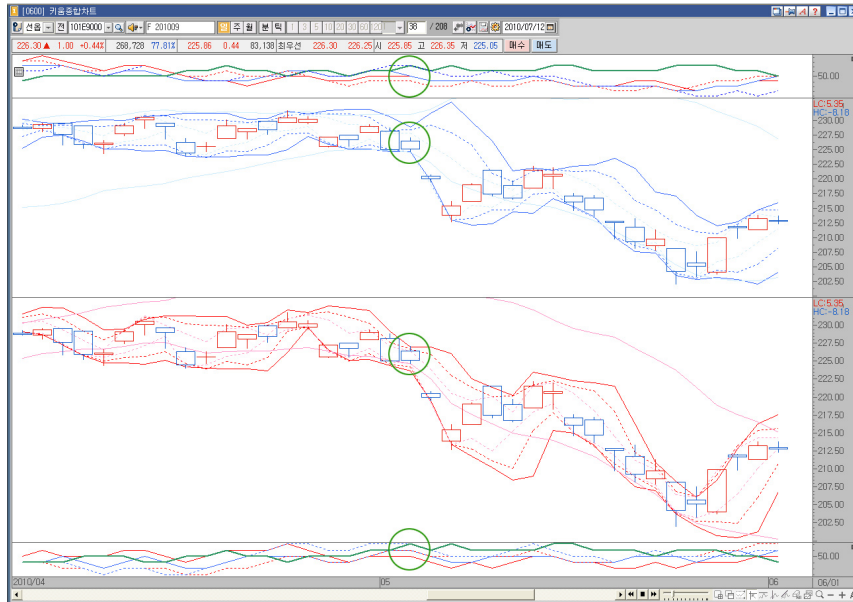
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수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도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나 그리고 나서 미련없이 이 주식 바닥을 떠나가는 이유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식을 연구해 보면 그 끝에는 필살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의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왜 데자뷰 이론이 세상에 나왔을까 여러분이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다. 이 이론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시장의 지배자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주식 시장의 전부이다.

911테러와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최근 선물지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월 4일 선물지수는 5월 6일 찾아올 폭락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시에 찾아온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닌 예고된 수순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림 107은 2010년 5월 4일자 선물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5월 4일자 종가를 보면 이미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7. 2010년 5월 4일 선물지수 일봉 차트]

더군다나 P차트뿐만 아니라 T차트의 경우에도 장기선의 하단선에 종가가 위치하고 있다. 결국 정상적인 수급 구조에서는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바로 매도세를 키우는 것이다. 매도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체를 매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날 종가는 225.10으로 전일 대비 0.02% 상승했다. 그러나 종가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거래량이 128.57%로 증가했기 때문에 종가의 상승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날은 거래량이 매트릭스 구조상 0의 영향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량이 증

가한 것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완전한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5월 5일 휴일을 보낸 선물지수는 유럽발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폭락했다. 만약 5월 4일 거래량을 줄였다면 주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이저라 불리는 세력들은 그런 경우의 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폭락을 준비했고, 5월 6일 수순대로 폭락을 진행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루만의 하락이 아닌 시간을 이용한 하락을 계속 진행했다. 이것은 유럽발 악재가 단순히 하루 간의 주가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는 결코 메이저의 전략을 벗어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메이저는 시장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빨리 감지하거나 때론 시장의 변화 자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에는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원하는 지수로 주가는 돌려 놓기도 한다. 911 테러 당시 거래량을 조작한 것과 2010년 5월 4일에 있었던 거래량 조작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다.

시장은 악재와 호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악재와 호재를 만들어 내 시장을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이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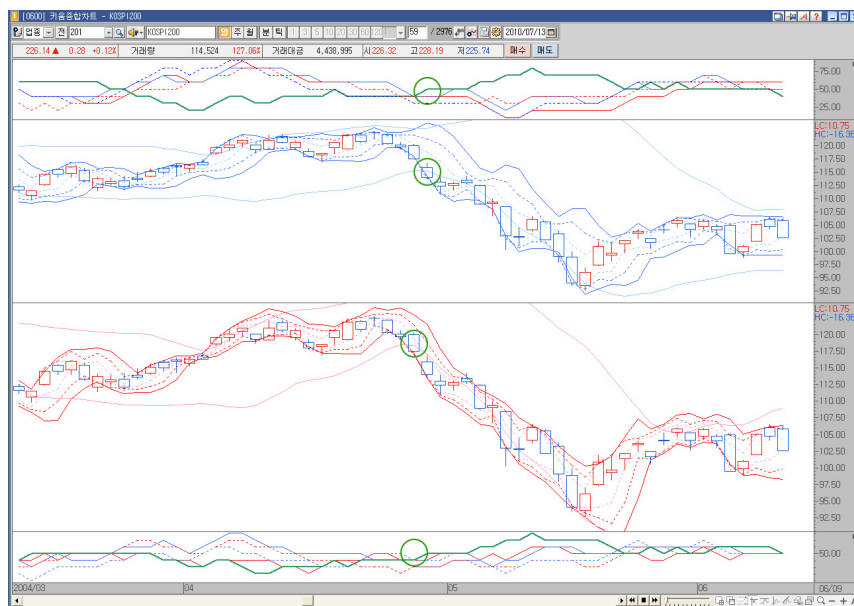
하락 랠리

하락 랠리는 단기선의 지지선이 장기선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면 랠리 구조를 빠져나올 때까지 주가는 하락만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하락을 따라가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에 대비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것인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락 랠리는 상승 랠리와 정반대 형태를 갖고 있다.

하락 랠리의 시작이 단기선의 지지선이 장기선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하락 랠리의 유지는 시가가 장기선의 지지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을 매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락 랠리는 강력한 매도세를 기반으로 단기적인 하락 힘을 이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수급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주가가 단순하게 하락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락 랠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락 랠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투자자는 그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펼쳐 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그림 108. 2004년 4월 28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108은 2004년 4월 28일자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4월 28일자로 T차트는 하락 랠리에 진입하였으며 4월 29일자로 P차트가 하락 랠리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차트와 P차트 모두 하락 랠리를 만들기 위해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어 있다. 단기선의 지지선이 단지 장기선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상으로도 하락 랠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이다. 4월 29일 이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주가가 하락 랠리 상태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내 저항선에 막혀 다시 하락 랠리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수급의 상태이다. 하락 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가와 종가 모두 장기

선의 지지선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5월 4일과 5월 7일은 하락 랠리를 벗어나는 신호가 맞다. 그러나 문제는 거래량이다. 주가가 오르려면 수급상 매도세가 약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5월 4일의 거래량은 124.97%이고, 5월 7일의 거래량은 103.95%이다. 결국 거래량은 이들 모두 증가하였다. 거래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락 랠리의 유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량의 증가가 수급 상태가 매도세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언젠든 하락세가 다시 시작되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주가에 의해 뚫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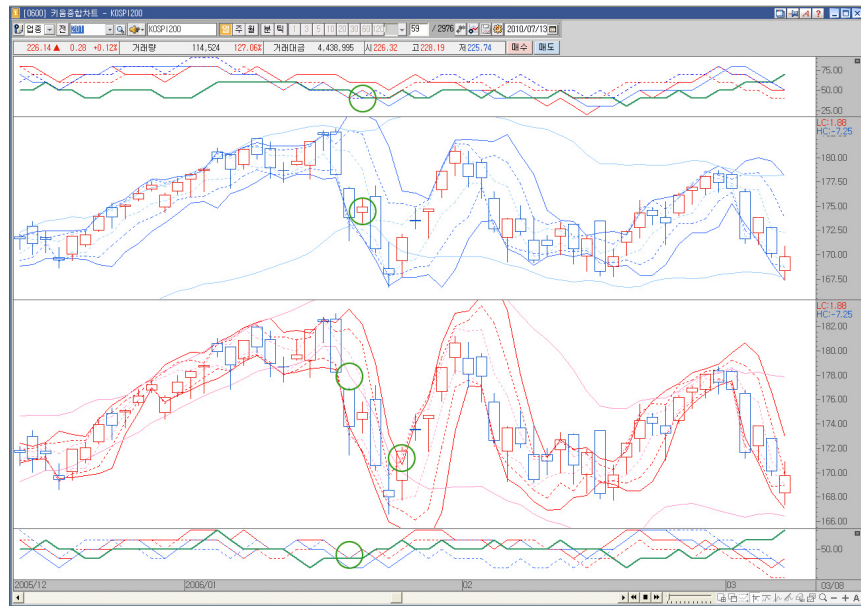
하락 랠리를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급은 주가가 어느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공해 준다. 즉 수급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수급이 매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지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위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수급이 매도세를 유지하게 되면 장기선의 하단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하방을 구축하는 메이저가 있는 경우 수급을 매수가 아닌 매도 상태로 두려고 한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려고 해도 주가만 반등시킬 뿐 거래량은 계속 증가시켜 언젠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실제로 5월 21일을 기준으로 T차트와 P차트 모두 수급상 매수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미 주가가 장기선의 하단선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면 주가가 더이상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에

머물 수 없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저항의 돌파이다. 저가가 하락 랠리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저항이 강하게 존재하는 한 주가는 위로 갈 수 없다. 따라서 T차트의 저항선의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되는 변곡이 와야 한다. 이렇게 변곡이 발생하면 주가가 위로 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5월 4일에 하락 랠리를 벗는 봉이 나왔지만 5월 6일 하락으로 변곡을 만들지 못했으며, 5월 12일 또다시 하락 랠리를 벗는 봉이 나왔지만 5월 13일 하락으로 변곡에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변곡에 성공한 봉은 5월 19일에 나왔다.



[그림 109. 2006년 1월 24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109는 2006년 1월 24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1월 18일부터 T차트는 하락 랠리가 시작되었으며, 1월 19일자로 P차트의 하락 랠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급이 강력한 매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세는 크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관찰해야 할 부분은 바로 1월 24일 봉이다. 1월 23일 봉은 P차트의 경우 수급이 매도가 아닌 상태에서 하락 랠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의 주가는 반등의 여지가 강하다고 봐야 한다. 이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아닌 상방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수급 상태로 인해 주가는 장기선의 하단선 아래에서 머물지 못하고 반등을 시도했다. 그것이 1월 24일의 봉이다. 그런데 1월 24일의 상승으로 T차트의 저항선과 주가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 저항선에 밀리지 않고, 저항 위에서 주가를 마무리했다. 물론 변곡은 1월 24일이 아닌 1월 25일에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락 랠리를 벗어나는 것이 곧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강력한 하락 힘이 작용하는 구간을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락 랠리를 벗어나는 것과 더불어 상승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에 대해 다뤄 보았다.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를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에 있다. 즉 랠리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주가가 어디로든 강하게 움직이려

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메이저들은 수급을 조종하려 든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 따라서 랠리 구조를 통해 메이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랠리의 구조가 정말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에 앞서 메이저의 전략과 배치되는 매매 스타일을 고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하락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메이저의 전략 안에서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상상해 보라. 물론 하락 랠리가 오지 않고 주가는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하락 랠리가 오게 된다면 주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랠리를 이해하는 것은 메이저의 전략 앞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보면 된다. 2010년 5월 6일에 온 폭락처럼 미리 수급을 매도도 돌려놓고 하락 랠리를 진행하는 메이저의 전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하방에 투자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상방에 대한 투자는 접었을 것이다.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구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봉이 아닌 상위 봉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하락 랠리가 강하게 오려면 이미 상위 봉이 하락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 보면 된다. 아래로 내

려가려고 하는데 하위 봉에 내려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열기 위해 수급을 매도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랠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위 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상위 봉에서 가고 싶은 주가의 목표치가 T차트나 P차트로 분석해 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으로 랠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한다.

랠리를 좀 더 자세히 다루려면 지면상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지만 랠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가 단지 랠리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랠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랠리가 나타나면 랠리의 구조에 따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로 접근을 했으면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 편을 보자.

14

공간에 대한 이해

주가는 지지와 저항을 돌파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와 저항 사이를 움직이기도 한다. 메이저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교묘하게 활용한다. 메이저가 주가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데자뷰 차트에서는 주가를 분석하는 데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가는 지지와 저항이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을 공간(Space)이라고 부른다. 공간은 메이저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영역은 메이저의 의지에 의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저항과 지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이저의 자금력에 의해 주가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간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피해야 한다.

데자뷰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강조하는 이유도 공간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메이저가 위든 아래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거래에 따른 위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간은 특성에 따라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은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를 사용하지만 저항의 형태와 지지의 형태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다르게 정의된다.

저항선

공간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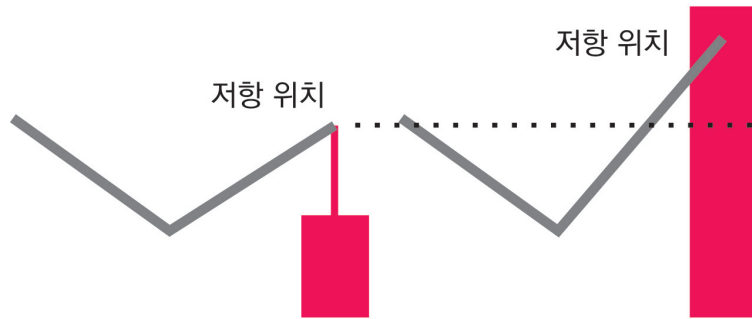
지지선

[그림 110. 공간의 정의]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주가가 가려는 방향과 지지선 또는 저항선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를 의미한다. 열린 공간의 특징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 밖에 위치했던 주가가 공간 속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저항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나 지지 아래에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으로 주가가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가가 다시 돌아갈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열린 공간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회귀하지 않고 머물게 되어 손실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진입 당시 그 지점이 저항 위였거나 지지 아래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지점이 공간으로 변경됨으로써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열린 공간은 지지와 저항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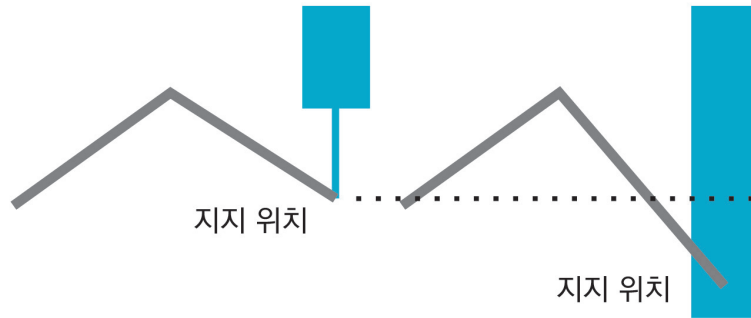


열린 공간 (저항)

[그림 111. 저항에서의 열린 공간]

저항에서의 열린 공간

그림 111을 보면 좌측에서의 저항의 위치가 우측에서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가의 상승이 저항의 위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처음 저항의 위치가 매도 포지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저항에서의 열린 공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는다.



열린 공간 (지지)

[그림 112. 지지에서의 열린 공간]

지지에서의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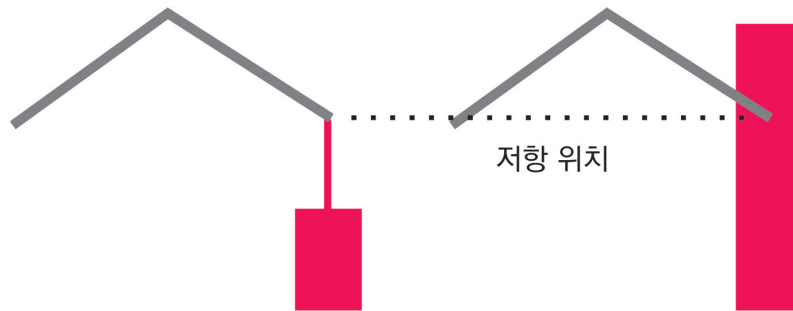
그림 112를 보면 좌측에서의 지지가 우측에서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가의 하락이 지지의 위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처음 지지의 위치가 매수 포지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지에서의 열린 공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열린 공간에서는 주가의 방향과 추세선의 방향이 일치한다. 이는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선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추세선의 값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A만큼 움직이게 되면 추세선은 N만큼 평균을 한 값이 되기 때문에 A/N만큼 추세선의 위치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의 방향

과 추세선의 방향이 같은 상황이 되므로 추세선의 위치는 주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것이 열린 공간이 생기는 주된 이유이다.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는 주가의 변동 폭이 공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닫힌 공간

닫힌 공간은 주가가 가려는 방향과 지지선 또는 저항선의 방향이 반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닫힌 공간의 특징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주가의 변동 폭만큼 추세선의 위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가만 강하게 움직일 뿐 지지의 위치나 저항의 위치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지지와 저항의 방향성이 닫힌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저항의 방향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방향성의 유지는 주가의 회귀 현상을 일으키게 되며, 회귀 현상이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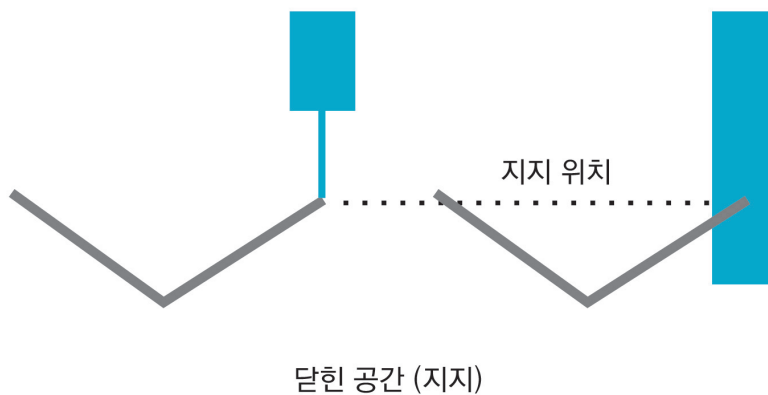


닫힌 공간 (저항)

[그림 113. 저항에서의 닫힌 공간]

저항에서의 닫힌 공간

그림 113은 저항에서의 닫힌 공간을 설명한다. 우선 저항선의 방향이 상방에서 하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하방을 보는 저항의 경우 하락 힘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우측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가가 저항선 위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저항선의 위치는 주가의 상승 폭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저항선이 갖고 있던 방향성을 유지함으로써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런 이유로 주가는 하방을 향하는 저항선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게 되며, 이것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14. 지지에서의 닫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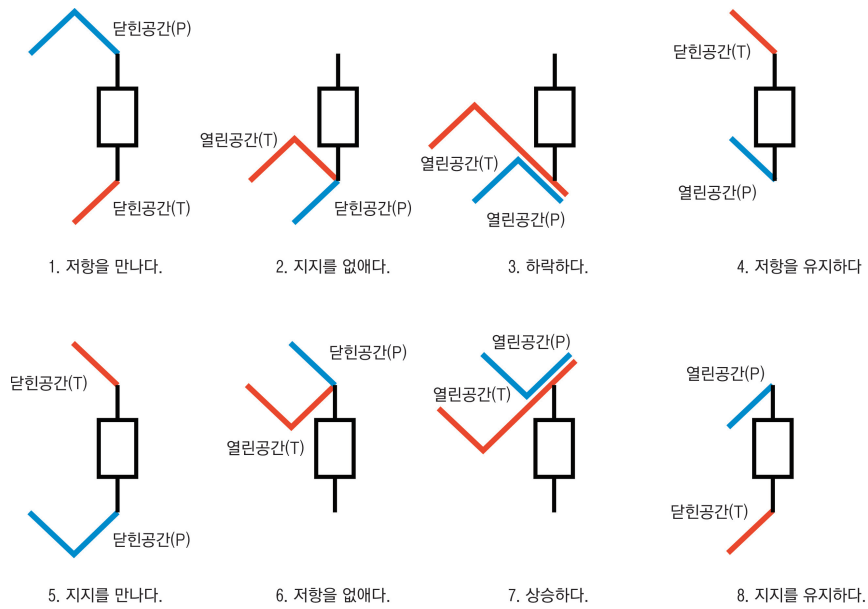
지지에서의 닫힌 공간

그림 114는 지지에서의 닫힌 공간을 보여 준다. 좌측 화면을 보면 지지선의 방향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방으로 전환된 지지선과 주가가 충돌하게 되면 주가는 하방으로 가려는 힘이 약화된다. 또한 주가가 지지선을 하방으로 돌파하게 되더라도 지지선의 방향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으며 주가가 하락하는만큼 지지선이 따라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상방으로 전환된 지지선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주가만 지지선 아래에 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지지선 위로 쉽게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유리

하게 된다.

4가지 유형의 공간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개념은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공간이 주가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공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움직임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고, 그런 전형적인 움직임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공간의 경우, T차트의 형태에 따른 공간이 존재하고, P차트의 형태에 따른 공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공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같은 공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게 되고, 공간의 폭과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T차트와 P차트의 서로 다른 공간형성에 의해 주가가 영향을 받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혼합 공간 분석이다. 혼합 공간 분석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림 115를 통해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자.



[그림 115. 혼합 공간 분석]

그림 115는 혼합 분석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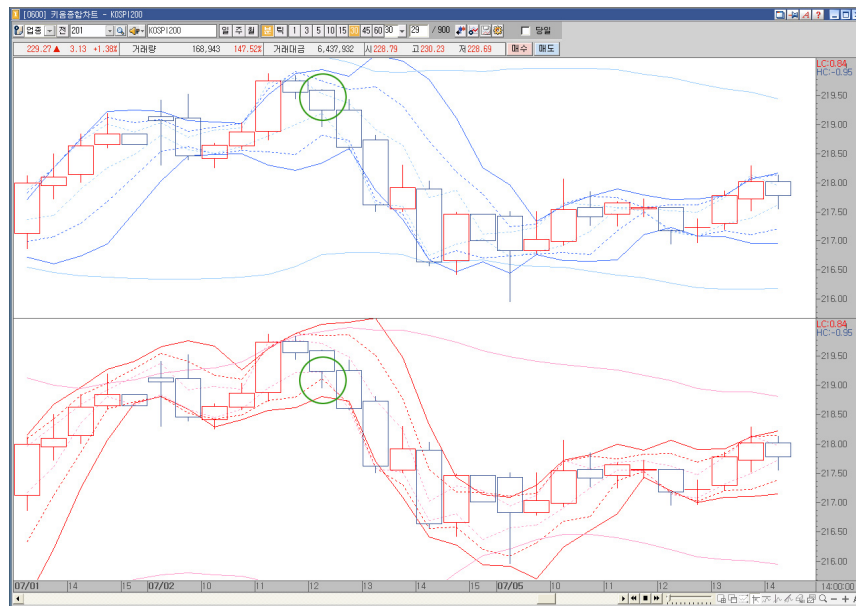
혼합 공간은 주가의 움직임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을 이해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가지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저항을 만나다.

상승 추세(T차트의 지지선)를 타고 오르는 주가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만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저항과 맞닥뜨리

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멈추고 저항과 지지의 힘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상승 추세를 타고 오르던 주가가 최초로 하락에 대한 징후를 보이는 지점은 P차트의 저항선이 닫힌 공간을 만들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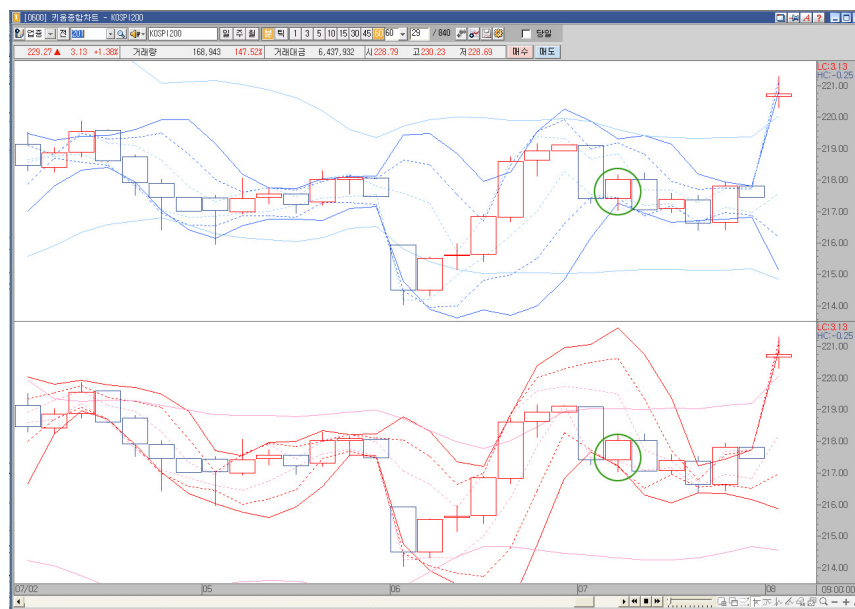
[그림 116. 코스피 200지수 30분봉 차트]

그림 116을 보면 P차트의 저항이 하방을 보는 시점에서 T차트의 지지선과 충돌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P차트의 저항선, T차트의 지지선이 모두 닫힌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가는 T차트의 지지선과 P차트의 저항선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종가가 어느 쪽 방향을 향하는가이다. 종가가 지지를 향하게 되면 T차트의 지지선을 약화

시키게 되고, 저항을 향하게 되면 P차트의 저항선을 약화시키게 된다.
 만약 이 상황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향해 움직였다면, 2번째 단계인 지지
 없애기로 진입하게 된다.

2. 지지를 없애다.

P차트의 닫힌 공간을 이용해 주가를 누르는 데 성공하게 되면, 주가는 하
 락을 위해 T차트의 지지선 방향을 하방으로 전환하여 닫힌 공간을 열어야
 한다. 즉 T차트의 지지선을 하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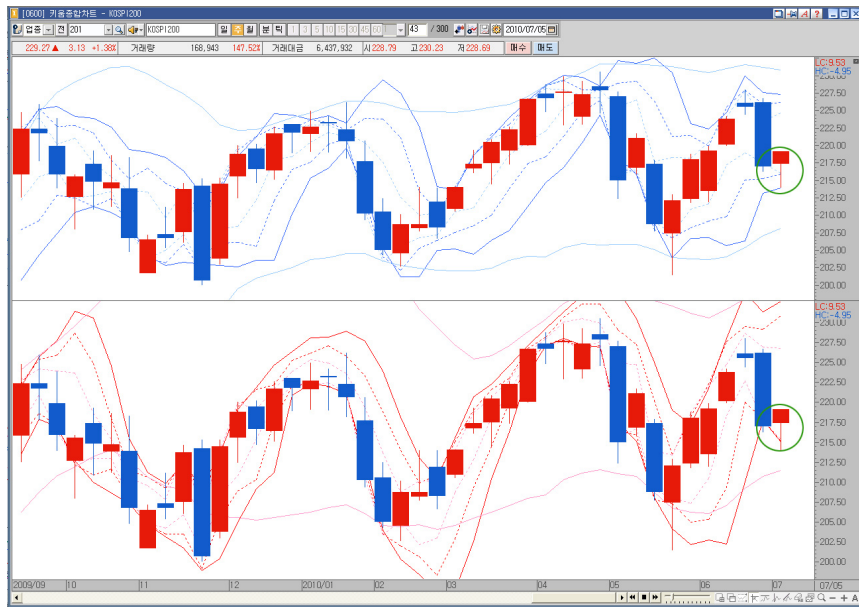
[그림 117. 코스피 200지수 60분봉 차트]

그러나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으로 전환하여 아래로 열린 공간을 만들게 되더라도 P차트의 지지선은 하방이 아닌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닫힌 공간이 유지된다. 따라서 주가는 T차트의 지지선이 아닌 P차트의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117의 화면을 통해,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차트의 지지선은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오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P차트의 지지선은 상방을 보고 있으므로 닫힌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P차트의 닫힌 공간을 이용해 매수해야 한다. 결국 그림 117에서의 봉은 양봉으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이 봉이 양봉이 난 이유가 T차트의 지지선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지선이 하방을 보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가장 큰 악재라고 판단해야 한다.

왜 P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을 보는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 환경에서도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이유가 되어 줄 선이 절실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P차트의 지지선이다. 그리고 매수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힌 공간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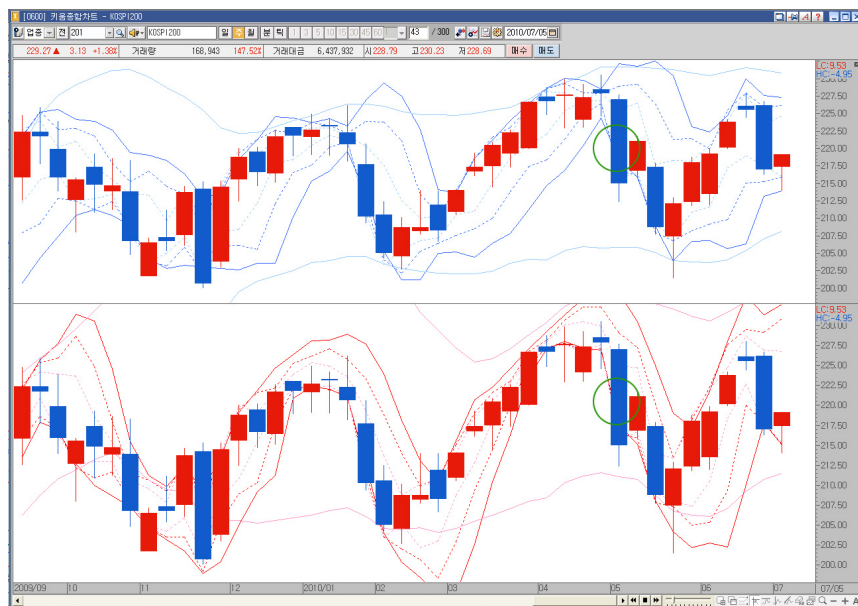


[그림 118. 2010년 7월 5일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118은 2010년 7월 5일 월요일의 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역시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을 보고 있으므로 열린 공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P차트의 지지선은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봉의 저가의 위치와 P차트 지지선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가 반등의 힘은 P차트가 갖고 있는 닫힌 공간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P차트의 지지선까지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그 다음 봉에서는 더 이상 P차트 지지선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P차트의 지지선 또한 하방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하락하다.

모든 지지선이 하방을 보게 되면, P차트와 T차트 모두 하방으로 열린 공간을 갖게 된다. 이런 힘에 의해 주가는 강하게 하락을 시작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간을 열 것인지는 오로지 메이저의 전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생성된 하락의 힘은 생각처럼 쉽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지 못한다. 열린 공간의 특징은 주가의 방향성을 T차트나 P차트의 지지선이 함께 따라간다는 점이다.



[그림 119. 2010년 7월 5일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119는 그림 118과 동일한 화면이다. 그림 119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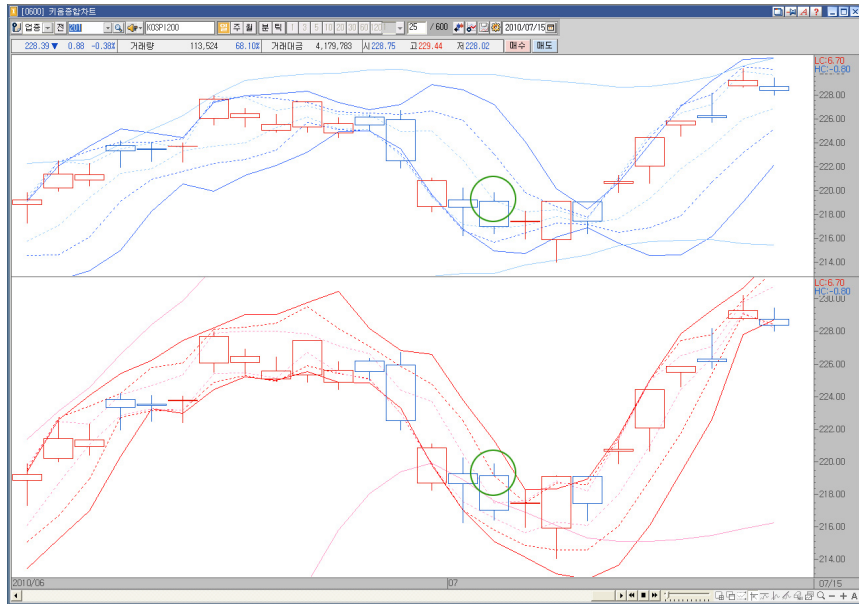
5월 3일자 주봉이다. T차트의 지지선과 P차트의 지지선이 모두 하방을 보고 있다. 4월 26일자 주봉을 보면 P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었던 것에 반해 5월 3일자 주봉의 경우 P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으로 돌아섰다. 결국 반등을 위한 마지막 조건이었던 P차트 지지선의 닫힌 공간마저 열린 공간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모든 지지선이 하방으로 전환하는 순간 강한 하락이 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이 오게 되는 시점에서는 선불리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락이 아닌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매수 포지션에 대한 미련을 접고, 매도 포지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저항을 유지하다.

일단 하락 단계에 접어든 주가는 상승에 대한 신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항에 의해 강하게 하락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닫힌 공간을 갖고 있는 저항선과 충돌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T차트의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T차트의 지지선 또한 하방을 보고 있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저항의 힘은 일정한 힘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추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변곡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변곡의 과정을 거친 추세의 경우 반대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추세를 이어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변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추세를 따라

가는 것이 거래 시에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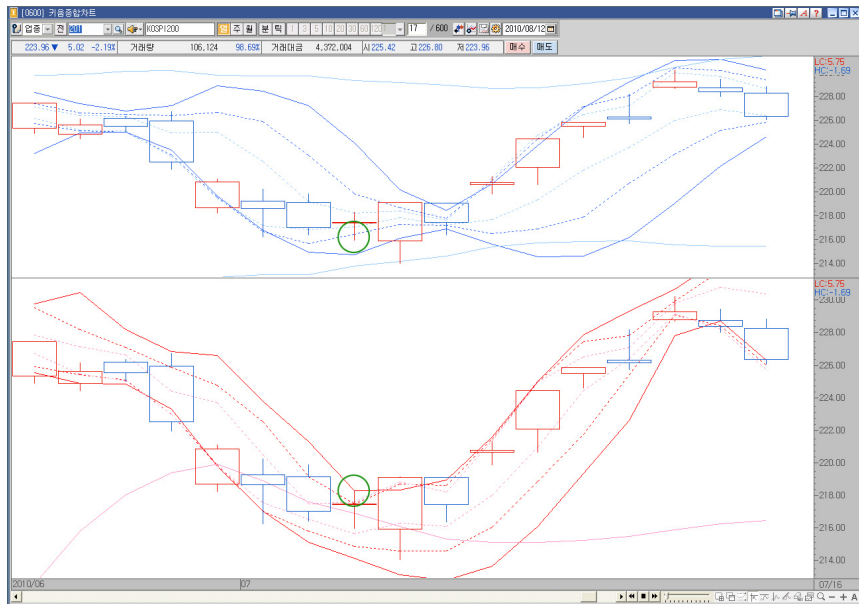
[그림 120. 2010년 7월 2일 코스피 200지수 주봉 차트]

그림 120은 2010년 7월 2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주가가 오른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가가 T차트의 저항선과 충돌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저항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했지만 종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P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을 보고 있고, T차트의 저항선도 하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5. 지지를 만나다.

P차트의 지지선과 T차트의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중에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시점에서 특별한 징후가 발견된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지지를 만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P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P차트는 가격에 반응하고 T차트는 추세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고 방향이 전환되고 나서야 추세는 그것을 인식하고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방향의 전환에서 추세의 전환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지지 역할을 하는 선이 바로 P차트의 지지선이다. 그러나 P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P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일 경우 주가는 T차트의 저항 사이를 오고 가면서 상호 간의 힘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T차트의 저항이 더 강력하다고 판단되면 주가는 P차트의 지지선을 강하게 누르면서 내려가 버린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 무드를 타는 상태에서는 P차트의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바로 P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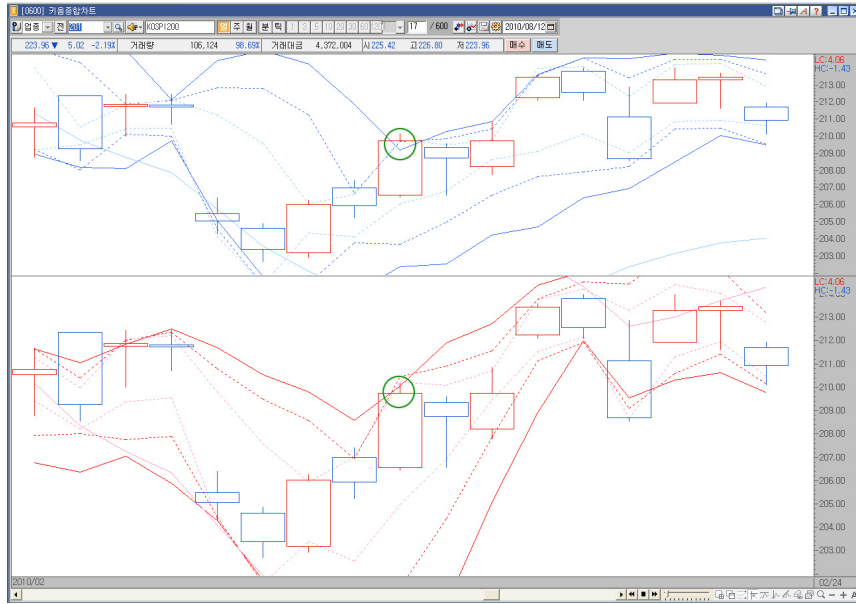
[그림 121. 2010년 7월 5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121은 2010년 7월 5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화면에서 위쪽은 P차트이고 아래쪽은 T차트이다. T차트에는 저항선이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즉 P차트 지지선의 형태와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P차트의 지지를 받은 후에 T차트의 저항선에 도달했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은 뒤 마감했다. 비록 매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P차트의 지지선이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방 전환에 성공했다면 저항을 없애는 작업으로 들

어가게 된다.

6. 저항을 없애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자리는 크게 두 군데이다. 하나는 매수단가나 매도단가가 나와 주가가 그 단가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T차트의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추세 변환에 성공했을 경우이다. 일단 P차트의 지지선을 지지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 T차트의 저항선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려 세워야 제대로 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T차트의 저항선이 위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항선의 위치가 상방으로 전환되면 주가는 저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주가를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주가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P차트의 지지선까지 조정을 한 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다. T차트의 저항선이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T차트의 저항선을 이용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는 없다. P차트의 지지선을 이용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반대로 P차트의 저항선을 이용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된다. 이때 P차트의 저항선은 하방이 되어야 한다. 주가가 P차트의 저항까지 도달한 후에 마감되면 P차트의 저항도 상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상승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반대로 P차트의 지지선까지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세 전환은 성공했으나 가격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판단한다. 분봉의 경우에는 휩소가 쉽게 발생하지 않지만 일봉은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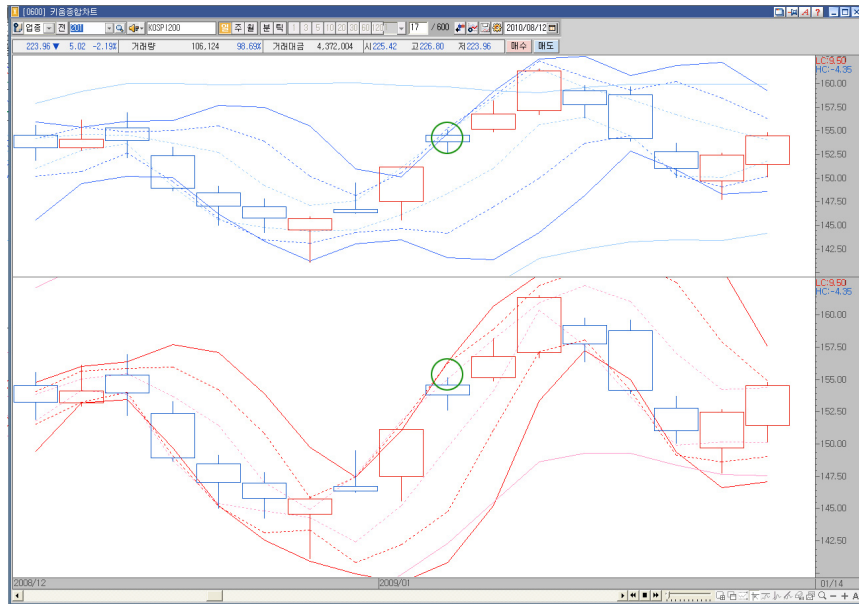


[그림 122. 2010년 2월 11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122는 2010년 2월 11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아래 T차트의 저항선을 살펴보면 상방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주가가 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보통 P차트의 저항선이 된다. 특히 P차트의 저항선이 하방을 보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아주 높아진다. 일봉보다는 분봉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없애게 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럼 T차트의 저항이 위로 열리고 P차트의 저항 역시 위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대부분 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상승한다’ 라고 표현한다.

7. 상승하다.

저항이 없어서 버린 상태에서는 주가가 자유롭게 위로 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의 경우에는 그 봉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상위 봉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열린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위 봉에서 저항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위로 가게 되어 있다. P차트와 T차트가 모두 열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오로지 메이저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주가가 과하게 상승해야 하고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T차트의 지지선을 근거로 주가가 조정을 해 줘야 한다.



[그림 123. 2009년 1월 5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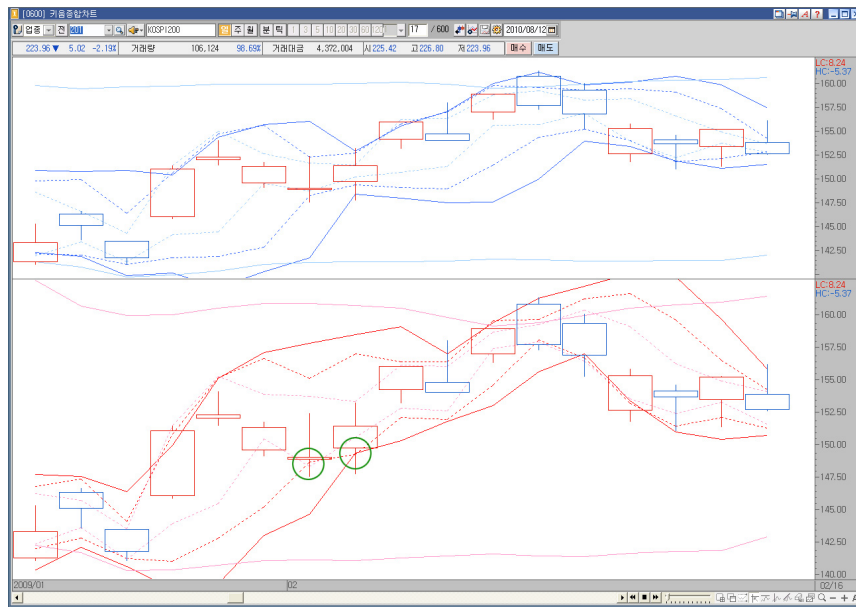
그림 123은 2009년 1월 5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P차트와 T차트의 저항선이 모두 상방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로 갈 수 있는 폭은 상위 봉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 폭에 따라 상승 폭의 크기도 정해진다. 2009년 1월 5의 경우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선 매수자들을 위한 매수 포인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당일에는 대부분 손실 상태로 마감하기가 쉽다. 따라서 매수를 하려면 상승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저항을 없애는 단계나 지지를 만나는 단계에서 실행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단계에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한 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적정 선에서 손절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하방을 보고 있던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 T차트의 지지선은 추세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8번째 단계인 '지지 유지'이다.

8. 지지를 유지하다.

주가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추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T차트의 지지선을 필요로 한다.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지선이 닫힌 공간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T차트의 지지선이 하방을 보게 되는 시점까지 T차트의 지지선에 충돌한 주가는 대부분 반등하게 되며, 주가가 T

차트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림 124. 2009년 2월 3일 코스피 200지수 일봉 차트]

그림 124는 2009년 2월 3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봉 차트이다. 2009년 2월 3일과 2월 4일의 상황을 살펴보자. T차트의 저항을 상방으로 돌려 놓았지만 가격 부담으로 인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 상방으로 전환되어 있는 T차트의 지지선을 필요로 한다. 2009년 2월 3일과 2009년 2월 4일 모두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T차트의 지지선들은 닫힌 공간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하며, 그로 인해 주가가 T차트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아주 좋은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점이 된 것이다. 물론 T차트의 지지선이 상방임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T차트의 지지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T차트에서는 지지선이 상방이 아닌 하방을 보게 되는 변곡이 오게 되고, 차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간 개념은 단지 단일 봉에 적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봉을 두고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봉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 주봉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주가가 어디로 가게 될지 좀 더 복잡한 수준의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단순히 특정 봉의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메이저라는 주체가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주가를 끌고 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트를 그려 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들의 기호에 맞게 차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월봉부터 시작해서 주봉, 일봉 그리고 각각의 분봉에 이르기까지 퍼즐을 맞추듯이 정리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퍼즐의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데자뷰 이론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더 많은 연구와 통계 자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실전이 아닌 기초 내용을 이 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 책은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통해 주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개인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좀 더 단순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미션일 것이다.

이 책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데자뷰 이론의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싶다.

언젠가 이 주식 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길 날이 온다면, 데자뷰 이론이 주식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정석같은 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그저 초보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미니 가이드 북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갖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투자자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한다.